2026 통권 61호

서울교대 교지편집위원회 교지

서울교육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어두운 밤 한 줄기 빛처럼

따스한 꽃향기와 푸르른 녹음의 설렘을 가득 안고, 사향지기 61호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중했던 그 시간들은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뜨거웠던 시간들을 오래오래 추억할 수 있도록 사향지기는 우리의 일상을 한 학기 한 권의 교지에 고스란히 녹아냅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향지기는 '사람을 향한 다채로움'이라는 꿈을 향해 오늘도 조금씩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모여 완성된 이 한 권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여러분께 등불이 되어주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꿈처럼 하나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번 61호 표지에는 아름다운 분홍빛 바다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대를 담았습니다. 자신들의 세상을 오래 남기고 싶었던 고대 사람들은 문자를 만들어 냈고, 책을 통해 인간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글은 마치 뱃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정보의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우리를 위해 이번 61호에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이야기, 우리 교육의 방향성, 한 학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보, 사향인의 이야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가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한 권의 교지가 독자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사향지기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주신 이지혜 소장님,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으로 사향지기를 한 층 단단하게 만들어주셨던 김윤서 실장님과 김차정 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61호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했던 우리 기자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기사 한 줄을 적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기자님들을 보며 처음 사향지기 지원서를 제출했던 그 환한 열정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글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순간은 '누군가 그 글을 읽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향지기가 걸어가는 길 끝에는 항상 독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향지기는 다채로운 우리의 이야기를 남기며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두운 바다를 환하게 비춰주는 등대처럼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가득 담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살랑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번 61호가 바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 한 줄기의 휴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사향지기 30기 편집국장 홍혜정

Contents

INTRODUCTION 사향지기의 봄 그리고 여름 ····· 8

CAMPUS 1

마이크로디그리, 마이크로 단위로 파헤치기 ····· 20
공간을 읽는다, 서울교대 소개서 ····· 26
응답하라 사향지기 ····· 30
서울교육대학교가 원래 고등학교였다고? 서울교육대학교의 역사 36
사랑이 머무는 곳, 다솜채 ····· 40

EDUCATION 2

교실로 들어온 자연 ····· 48
'벽에 붙은 우리 반 이야기', 교실 꾸미기로 읽는 학급 경영····· 52
진짜 나를 만나는 법, 발도르프 교육 ····· 56
마음 건강, 이제는 교육으로도 챙긴다 ····· 60
언제나 내 곁에는 EBS ····· 64
2시부터 시작되는 작은 학교 ····· 70

TREND 3

귀엽기만 하면 안될까요? ····· 76
영어 공부도 일단 켜는 시대 ····· 80
요즘 다들 국중박 간다 ····· 84
'갓생' 강박에 빠진 20대, 조금은 네버마인드! ····· 88
스마트폰 AI 파헤치기 ····· 94
2026년은 스포츠의 해!····· 98





INFO 4

책책책 책을 들읍시다 ····· 104
일상 속 위기탈출 사향원 ····· 108
정해진 엔딩이지만 줄 서는 이유 ····· 112
교대생을 위한 진로 설계 ····· 116
숙취야 가라!
다음날을 지켜주는 교대생들의 해장 메이트를 소개합니다 ····· 120
가장 익숙한 목소리의 배신 ····· 124

PEOPLE 5

반.친.소 반려동물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 130
요즘 대학생은 어디에 돈을 쓸까? ····· 134
교대생의 이중생활 '부캐'로 사는 법 ····· 138
교실 너머에 반짝이는 교사의 무한한 가능성 ····· 144

SPECIAL 6

기자's pick!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 152
26학번 새내기를 소개합니다 ····· 158





사향지기의 봄 그리고 여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 학기 동안 사향지기 부원들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아주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한 1학년 기자들부터, 멋진 선배가 된 2학년 기자들, 곧 임용고사를 앞두고 있는 3학년 기자들까지. 사향지기 기자들은 지난 1학기를 어떤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을까요? 각자의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된 사향지기 기자님들의 일기장을 한 번 넘겨보며 우리 모두 지난 1학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해 볼까요?

편집국장 홍혜정

봄(3월~4월)

2月 – 새내기 배움터 편집위원 손지후

"출발선에 선 우리,
지금 함께하는 이룸"





26학번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기 위한 '2026 새내기 배움터'가 열렸습니다. 총학생회와 각 과 학생회가 정성껏 준비한 각종 프로그램은 새내기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동기, 선배 그리고 학교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새내기 배움터와 대비하여 학우들이 함께 즐기는 활동이 확대되어 행사 내내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진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사향지기는 1일차 아리마당에서 부스를 운영했는데, 많은 신입생들이 찾아와 교지에 큰 관심을 보여 주어 더욱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

3月 – 연합엠티 수습위원 최연우





3월 말, 어느덧 완연한 봄으로 들어설 즈음 연합엠티에 다녀왔습니다. 대학 생활의 첫 엠티이기도 하고, 동기들과도 어색함이 없어질 시기라 긴장감보다는 설렘으로 가득 찼었는데요. 1학년-2학년-

3학년이 다 함께 연합하여 가평군 대성리로 향했습니다. 맛있는 고기와 김치를 먹고, 꼬치에 마시멜로를 끼워 구워먹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주신 레크리에이션 게임을 즐기고, 하이라이트인 술게임까지! 낭만 가득한 연합엠티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답니다.

3月 – 배구 경기 직관 편집위원 양시형





시즌 마지막 경기, 봄배구 진출을 앞두고 두 팀이 붙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배구팀과, 같은 순위의 다른 팀 둘이서 봄배구를 걸고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봄배구라는 목표 하나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점수 차가 벌어진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점씩 따라붙으려 애쓰는 모습에서 결과보다 더 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흐름을 완전히 내주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번엔 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아쉬운 마음을 안고 체육관을 나서며 내년엔 꼭 봄배구에 갔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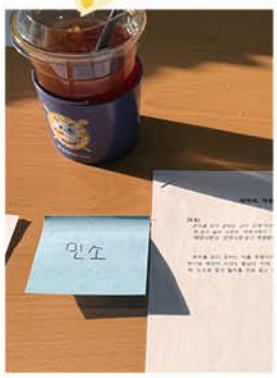
4月 – 만우절 행사 수습위원 김나원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영어과 동기들끼리 모였습니다. 대학의 만우절 관례라고 할 수 있는 교복데이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교복을 꺼내 입은 우리는 맛있는 저녁을 먹은 뒤 석촌호수로 향했습니다. 낭만 가득한 호수 앞, 조명 속 흐드러진 벚꽃 아래 사진을 남긴 뒤 진짜 목적을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로 교복 입고 술 마시기. 누구나 꿈꿔봤을 만우절 로망을 동기들과 실현하며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겹쳐진 추억은 없어도 닮은 어제와 함께 성장해 갈 내일이 있음을 느낄 수 있어 인상 깊은 하루였습니다.

4月 – 사월의 사향지기 편집위원 김민소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지요. 오색 꽃이 만발하는 사월에도 사향지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연구강의동부터 시작된 꽃길을 따라 다솜채에서 차 한 잔을 사서 학생회관에 도착하면 다섯 시 삼십 분! 지난주에 작성했던 기사를 뽑아 들고 수기 피드백을 시작합니다. 피드백이 끝나면 기다리고 있는 기자님들과의 식사 시간은 남은 한 주를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과제, 팀플, 발표, 중간고사 속에서 정기 회의부터 교육 실습 예비 소집까지 함께 한 사월의 사향지기를 떠올려 봅니다.

4月 – 동아리 한마당 편집위원 김지윤





사향지기의 봄, 4월의 마지막은 '동아리 한마당'이 차지합니다. 동아리 한마당은 동아리연합회에서 준비하는 공연 동아리들의 행사로, 토박이·오프·울림통·소울라이프·댄스리플레이가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풍물패 토박이에서 판굿을 공연하며 오프닝을 맡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1학년과 함께하는 첫 공연이기에 떨리면서도, 오랜만에 보는 선배님들의 응원에 시험 스트레스도 가득 잊을 만큼 후련하고 활기차게 공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무려 3주간의 긴 중간고사 기간에도 쉬지 않고 연습하며 준비한 공연이었는데, 학우분들께서 즐겁게 관람하셨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타 공연 동아리와 동기들의 무대를 잘 봤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 뜻깊었습니다. 향후 동아리들의 공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여름(5월~6월)

5月 – 어린이 한마당 수습위원 박천진

'어린이'라는 과정을 오래전에 졸업한 누군가에게는, 어린이날이 그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빨간 날일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교대에 입학한 이후로 저의 어린이날은 특별해졌습니다. 어린이 한마당에서 저는 하루샘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도 들었지만, 빨리 어린이들을 보고 싶다는 기대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막상 저에게 배정된 하루둥이를 만나고 함께 부스 체험을 하며 돌아다니니, 그 시간만큼은 제가 어린이의 부모님이 된 것처럼 뭘 하든 너무 예뻐 보였고 더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걱정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月 – 교생실습 편집위원 김인영





아침잠이 많은 인영 기자가 매일 6시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간. 바로 교생 실습! 늦봄과 초여름 그 사이 5월, 당중 초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다녀왔습니다.

3학년 1학기 수업실습에서는 처음으로 세안 수업을 합니다. 하필 가장 자신 없는 수학을 맡아 개인적으로 고민도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세안 수업을 포함해 수업 4개 모두 만족스럽게 해냈습니다. 시설 좋은 학교, 유쾌한 실습 메이트들, 따뜻한 지도교사 선생님, 활발하고 올바른 반 아이들까지. 얼마나 큰 행운들이 모였는지요! 하루에 3~4시간씩밖에 못 자 신체적으로는 피곤해도, 덕분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5月 – 실습여행 편집위원 박지민

여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교육 실습을 마친 뒤 다녀온 실습 여행입니다. 보람도 있었지만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던 교육 실습을 끝내고 떠난 여행이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기 중간에 잠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 특히 오호리 공원과 유후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여유를 만끽했고, 실습 기간 동안 쌓였던 피로와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여행 기간 내내 동기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기억에 남습니다.





6月 – 교내 풍경 편집위원 이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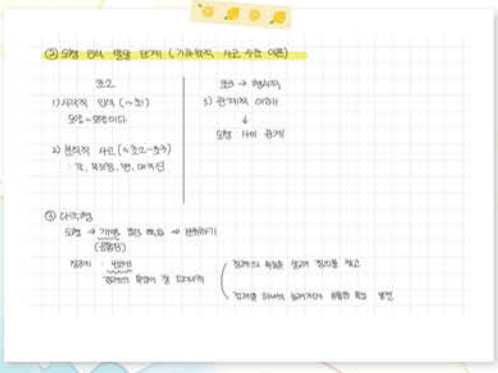




푸른 녹음이 한층 짙어지는 6월, 눈 깜짝할 사이에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라는 새로운 계절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서울교육대학교의 풍경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사향지기에서 담아보았습니다. 치열하게 달려온 1학기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2학기를 기다리는 6월입니다.

6月 – 시험기간 편집국장 홍혜정





이번 기말고사 기간은, 유독 힘들었던 시험기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벼락치기'로 시험을 준비했었는데요, 이번 학기 시험은 월, 화, 수에 세 과목씩 몰려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벼락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밤을 새울 수 있을것이라 믿고 이번에도 미리 공부하지 않았던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력,,,!! 이제 3학년이 된 저에게는 더 이상 밤을 새워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새벽 6시 알람을 맞추고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야 했던 지옥의 시험기간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았는지 이번에도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벼락치기는 없어야 합니다. 사향인 여러분도, 모두 미리 계획을 세워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6月 – 사향문화제 편집위원 박예은





6월은 종강의 달! 그리고 종강의 꽃은 사향문화제죠~! 올해는 제가 총괄을 맡아 더욱 뜻깊었던 2026 사향문화제! 노을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푸른 잔디에 돗자리를 깔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하하호호하며 수다 떠는 피크닉 시간부터~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 아래에 밝게 빛나는 대형 스크린과 함께하는 영화제 시간까지! 예쁜 영화제 티켓 굿즈와 무한리필 팝콘&슬러시는 덤이죠~ 다함께 종강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하루! 제 손으로 정성스레 빚어낸 행사인 사향문화제는 제 여름이자 청춘, 그리고 낭만이었습니다 :)

6月 – 티볼 전교전 훈련 수습위원 양재현





6월의 마지막 날에 열리는 티볼 전교전을 앞두고 티볼 동아리 부원들과 집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운동장에 아지랑이가 이는 무더운 날씨, 모두가 힘들었지만 그 힘듦보다 기쁨이 더 큰 시간이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의 팀으로 서로 감싸주고 한 번이라도 더 연습을 하고자 유익한 욕심을 부렸던 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분명 다른 팀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다만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 한 방울이라도 더 많은 땀을 흘렸다는 믿음입니다. 제게 티볼은 즐겁기 위한 취미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단하게 준비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티볼 전교전 훈련에서 여름을 가장 여름답게 즐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사향지기 기자들의 봄과 여름은, 아름다운 열정과 추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순간을 즐기며 최선을 다하는 기자님들에게 내일의 밝은 가을, 겨울이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CAMPUS

1

2026 통권 61호

CAMPUS



마이크로디그리, 마이크로 단위로 파헤치기

공간을 읽는다, 서울교대 소개서

응답하라 사향지기

서울교육대학교가 원래 고등학교였다고? 서울교육대학교의 역사

사랑이 머무는 곳, 다솜채

사향지기

마이크로디그리, 마이크로 단위로 파헤치기

편집위원 김지윤

2026년의 서울교대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다방면의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마이크로디그리'의 도입일 것이다. 2026년 1학기부터 시작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학우들과 함께하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마이크로디그리는 정확히 무엇이며, 그 초석이 된 25학번은 실질적으로 어떤 수업을 듣고 있을까?

마이크로디그리, 마이크로 단위로 파헤쳐 보자.



'마이크로디그리'란?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란 '작은'이라는 뜻의 접두사 micro와 '학위'를 뜻하는 degree의 합성어로 '부-부전공'으로도 불린다. 예비교원에게 필요한 6가지 핵심 역량을 반영한 6학점 규모의 소규모 학위과정으로 심화전공 옆에 마이크로디그리 전공명이 졸업 증명서에 함께 병기된다.

2026년도 1학기부터 운영하는 SNUE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새로운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고, 예비 교원의 현장 역량을 한층 높이겠다'는 목표 하에 실시되었다. 서울교대 재학생들은 25학번부터 개설된 강좌들 중 1개의 희망 분야를 선택해 전공별로 3가지 수업을 더 들을 수 있다. '교육대학교'라는 특수성에 맞게 교원 임용이나 현장 교육에 직접적인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는 디지털 교육전공, 기초학력 교육전공, 민주시민 교육전공, 다문화 교육전공, IB 교육전공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이크로디그리 파헤치기

그러나 이론적인 설명만으로 마이크로디그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와닿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지윤 기자가 수강하고 있는 기초학력 교육전공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이크로디그리 수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Q. 마이크로디그리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디지털 교육전공: '디지털 교육전공'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어려운 코딩이나 프로그램 실습 위주의 수업이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디지털 교육론 및 관련된 기본 소양을 기르는 전공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2학년 1학기 <디지털 리터러시와 학교교육> 강의에서는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학교교육에서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해 배웁니다. 예를 들어 구성주의 교육이론에 입각해 정보 교과목의 존재 이유와 학생들이 컴퓨터라는 도구를 대해야 하는 방향성에 관해 학습하는 식입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스크래치와 엔트리, AI와 같은 디지털 툴을 직접 사용하는 실습도 자주 이루어집니다. 학기를 거듭할수록 이론보다는 실습 수업의 비중이 높아져 에듀테크 도구나 프로그래밍 툴을 이용해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디지털활용과 창작>, <디지털창작을 위한 인터렉티브 프로그래밍> 수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교육전공: 기초학력 전공은 학기별로 <문식성과 언식성 기반 초등국어 기초학력지도>, <핵심역량기반 초등영어 기초학력지도>, <놀이와 탐구중심 초등수학 기초학력지도> 세 과목의 수업을 수강합니다. 현재 학습하고 있는 과목에서는 문식성과 언식성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어 기초학력지도 방법을 배웁니다. 기초적인 말소리 이해 방법부터 한글을 쓰고 낱말을 읽는 활동 등

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도하는지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모둠별로 기초학력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 맞는 활동을 구상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거나 마이크로티칭을 하기도 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전공: 저는 현재 <AI시민성과 세계시민성교육의 이해>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세계시민성, AI 윤리, 트랜스휴머니즘 등의 개념을 배우고 이에 관해 발표합니다. 전반적으로 AI 윤리에 관한 부분이 강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게끔 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전공에서는 이외에도 <AI윤리와 디지털 시민교육>, <공간적 시민성 교육의 실제> 등의 수업이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전공: 2학년 1학기에서는 <다문화사회교수법>이라는 이름의 문화 자체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읽기 자료를 통해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고, 함께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수업을 받습니다. 또한 타 대학 학생들과 만남을 가져 상호문화 이해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다문화상담> 수업이, 3학년에는 <문학과 음악으로 보는 다문화교육> 수업이 있습니다.

IB 교육전공: IB 교육전공에서는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의 철학부터 수업설계, 수업방식 등을 배웁니다. 올해 듣는 <IB교육의 이해와 교수-학습설계>는 2학년의 첫 수업으로, IB 교육의 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IB의 교육관, 인재상, 학습목표 등뿐만 아니라 수업설계의 전 단계로서 탐구질문을 만드는 활동 등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팀 활동이 기반이며 팀별 토의 시간도 많은 편입니다. 다음 학기에는 <IB관점으로 교육 디자인하기>, <IB교육평가 철'학'과 방법>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Q. 해당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교육전공: 제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수강하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임용고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가지 전공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수강을 통해 갖춘 해당 분야의 역량이 임용 면접에서 '교원으로서 차별성'이라는 직접적인 강점 어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현재의 교육 환경은 디지털 도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AI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첫걸음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고려했을 때 디지털 교육전공은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전도유망한 전공이며, 나아가 교직에 진출했을 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전공이라 생각하여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초학력 교육전공: '마이크로디그리'라는 새로운 제도 자체에 호기심을 느꼈고, 전문적인

교육에 관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기당 2학점의 부담 없는 수업과 '정말로 임용에 도움이 될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없지 않았습니다. 졸업증명서에 표시될 기록은 현장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교사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기초학력 교육전공을 택한 이유는 '가장 꾸준히 수요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는 꾸준히 교육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오히려 선진국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화하더라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존재할 것이며, 이들을 돕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방법을 모두 배울 수 있기에, 다방면의 학습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선택의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전공: 마이크로디그리는 정규교과 외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전공의 경우,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교육전공: 마이크로디그리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수업 일정에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중 다문화 교육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할 때 교사가 가져야 하는 생각과 그들을 제대로 대하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또한 제 심화전공인 영어교육과도 연관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IB 교육전공: 이전부터 국제적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방학에 미국 인턴십을 다녀오면서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가장 맞는 것이 IB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IB 교육은 교육정세에 맞고, 높은 교육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울교대는 IB 교육 전문학교로 승인을 받게 되었고, 대학원에도 관련 전공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자체도 좋지만, 보다 전문성 있는 교사, 혹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다른 진로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도 '마이크로디그리'라는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 마이크로디그리 제도 및 현재 듣고 있는 수업에 만족하시나요?

디지털 교육전공: 단 2학점 정도만으로 임용고시 준비에서 타 학생들과 유의미한 차별점을 확보할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심화전공과 다른 분야를 학습하면서도, 실제 교직 수행에 직결되는 다방면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졸업증명서에 영구 표기되어 별다른 대외활동 없이 개인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양 대체 학점으로 인정되어 학업 부담이 적고, 중도 포기 시 불이익이 없으며 각각 최대 50%인 A와 B 학점으로 성적 평가 비율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도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먼저 2학년 1학기의 팀티칭 수업의 경우 교수님들 간의 실질적인 협업이 부족하여 그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됩니다. 신설 과정이기에 참고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교수님의 열정 하에 방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학습량이 많고 단편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수업이 금요일에 진행되어 듣고 싶은 타 수업이나 공강 기회를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학력 교육전공: '전문적인 교육에 관한 추가적인 공부'와 '교사로서의 경쟁력 확보'라는 신청 초기의 목적을 모두 달성한 것 같아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희망하던 전문적인 수업을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특히나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국어과 기초학력지도 수업의 경우,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고민해보고 마이크로티칭을 진행해볼 수도 있어 무척 마음에 듭니다. 다양한 기초학력 교육 사례와 방법, 교육 자료들까지 얻을 수 있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도 깔끔하고 열정적이시기에 추가적인 교사 역량 확보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전공: 전반적으로 마이크로디그리 및 전공 수업에 큰 불만 없이 만족합니다. 특히나 민주시민 교육전공의 경우, 교수님께서 철학을 전공하셔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칸트나 고대 희랍 철학 등에 관해 말씀해주셔서 관심이 있다면 즐겁게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기술과 관련해서는 크게 신선한 내용은 아니었던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마이크로디그리'라기보다는 교양 한 과목을 더 듣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다문화 교육전공: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경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학생 개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만족합니다. 현재 수강하고 있는 수업 역시 대체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다만 '문화'라는 추상적이고 넓은 개념에 대해 배우고 있어 강의의 내용이 반복되고 어렵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이론과 학자들을 다루기에 조금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학기에 배울 상담과 관련된 수업이 많이 기대됩니다.

IB 교육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가장 좋은 점은 열정적인 수업 분위기입니다. 스스로가 고심하여 선택한 전공이고, 함께 듣는 학우들도 그러하기에 모두가 수업을 열심히, 관심 있게 듣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전반적인 수업의 개요나 학습 내용을 살펴봤을 때 학생들에게 더 넓은 길을 열어주려는 교수님들과 관계자분들의 노력도 잘 느껴집니다. 아직 처음이니만큼 조금 더 안정된다면 훨씬 매끄러운 수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1회 부담 없이 특색 있고 전문적인 수업을 듣는 것 같아 매우 만족합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미래 교육을 위한 예비 교사들의 또다른 노력이며,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하는 교사를 위한 훌륭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물론 처음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미숙함과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그러나 학우들의 열정과 학교 측의 노력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실용성 있는 부-부전공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사향인들이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예비 교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며, 앞으로 더욱 다채롭게 펼쳐질 서울교대의 마이크로디그리를 기대한다.



공간을 읽는다, 서울교대 소개서

편집위원 이서영
수습위원 박천진

공강 시간에 갈 곳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천진 기자. 오늘도 당연한 듯이 과방으로 향했지만, 과방엔 사람이 가득하다. *'아, 어디 가지?'*

그때 등장한 서영 기자, *"너 아직도 과방만 가니?"* 매일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 이동하는 우리에게 서울교대 건물들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공간일 수 있다. 하지만 늘 오가던 장소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유용한 쓰임새가 숨어 있다. 무심코 지나쳤던 서울교대의 매력적인 공간들을 '서울교대 소개서'와 함께 만나보자!



정문을 지나 강의실에 이르기까지, 서울교대에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 그중 학부생들이 애용하는 공간들을 함께 살펴보자.

식사 공간 - 사향융합체육관 1층, (CU 편의점 앞) 학생회관 1층





행복한 메뉴 선택 시간, 오후 수업 준비를 위해 동기들과 도란도란 활력을 더하는 점심시간, 교내 식당 외 일명 '식사 공간'이다.

휴식 공간 - 운동장, 연구강의동 앞 벤치, 학생회관 2층 휴게 공간





식사 후 찾아오는 나른함을 깨우고, 수업과 수업 사이 여유를 느끼는 틈새 시간, 학부생들이 찾는 휴식 공간이다.

공부 공간 - 도서관, 연구강의동 2층



기분 좋은 재충전을 하고 돌아와 다시 한번 몰입하며 공부하는 열정 가득한 시간, 교내 강의실 외 공부 공간이다.

학부생들의 점심시간을 책임지는 식사 공간부터 휴식 공간을 지나 공부 공간까지, 서울교대에는 학부생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있다. 이 밖에도 과방, 동아리방, 연습실, 스터디실 등 학부생들의 필요를 채워줄 공간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뚝딱뚝딱, 위이잉. 우리에게 익숙했던 교내 공간들도 머무르는 발걸음에 맞춰 변하고 있다. 최근 서울교대는 부지런히 새 단장을 하고 있다. 서울교대 공간, 이전과 뭐가 달라졌을까?

사향융합체육관, 연구강의동, 에듀웰센터 - 에듀테크 강의실





사향융합체육관, 연구강의동, 에듀웰센터 강의실 등 서울교대의 여러 강의실의 칠판이 전자칠판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에듀테크 강의실'로 재탄생한 것이다. 태블릿처럼 다양한 디지털 기능부터 강의실 컴퓨터과의 연동까지 필기가 한층 편리해졌다.

연구강의동 2층 - 공부 공간

좌석마다 개인 콘센트가 구비되어 있는 공부 공간이 연구강의동 2층에 새롭게 태어났다. 서울교대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부 공간 내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다.

에듀웰센터 - 건물 옆 출입문 개설

건물 간 이동 편의성을 위해 에듀웰센터 1층 엘리베이터 옆 새로운 출입문이 개설되었다.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간의 변화 외에도 인문관 개축, 건물 외벽 리모델링, 실내 테니스장 신축 공사, 출입문 교체 등 서울교대의 공간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앞서 캠퍼스의 다양한 공간들을 100%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향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다. 남들은 무심코 지나치던 곳이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대학 생활의 한 페이지가 된다. 사향인들의 땀과 웃음, 그리고 일상이 짙게 배어 있는 두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어색한 연주가 하모니가 되는 곳: 울림통 동방 **'통방'**

천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향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추억의 공간이 있을까요?"

울림통 부원 A "저는 저희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방, 일명 '통방'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천진 기자 "동방에서의 시간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울림통 부원 A "밤 12시까지 합주하며 팀워크를 맞췄던 때예요. 처음엔 부원들 연주가 다 따로 놀아서 어색했는데, 합주를 거듭할수록 점점 소리가 하나로 맞아가는 걸 느꼈거든요. 그 순간의 뿌듯함은 정말 잊을 수 없죠."

천진 기자 "통방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울림통 부원 A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사실 처음 지원서를 쓸 땐 무섭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 지원서를 썼다 지웠다 반복했거든요. 실제로 들어와 보니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내년에도 많은 분이 지원해서 이 즐거움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2. 다양한 일상이 교차하는 6평의 미학: **서록 2관 조리실**

천진 기자 "이번엔 기숙사로 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록 2관에서 가장 애정하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기숙사생 B "저는 조리실을 꼽고 싶어요.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 매일이 인상 깊은 곳이거든요. 기숙사생에겐 가장 가깝고 자주 가는 생활 공간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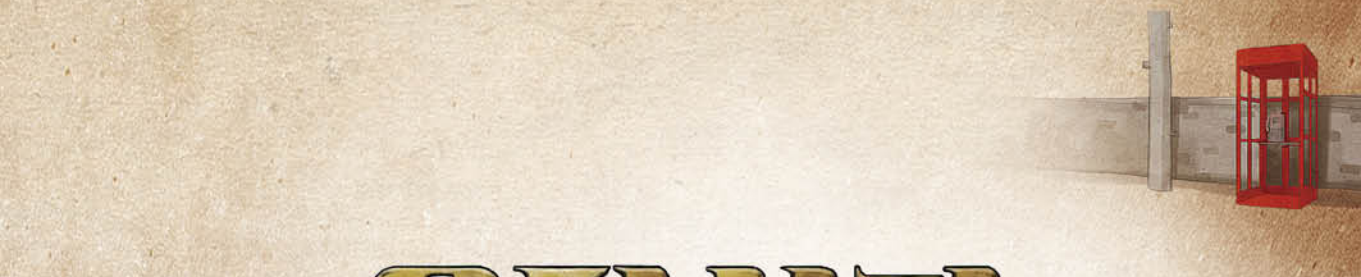
천진 기자 "조리실만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기숙사생 B "'다양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고 싶어요. 각자 다른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모습이 꽤 재미있거든요. 앞으로도 동기들과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나눠 먹고 싶어요."

천진 기자 "혹시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까요?"

기숙사생 B "공간이 협소한데 화구가 일렬이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다이닝룸에서 먹으니까, 조리실 안의 의자를 없애고 온전히 조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머무는 서울교대의 공간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추억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다. 늘 그 자리에 있어 당연하게 여겼던 공간에는 우리의 청춘이 새겨져 있다.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 속, 오늘만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공간이 주는 소중함을 느껴보자.



응답하라 사향지기

편집위원 김민소

뜨겁고 순수했던,
그래서 시리도록 그리운 그 시절.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나의 서울교대여.



*디자인에 생성형 ai가 활용되었습니다.

응답에 가슴 뛰는 이유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그토록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누군가의 청춘을 담은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것은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민과 설렘이 지금 우리의 것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개교 8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의 교지를 살펴보았다. 개중에서도 30년 전 교지인 1996년 통권 3호, 20년 전 교지인 2006년 통권 12호, 10년 전 교지인 2016년 통권 42호 『사향지기』를 펼치면 10년씩 켜켜이 쌓인 페이지들 속에서 낯설지 않은 얼굴들이 튀어나온다.



▲ 3호 (1996)



▲ 12호 (2006)



▲ 42호 (2016)

역사란 한 사회가 변천되어 온 자취 및 그에 대한 서술을 의미한다. 그 이해는 근거 자료, 관점,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머무르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기록도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라보자, 그리고 응답하자, 살아 있는 역사와 흘러가는 우리의 역사를!

역사는 살아 있다

역사는 살아 있다. 기록 안에서 살아 있는 대학 생활, 그 속에서 우리와 맞닿은 과거를 살펴본다.

강의평가제, 그 이름으로 (#강의 평가제, 1996)

97년도부터 우리 학교에 대학종합평가제가 실시된다. 우리 대학은 대부분의 강의가 획일화된 학사 편람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불만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런 강의가 그만한 질을 담보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도 문제이다. 대학종합평가제에 포함된 강의평가제가 강의의 질적인 부분의 향상에 있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우리 나름대로의 강의평가제를 조감해 본다.

교대 문화 전복 (#교대는 작다, 1996)

우리는 항상 교대가 좁다고 말하며, 자조한다. 그러면서 더더욱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 가며 갈수록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좁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기 불신에 빠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불만들조차 자각하지 못하게 길들여지는 학우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교대는 작다. 외향적으로 학교도 작고, 학생 수에서도 작다. 하지만 우리가 좁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답답함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작음'에서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분명히 아님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답답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숙사 별곡 (#기숙사에 살어리랏다, 1996)



(#서록관, 2016)

아침, 점심, 저녁 기온에 따라 옷을 바꾸어 입을 수 있는 곳, 피곤하면 들어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곳,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가 넘치는 곳, 8시 50분에 일어나도 1교시 수업에 지각하지 않는 유일한 곳, 학교 피아노를 우리 집 피아노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곳, 학교가 우리 집 앞마당 같은 곳 — 여기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 물론 살 수만 있다면…….

06 학번, 그들이 궁금하다 (#새내기 로망, 2006)

풋풋한 서울교대 새내기들은 어떤 대학 생활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06학번 학우들은 우선 학교생활 가운데 '전공 학문 내용과 전망(27%/36명)', 혹은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학 정보(25.76%)'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는 '전공 지도(43%/56명)'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유대나 인생관에 대한 조언, 그리고 다른 학문에 대한 지도 등 '전공 외적인 부분(57%/77명)'도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임고생 (#임고생의 하루, 2016)

어느덧 3월이 시작되고 꽃은 알록달록 피기 시작하는데 꽃놀이 대신 도서관으로 발걸음으로 옮기는 그들! 그들은 바로~ 2016년 올해! 우리 학교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임.용.고.시.생.(이하 임고생)이다. 임용고시 공부에 막 돌입한 임고생. 그들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한다.

수학여행, 그 속엔 늘 그들이 있었다! (#실습 여행, 2016)

서울교대 2학년이 되면 누리는 특권이 있다! 그것은 바로 1학기 관찰 실습 전후로 가는 수학여행이다! 대학에서 웬 수학여행? 놀랄 수도 있지만 각 과는 가고 싶은 장소를 선택하여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일정을 정해 여행을 떠나게 된다! 동기들과 찐~하게 멋진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수학여행! 그 수학여행 뒤에는 수학여행 준비 위원회(이하 수준위)의 여러 이야기가 듬뿍듬뿍 묻어 있다. 수학여행의 화려한 겉모습 말고! 수준위, 그들만의 애잔한(?)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자.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조금은 낯선 과거의 발자취를 이어 지금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교원임용경쟁시험의 시작,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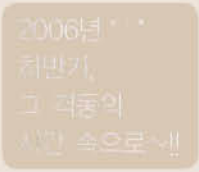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국, 공립 교대, 사대의 우선 임용 위헌 판결'에 따라 문교부가 교원 임용을 공개 전형을 통한 임용고시 실시로 하겠다고 밝히자 그에 대해 전국교육대학장 일동은 각 일간지에 즉각적인 성명서를 냈다. 사학재단은 현장의 수급은 고려하지 않고 영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렸고 이에 교원 자격증이 남발하게 되었다. 이런 무분별한 정원 증가와 수급 조절의 실패로 인하여 교원 적체가 심각해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문교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바로 '임용고시'였다.

영어 복수심화 과연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복수 심화 전공, 1996)

수업을 받으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받았던 것은 학점이 전체 평점에 들어가지 않고 졸업장에 복수 심화 이수만을 인정해 준다는 점이었다. 때로는 그 몇 자의 글자를 얻기 위해서 21 학점을 받아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험공부할 때는 F만 면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이 적었다. 하지만 이렇게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21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나는 젊다 우리는 젊다 (#교육대학교 편입, 2006)

매 해 20대 1을 오가는 경쟁률에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점수를 내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눈다는, 소문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냉정한 승부에서 우리 편입생들은 어쩌면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기막힌 운을 거머쥔 사람들이다. 영어, 교육학, 논술로 1차 합격한 이후에도 미술(연필 소묘), 음악(피아노 다장조 한 손 치기), 체육(전력 질주, 옆돌기, 농구 드리블 자세, 왈츠 기본 동작)의 2차 관문을 뚫어야 했다. 혹자는 편입생을 수능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온 기회주의자, 임용 TO 깎아 먹는 일등 공신 등으로 색안경을 끼고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말하고 싶다. 우리는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아팠고, 그만큼 기쁨의 눈물이 컸노라고…….



(#투쟁, 2006)

2006년 2학기. 교대생들은 투쟁하고 있다.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불어닥친 투쟁의 바람으로 우리 학우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가을을 보냈다. 학우들은 9월 말 양일간에 걸쳐 거리 투쟁에 나섰고 10월 초순에는 제2차 투쟁을 감행했다. 그러나 교대는 아직도 투쟁 중이다.

쉽게 말하면 중앙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하고(대부분의 도시가 35명을 기준으로 한다는 교육부의 보고가 있음.) 시도 단위의 학급수를 결정해 주면 각 교육감들이 정해진 학급 수에 맞게 지방의 교육을 꾸린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의무 교육의 균형성을 추구하면서 점진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할 여지를 주고, 과밀 학급의 학생 수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35명 이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 여건은 자연히 악화되고 안정적인 교원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신입생 맞이 행사, 낱낱이 파헤쳐보자!

(#신입생 환영회, 2016)

2016년이 밝았다. 그리고 파릇파릇한 16학번이 서울교대에 입학했다. 오리엔테이션, 각종 대면식, 신환회까지!

우리 과는 3월 10일에 신환회를 했고 학년별로 3번의 대면식을 3월에 진행했어요. 그리고 보통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행사를 준비해요. 신환회 같은 경우는 과 전체 행사다 보니 집행부인 10~20명의 학우들이 준비를 했고, 대면식은 학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4~7명이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신입생을 맞이하는 일은 설레고 기쁘다. 그래서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힘들어도 열심히 준비를 한다. 이번 해에는 대학 문화가 특히 공론화되면서 서울 교대도 그 영향을 받아 여러 말들이 있었다. 그래도 학생들은 후배와 선배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응답하라 사향인

살아 있고, 흘러간다. 사향지기는 그 기록이다. 읽었다면 응답하라, 사향인이여!

서울교육대학교가 원래 고등학교였다고?

서울교육대학교의 역사

수습위원 최연우

2026년 올해는 서울교육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80년, 한 사람의 인생에 필적할 정도로 긴 시간이다. 그렇다면 80년 전의 서울교육대학교는 어땠을까? 80년 전의 예비 교사들도 지금과 비슷한 수업을 듣고 교단에 서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80년 전의 서울교육대학교는 고등학교였다고 한다. 위치도 현재의 서초구가 아닌 행당동 쪽이었다. 그랬던 서울교육대학교는 시대를 거치며 이사를 하고, 4년제 대학교로 승격되며 초등교육의 주축으로서 발전을 거듭했다. 이 기사에서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지난 80년에 대해 알아보며, 그 시절 교육대학과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자. 또 앞으로의 80년은 어떨지, 서울교육대학교의 미래 계획도 들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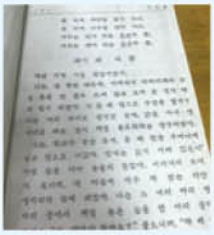
고등학교 시절의 서울교대

서울교육대학교는 1946년 '경기사범학교'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당시에는 4개월 과정의 속성과생 120명, 1년제의 강습과생 120명, 3년제의 본과생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광복 이후 초등교사가 크게 부족했던 상황 속에서 일부 학생들이 속성 교육 후 빠르게 교육 현장에 투입된 것이다. 이후 1949년 '국립 서울사범학교'로 개칭하였고, 1953년 서울사범부속국민학교(현 부설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옛 서울교육대학교 모습

1955년 제 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학문 분야별 교과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었다. 서울사범학교 역시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초등교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1차 교육과정 당시 교과서 사진

2년제, 그리고 4년제로의 승격

1962년, 서울사범학교(현 서울교대)는 서울대학교 병설 교육대학으로 승격·개편되었다.

이듬해인 1963년, 서울교육대학은 서울대학교에서 분리되어 2년제 교육대학으로 독립했다. 이 시기부터 현재와 같은 선택 전공 체제가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국어, 산수, 자연, 사회, 실과, 음악, 미술, 체육>** 등 8개 전공이 개설되었다. 이후 **교육학, 영어** 등의 전공이 추가되었고, 초등학교의 도덕 교과 신설과 함께 **도덕(현 윤리)** 전공도 신설되었다.

1977년에는 현재의 서초동 캠퍼스로 이전하였다. 당시 교정 주변은 지금과 달리 과수원이 대부분이었고, 비가 오면 길이 진흙투성이였다고 한다. 현재의 캠퍼스와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후 1981년에는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96년에는 교육대학원이 설립되어 석사과정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교육대학원에는 교육연극, TESOL 교육 등 다양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컴퓨터교육, 유아·특수교육** 등 새로운 전공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었고, 2011년에는 박사과정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서울교육대학교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꾸준한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교육대학교의 미래

지금까지 서울교육대학교의 지난 80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러 크고 작은 변화 속에 성장하는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의 2040년을 향한 비전은 **<미래를 향한 도전, 새롭게 도약하는 서울교육대학교>** 라고 한다. 그렇다면 서울교육대학교의 미래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을까?

우선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서울교육대학교는 2023년 제작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서울교대 연혁

1946	경기공립사범학교 개교
1949	국립 서울사범학교로 개칭
1953	서울사범부속국민학교(현 서울교대부초) 설립
1962	서울대학교 병설 교육대학으로 승격
1963	서울교육대학교로 개칭
1977	현 서초동 캠퍼스로 이전
1981	2년제 → 4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
1993	서울교육대학 → 서울교육대학교로 개칭
1995	교육대학원 설치 승인
2011	박사과정 신설

바탕으로 미래형 대학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부터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융합적 학습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강의실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며 AI&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서울 교육청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교육 연구와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초등 교원 양성기관을 넘어 교육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초등학생 수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서울교육대학교를 비롯한 교대들은 입학정원을 12% 감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교육대학교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등교사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교육대학교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난 80년 간 서울교육대학교는 초등교육의 변화와 함께 성장하며 수많은 초등교사를 길러내 왔다. 고등학교 형태의 사범학교 시절부터 2년제 교육대학, 그리고 오늘날의 4년제 교육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서울교육대학교의 발자취에는 교육의 역사가 담겨 있다.

오늘날의 교육 환경은 디지털 기술 발전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울교육대학교는 교육의 주축으로서, 지난 80년동안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80년의 역사를 지나, 또 다른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서울교육대학교를 향해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사향지기에서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글솜씨를 뽐내보세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사향지기에서 실어드립니다.

지원 자격 |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주　　제 | 자유 주제
(사향지기에 싣고 싶은 주제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기고해주세요.)
예 우리 대학과 관련된 이야기
알리고 싶은 교육 혹은 시사 이슈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등
(단, 교지 특성상 맞지 않는 주제는 제외합니다.)
분　　량 | A4 용지 2장 내외
보내실 곳 | dangmu041001@naver.com
문　　의 | 편집국장 홍혜정



사랑이 머무는 곳, 다솜채

수습위원 박천진

오늘도 연속되는 수업과 과제에 지친 천진 기자. 딱딱한 강의실 의자를 벗어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 발길은 자연스레 다솜채로 향한다. 거창한 휴식은 아니더라도, 달콤한 음료 한 잔에 기대어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는 캠퍼스 생활에 지친 학우들에게 작은 단비가 되어 준다. 사랑을 뜻하는 순우리말 '다솜'이 담긴 이곳은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당신의 지친 하루가 머물다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들의 소중한 안식처인 다솜채, 과연 우리는 이곳을 100% 활용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다솜채를 더욱 알차게 즐기기 위한 꿀팁들을 파헤쳐 보자!



다솜채 정복하기

다솜채는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었을까?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곳'**이라는 예쁜 순우리말 뜻을 지닌 다솜채. 우리 학교 제2미술관 1층에 자리 잡은 이곳은 지난 2008년 7월 21일에 처음 문을 열었다. 학내 구성원들의 휴식과 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사향인들의 든든한 휴식처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다솜채는 안팎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카페 인테리어는 아늑하게 바뀌었고, 요일마다 다른 분위기의 클래식 음악이 상시 재생되어 학우들의 정서적 휴식을 돕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우리 학교 **공식 굿즈**도 다솜채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어 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쉼터로서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 다솜채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불을 밝히며, 이른 아침 1교시를 준비하는 학우들부터 오후 과제를 하는 학우들까지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한다.(주말 및 공휴일 휴무, 행사 시 탄력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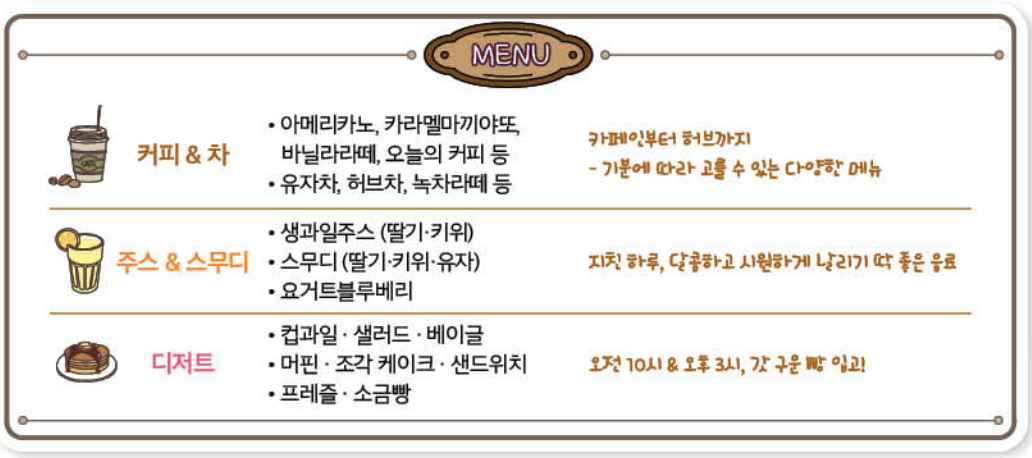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Did You know?

알아두면 좋을 점으로 다솜채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솜채 쿠폰 이외에 자체적으로 **스탬프 쿠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음료를 주문하고 픽업할 때 직원분께 말씀을 드리면 스탬프 쿠폰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 꼭 알아두자. 이에 더해 교직원과 학생들은 다솜채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보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다솜채 메뉴판 파헤치기

다솜채는 학우들의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품질의 다채로운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학우들이 말하는 다솜채, 현장이 들려주는 다솜채

다솜채의 수많은 메뉴들을 보면 어떤 메뉴를 고를지 고민에 빠질지도 모른다. 다솜채를 자주 찾는 학우라면 언제든 마시기 좋은 음료, 어느 날 문득 손이 가는 디저트, 당이 필요할 때 유독 생각나는 **꿀조합**이 하나쯤 머릿속에 있을 것이다. 다솜채를 가장 잘 아는 건 결국 이곳을 자주 찾는 학우들과, 묵묵히 이 공간을 지켜온 사람들이 아닐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다솜채를 천진 기자가 직접 알아보았다.

학우들이 뽑은 다솜채 최애 메뉴

30명의 학우를 대상으로 다솜채 최애 음료를 물었더니, 단연 1위는 '키위 스무디'였다. 무려 40%(12명)의 선택을 받으며 2위와 두 배가 넘는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상큼한 키위의 맛 덕인지 날씨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사랑받는다 하니, 아직 마셔본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도전해보자. 그 뒤를 이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거트블루베리, 녹차라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카페인 섭취를 원하는 학우들과 달콤한 맛을 추구하는 학우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라인업이다.



디저트는 어떨까? 컵과일이 20%로 1위를 차지했다. 햄치즈 소금빵, 초코머핀, 모카번 등 여러 베이커리 메뉴들이 10% 안팎으로 고르게 분포했는데, 특정 메뉴 하나가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대로 골고루 선택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솜채의 디저트 메뉴들이 그만큼 다채롭다는 의미이다.

학우들이 공개하는 비밀 꿀조합

한 끼를 가볍게 해결하고 싶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 베이글**, **녹차라떼 + 햄&치즈 소금빵** 조합을 추천한다. 커피와 빵의 조합이라면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뇌에는 카페인, 배에는 탄수화물. 전 세계 카페가 이 공식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이미 모든 걸 증명한다. 수업 전 빠르게 에너지를 충전하기에도 이만한 조합이 없다.

달콤한 하루가 필요할 때는 **바닐라라떼 + 모카번**, **녹차라떼 + 초코머핀** 조합이 정답이다. 달달한 위로가 필요한 날, 이 두 조합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더운 날에는 키위, 딸기 스무디를 동시에 주문해 섞어 마시라는 심상치 않은 제보도 있었는데, 이게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다솜채 고수만이 알 법한 조합이다.

학우들이 다솜채에 남긴 한마디도 인상적이었다. 우유 변경 옵션(두유, 오트밀크)을 추가해달라는 요청, 토스카드를 쓸 수 없어 불편하다는 목소리, 꿀조합을 활용한 세트 메뉴 이벤트를 만들어 달라는 아이디어까지 다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것이었다. "항상 맛있는 음식 친절하게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라도 다솜채에선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모양이다.

그런데 꿀조합이 항상 좋은 기억만을 남기는 건 아닌가 보다. 한 학우가 남긴 에피소드 하나.

"시험 기간에 밤새우고
컨디션이 바닥일 때,
당과 카페인 보충 겸 배를 채우기 위해
제 최애 조합인 녹차라떼와 햄&치즈 소금빵을
포장했어요. 기숙사까지 잘 들고 갔는데…
라떼를 책상에 엎질렀고 소금빵도 다
젖어버렸어요. 결국 뒤처리하느라 아무것도
못 먹고 오후 시험을 보러 갔답니다ㅎㅎ"

- 꿀조합도 무사히 집에 도착해야 꿀조합이다.

지금까지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번엔 다솜채 내부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다. 다솜채를 오랜 시간 지켜온 이영식 점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해보았다.

현장이 들려주는 다솜채

점장님은 보다 좋은 커피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커피 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했을 만큼 품질에 각별한 공을 들이시고 있다. "작은 인사 하나, 커피 한 잔에도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에서 다솜채가 왜 사향인들로 붐비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를 묻자 점장님은 아메리카노를 꼽으셨다. "장신호 총장님께서 좋은 커피 머신과 그라인더에 많은 투자를 해주시고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다솜채만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커피 맛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설문 1위를 차지한 키위 스무디와 요거트블루베리 역시 꾸준한 인기 메뉴고, 요즘같이 날이 더워질수록 자몽에이드와 레몬에이드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시중보다 재료를 넉넉하게 넣어 과일 본연의 맛을 진하게 살렸다는 점이 맛의 비결이라고.

디저트는 햄&치즈 소금빵과 크림치즈 프레즐이 꾸준히 사랑받고, 매일 직접 만드는 샌드위치도 다솜채의 자랑이라고 하셨다. 신선한 재료로 준비되는 만큼 아침 수업 전이나 공강 시간을 노려보자.

점장님이 직접 추천하는 꿀조합은 **샌드위치 + 아메리카노**다. "간단하지만 든든하게 즐길 수 있어 아침이나 공강 시간에 많이 찾아주신다"는 말씀처럼, 다솜채의 가장 믿음직하고 실패하기 어려운 조합이다. 조금 더 달달한 걸 원한다면 **에이드 + 브라우니 혹은 버터 쿠키 조합**도 학생들에게 추천하신다고.

2008년부터 함께해 온 다솜채는 단순한 카페를 넘어 우리들의 고민과 설렘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싶다면, 오늘만큼은 다솜채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작은 쉼표를 찍어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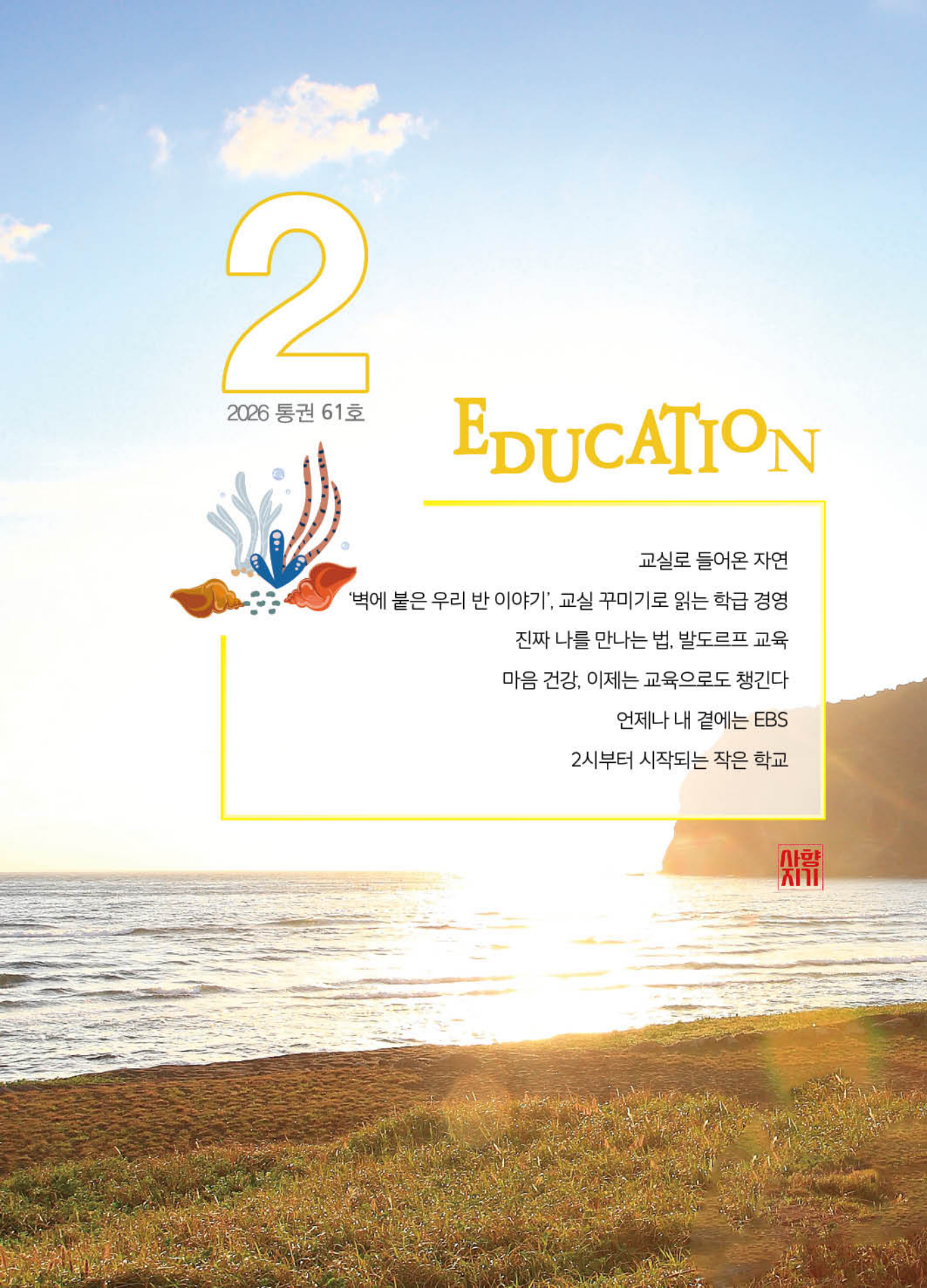
사향지기의 오탈자를 찾아주세요!

사향지기 독자 여러분,
재미있게 교지를 읽고 계신가요?
앗, 그런데 사향지기에 오탈자가 있다니?
오탈자를 발견하신 독자분들은 오탈자가 있는 부분의
페이지, 줄 수 및 위치, 오탈자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3개 이상의 오탈자를 찾아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dangmu041001@naver.com
문의: 편집국장 홍혜정




EDUCATION



2

2026 통권 61호

EDUCATION

교실로 들어온 자연

'벽에 붙은 우리 반 이야기', 교실 꾸미기로 읽는 학급 경영

진짜 나를 만나는 법, 발도르프 교육

마음 건강, 이제는 교육으로도 챙긴다

언제나 내 곁에는 EBS

2시부터 시작되는 작은 학교

사향지기

교실로 들어온 자연

편집위원 박지민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는 낯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과서 속에 머물던 '숲'과 '강'이 아이들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텃밭을 가꾸고, 하천을 탐방하며,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수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활동의 확대가 아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학교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초등 시기에 이루어지는 생태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다. 교실에서 시작되고 있는 생태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초등학생 시기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자연을 단순한 자원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공존하는 존재로 이해할 것인지는,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중요하다. 또한 초등교육은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과 일상으로 쉽게 확장한다. 예를 들어, 분리수거를 실천하거나, 물 사용을 줄이려는 행동, 주변 자연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학교 경험에서 시작된다. 이런 점에서 생태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생활 태도와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개별 학교의 자율적 시도를 넘어, 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생태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탄소중립 생태환경 모델학교'를 지정하고 있다. 이 모델학교는 생태교육을 교과 수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학교 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경기신문)

이와 같은 정책적 흐름 속에서 실제 학교의 실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포의 고창초등학교는 '경기 생태학교'로 지정되어 탄소중립 교육과 지역 기반 생태 체험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운동장 한켠에 조성된 생태숲을 중심으로 교실 밖 수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 배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수업에서는 생태숲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생태 감수성 교육, 도토리를 활용한 생태 놀이, 자연친화적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생들은 자연을 단순한 학습 대상이 아닌 하나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고창초는 '놀러와요 고창 생태의 숲'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도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기반 생태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생태교육이 개별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출처: 대전교육청/중도일보)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 중심 생태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전의 진잠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내 생태전환교육 체험장인 '초록꿈마당'을 중심으로 생활 속 실천을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공간은 생태체험배움터, 자원순환배움터, 생태숲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텃밭 활동과 자연 탐방, 자원순환 체험 등을 통해 환경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한다. 특히 생태체험배움터에서는 온실 텃밭을 활용한 작물 재배 활동이 이루어지며, 자원순환배움터에서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생태숲길은 학교의 자연 환경과 역사 자원을 연결하여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감각적으로 배우고 창의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과정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이와 함께 진잠초는 '초록꿈 지구사랑 데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환경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를 넘어 공동체 차원의 생태교육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내 체험 공간과 교육과정, 생활 실천 활동이 결합된 사례는 생태교육이 교실 중심의 이론 학습을 넘어, 생활 속 실천과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태교육의 효과는 시험 점수와 같은 지표로 측정하기 어렵다. 대신 학생들의 태도와 질문에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은 생태교육을 통해 "왜 이 강은 오염되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 방식의 변화로 이어진다. 생태교육은 자연과 인간, 개인과 사회,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하도록 만든다. 이는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과도 연결된다. 또한 생태교육은 협력과 책임의 경험을 제공한다. 텃밭을 가꾸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환경 교육을 넘어 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생태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생태교육이 여전히 일부 활동이나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생태교육이 정규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교사 개인의 역량과 관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생태교육은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체계가 부족하다면 확산에 한계가 있다. 셋째, 생태교육이 단순한 '환경 보호 캠페인'으로 축소될 위험도 존재한다. 생태교육은 옳고 그름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교육은 '좋은 수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자연은 더 이상 교과서 속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우는 공간이기에,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생태교육은 아이들의 인식과 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사회 전체를 즉각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경험이 쌓여 하나의 인식이 되고, 그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래 교사인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그리고 그 세상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생태교육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벽에 붙은 우리 반 이야기’, 교실 꾸미기로 읽는 학급 경영

편집위원 손지후
편집위원 양시형

"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첫 실습을 나간 시형 기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교실이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책상과 벽면을 채운 게시판, 그리고 저마다 다르게 꾸며진 공간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급의 약속부터 각자를 소개하는 모습까지 가득 담긴 '교실 꾸미기'!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시절 학급 게시판을 꾸미던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각 반은 저마다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 다양한 모습으로 학급 게시판을 꾸미고는 했습니다. 우리 반의 마스코트나 별명을 활용해 게시판을 꾸미고, 이를 다른 반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추억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교실 꾸미기가 단순한 환경 미화를 넘어 학급 운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교사들의 특색 있는 학급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교실 꾸미기 역시 단순한 장식을 넘어 학급 운영과 연결된 교육적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반의 규칙을 적어놓거나, 서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각자의 책상에 붙여놓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공동체 의식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교실 환경의 모습을 SNS에 공유하는 등, '교꾸'(교실 꾸미기)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교실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선생님들의 교육관과 학급 경영 철학을 함께 알아봅시다!

학생을 맞이하는 교실

'교꾸'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첫인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많은 교실에서는 환영 안내판, 알록달록한 가랜드, 각자의 이름표, 자리 배치표 등을 활용해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교실 문을 열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상과 사물함을 발견하는 순간, 학생들은 이곳이 자신이 머물 공간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래래쌤')

교실 앞면이나 게시판에 붙은 문구와 자료들은 학급의 방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미덕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급에서는 '배려', '책임', '존중', '정직'과 같은 덕목을 적어 두고, 탐구 활동을 강조하는 학급에서는 탐구 질문이나 탐구, 성찰, 행동의 IB 탐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처음 마주하는 교실 환경에는 학급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선생님의 교육관이 드러납니다. '교꾸'는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학급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학급 경영의 첫 장면이 됩니다.



(출처: 티스토리 '단짠쌤 교육이야기')

약속과 역할로 움직이는 교실

'교꾸'는 학급 운영의 기준을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교실 한쪽에 게시된 학급 약속, 생활 규칙 등은 학생들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체의 기준이 됩니다. 요즘 학교 약속 게시판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붙여 두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정한 약속을 계속 떠올리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학급 회의를 통해 함께 정한 쉬는 시간 규칙, 발표할 때의 태도, 모둠 활동 약속 등을 교실에 부착해 놓으면, 학생들은 교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1인 1역



(출처: 네이버 블로그 '다소니')

표도 많이 활용됩니다. 학생들은 칠판 지우기, 우유 정리, 책장 정돈, 분리수거를 비롯한 역할을 맡아 학급 운영에 참여합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책임감을 기르고, 학급은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의 실천을 격려하는 게시판도 학급 운영의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단계가 올라가는 독서 단계판, 바른 생활 습관이나 성실한 참여에 따라 붙이는 칭찬 스티커판, 모둠별 협력 점수판, 목표를 달성하면 작은 보상을 받는 학급 보상판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학급 경영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가 되는 교실

'교꾸'는 때로 학급 전체를 하나의 세계처럼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급 화폐를 활용한 학급 경영을 들 수 있습니다. '세금 내는 아이들'로 잘 알려진 학급 화폐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맡은 일을 수행하며, 학급 화폐로 월급을 받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세금을 내고, 저축하거나 학급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출처: 유튜브 '세금 내는 아이들')

합니다. 이때 교실은 단순한 수업 공간을 넘어 작은 사회이자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됩니다. 이러한 학급에서는 '교꾸'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벽면에는 직업표, 세금 안내, 학급 상점, 저축 통장 안내와 같은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게시판을 보며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확인하고, 학급 사회의 규칙을 이해합니다. 교실 벽면이 단순한 장식 공간이 아니라 학급 사회의 제도와 흐름을 보여 주는 안내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컨셉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실은 학생들에게 더 생생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학급을 하나의 마을처럼 꾸미고 주민 역할과 마을 회의를 운영할 수도 있고, 학급을 회사처럼 구성해 기획팀, 기록팀, 환경팀, 홍보팀으로 역할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급 방송국이나 신문사처럼 꾸며 학생들이 우리 반의 소식과 칭찬 뉴스를 직접 기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꾸'는 보기 좋은 배경을 넘어, 학생들이 학급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경험하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관계를 키우는 교실

'교꾸'는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어떤 학급에서는 친구들의 장점을 적어 붙이는 '칭찬 통장'을 운영합니다. 친구에게 고마웠던 점, 함께해서 좋았던 순간, 칭찬하고 싶은 행동을 종이에 적어 게시판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던 통장이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 채워지고, 어느새 풍성해 집니다. 교실 벽에 붙은 칭찬과 응원의 말들은 학생들이 서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출처: 제민일보)



(출처: 네이버 블로그 '평양')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게시판 역시 관계를 키우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교실 뒤편에 붙은 글쓰기 작품, 미술 활동 결과물, 모둠 활동 자료,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은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해 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이 학급 공간에 소개되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친구들의 작품을 보며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교실 게시판은 단순히 결과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배움과 성장을 함께 바라보는 공간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고마워 우체통', '마음 편지함', '오늘의 칭찬 한마디', '우리 반 생일 게시판'을 운영하는 학급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웠던 고마움이나 응원의 말을 글로 전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교꾸'는 학생들의 작품과 마음, 칭찬과 응원의 말이 함께 쌓이는 공간을 통해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과 함께 교실을 꾸미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평생 간직할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교꾸'는 단순히 벽을 채우는 꾸밈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학급 공동체의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실을 꿈꾸나요? 사향인 여러분이 만들어 갈 교실의 게시판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함께 그려 보아요!



진짜 나를 만나는 법, 발도르프 교육

수습위원 김나원

"저 집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어린 시절 나원 기자는 궁금하면 검색창을 열곤 했다. 그렇게 질문에 답을 찾으면 궁금증은 금세 가셨고 확장된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발도르프 학교에서 집이 궁금한 아이들은 인터넷이 아닌 숲을 찾아간다. 간단한 답에 만족하는 대신 이들은 집의 구조를 몸소 익히기 위해 설계부터 톱질, 조립까지 해나간다. 궁금한 것은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며 내 호기심은 어디를 향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구해 나가는 발도르프 교육. 대안 학교에서 이 특별한 탐구를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한다.

"발"전하는 아이. "도"화지같은 아이. "르"(느)껴지는 대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발도르프, 처음 들어보면 한 번에 기억하기도 어려운 매우 낯선 이름이다. 발도르프 교육의 역사는 오스트리아의 인지학자인 '루돌프 슈타이너'가 설립한 한 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이 학교의 이름은 **자유발도르프 학교**. 이는 슈타이너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아달라 한 '에밀 몰트'가 소유하고 있던 담배 공장의 이름 '발도르프-아스토리아'에서 왔다. 그렇다면 '자유'는 왜 붙은 것일까? 여기에는 교육의 정치적, 사회적 독립을 도모한 슈타이너의 마음이 담겨있다. 그가 추구한 **내적 자유**에 중심을 둔 교육관이 한국에서는 대안 학교의 형태로 15개의 자유발도르프 학교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안 학교는 현행 학교 교육의 문제를 비판하며 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교육 기관이다. 원리 탐구에 집중하는 발도르프 학교도 이러한 설립 취지를 가지고 한국에 입성하였다. 한편, 세세한 교육과정이 현존하지 않는 한국의 발도르프 학교들에서는 공통적인 구조 속에서 각 학교의 교사 개개인이 해석한 슈타이너의 교육 원리가 적용된 수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발도르프 학교는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교육**을 추구하며 학교생활이 학생들 각자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의 실현을 위해 몸으로 직접 실천해 보는 **예술적 경험**과 **실용적 체험** 위주의 활동이 주를 이룬다. 또 고유의 내면세계 발달을 위해 중요한 것은 적정 시기의 적절한 학습 지도이다. 따라서 서울자유발도르프 학교는 7세부터 10세를 저학년, 11세부터 14세를 고학년, 15세부터 18세를 상급 과정으로 분류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발도르프 학교 졸업생과 함께하는 학교 투어

여기 서울자유발도르프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학생들이 있다.
일반 학교를 졸업한 사향인이라면 각자의 공교육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비교해보며 발도르프 교육의 수업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에 도착해 수업을 준비하며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꺼냈을까? 바로 교과서이다. 일반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수업 진행의 핵심 역할을 하였다면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교과서 없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제공되는 수업자료 없이 스스로 공책에 수업 내용을 필기하며 자신만의 이해 체계를 구축한다.

나원 기자 책장을 넘기면 다음 차시로 넘어가야 하는 부담감 없이 각자의 속도대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교육 철학이 돋보이는 방식이네요!

졸업생B 네, 교과서 없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정해진 진도의 흐름에 얽매이지 않고 수업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졸업생A 수업 내용을 필기하며 나만의 교과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복습 후 매주 공책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꾸준함을 장려했던 것 같아요. 완성된 공책을 보면 떠오르는 과정들을 돌이켜볼 때나, 우수 공책으로 뽑혀 후배들을 위해 도서관에 기증할 때 느꼈던 뿌듯함이 생생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발도르프 학교의 특별한 커리큘럼 중에는 3-4주 동안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 학습**을 하는 **'에포크(Epoch) 수업'**이 있다. 주제는 다양한 과목의 세부 분야이며 미술사를 공부했다면 방학 때 진행되는 실습에 미술관을 방문하는 등의 추가 활동과도 연결된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학생들은 교사와 상호작용 하며 열의를 가지고 탐구한다.

졸업생A 중요한 주제를 대상으로는 마지막에 개인 발표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간들이 확실히 더 깊은 이해를 도왔던 것 같아요.

또한 흥미로운 것은 하나의 에포크가 끝날 때마다 자신이 깨달은 점을 **시로 써보는 활동**을 하는데 이는 발도르프 교육 철학이 얼마나 예술 활동을 중시하는지 와닿게 한다.

나원 기자가 발도르프 학교에 대해 조사하며 가장 감명 깊었던 특징은 **담임 교사제**이다. 매년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일반 학교와 달리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한 선생님과 함께하게 된다. 한 학급의 아이들은 매년 같은 선생님과 생활하며 무엇을 선물 받게 될까? 담임 선생님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방학마다 그 해 1년 동안 학생을 지켜본 소감을 **시로 지어 전달**해 주신다. 각자의 시를 받은 학생들은 다음 해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태어난 요일마다 교실 앞에 나와 선생님의 시를 낭독한다. 자신의 하루 대부분을 지켜봐 주는 선생님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읽은 학생들은 사랑과 정성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수업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또한 선생님은 성장하는 학생들 개개인에 대해 떠올리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큰 애정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도르프 교육이 추구하는 예술적 경험을 매개로 한 내적 성장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꾸준히 진행되는 **'오이르트미(Eurythmy)'**가 큰 축이 된다. '오이르트미'는 현대 무용으로 **음의 소리를 몸으로 표현**하여 노래나 시에 맞춰 춤을 추는 활동이다. 매년 열리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직접 곡 선정과 음악 편집을 하며 일주일에 두 시간씩 두 번 연습을 하게 된다.

졸업생A 저학년 때는 기본 동작들을 배우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에 집중하였어요. 고학년 때는 춤을 추며 의문도 들고 귀찮기도 했지만 상급 과정에 들어서니 비로소 '오이르트미'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글자를 몸으로 표현하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고 음악과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수업의 일부이기에 시작했던 '오이르트미'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니 내적 성장뿐 아니라 신체 능력 향상까지 일궈준 것이 체감되네요!

발도르프 학교를 졸업하며..

'방금 전 발도르프 소개를 도와준 서울자유발도르프 학교 졸업생들의 학교 자랑을 들어보자.'



12년의 발도르프 교육을 수료한 졸업생A

서울자유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소수 공동체의 끈끈한 소속감 속에서 여러 심도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하는 실습을 경험하며 고생하다 보면 같은 학급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그리고 깊게 가까워져요.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며 풍족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값진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또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밀도 있는 공부를 하며 글도 쓰고 시도 쓰는 활동으로 키운 생각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1-9학년을 지낸 졸업생B

발도르프 학교의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에게 사랑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스러운 선생님들뿐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역시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는 같은 교육관을 공유하여 발도르프 학교에서 만났기에 제게 주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초등학교에 발도르프 교육 철학을 적용한다면?

내가 쓰는 교과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느 부분까지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나만의 교과서 만들기**. 내가 교과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흥미를 이끌어 내어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로 표현하기

글을 쓰려고 책상에 앉으면 우선 내가 무엇을 쓰고 싶은지 떠올려 보며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더욱이 시는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하기에 생각을 정리하는 힘을 길러줄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을 다잡거나 한 단락을 마무리하기에 더없이 알차고 자연스러운 활동이지 않은가. 시뿐만 아니라 활동이 끝난 뒤의 소감을 짧은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며 정리 활동을 해도 좋을 것이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까지. 학교의 구성원은 모두 교육 공동체의 일부이다. 발도르프 교육 철학이 도모하는 학생들의 내적 성장은 이상적인 교육 환경의 구축에서 시작하는 것 아닐까. 예비 교사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구성원 한 명으로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 뛰어들며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의 중심축은 "사랑"일 것이다. 우리가 아이와 함께하는 1년은, 아이의 평생을 비추는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매 순간 아이들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직에 첫 발걸음을 내딛기 바란다.

마음 건강, 이제는 교육으로도 챙긴다

편집위원 이서영

"선생님, 마음에도 밴드를 붙일 수 있나요?"

초등학교 2학년 동진이는 수학 시간 내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본다. 어제 부모님이 다투시는 소리에 밤잠을 설친 동진이 마음에는 커다란 멍이 들었지만, 어디에도 이 아픈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없다. 고개 숙인 동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덧셈 방법이 아니라 속상한 마음을 달래줄 마음의 쉼터가 아닐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채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마음 건강 수업이 개설된다. 2025년 3월부터 **'한국 사회정서교육(K-SEL)'**이 의무화되며 마음 건강이 정식 교육 영역으로 들어왔다. 동진이와 같은 아이들의 마음을 돌봐줄 K-SEL에 대해 알아보자.





"동진아 괜찮아"

동진이의 마음을 위로해 줄 이 '마음 수업'은 일반적인 사회정서교육(SEL)과 무엇이 다르며, 왜 '한국(K-)'이라는 특별한 이름의 교육으로 바뀌었을까? 사회정서교육과 한국 사회정서교육을 비교해 보자.

구분	사회정서교육	한국사회정서교육
핵심 목표	독립성 개인의 감정 인식, 자아존중감, 주체적 의사결정	관계성 타인과의 조화, 관계 속 유대감과 배려
교사의 역할	조력자 교사는 학생의 자율적 성장을 돕는 조력자로 규정	보호자 교사는 생활을 보호하고 모범이 되는 멘토로 규정
교육 현장과의 연계	독립 프로그램 및 교과 창체 등 독립된 교과 및 활동으로 분리하여 운영	기존 인성 교육과 융합 도덕, 실과 등 기존 인성 교육 및 국가 교육 과정의 교과 내용과 융합하여 지도



기존 SEL이 '개인감정 조절'과 '사회적 기술 습득'이라는 보편적 역량에 집중한다면, K-SEL은 여기에 한국 교육 현장을 반영하여 '공동체 내의 관계 관리'와 '적극적인 정신건강 인식 및 위기 시 도움 요청'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결국 K-SEL은 학생이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전인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마음의 문 이제는 보여줘도 돼, 손 내미는 건 용기야"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음 건강 수업이 기존의 생활지도나 도덕 수업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기존의 생활지도가 '규칙 준수'와 '문제 행동의 교정'이라는 사후 처방에 초점을 두었다면, K-SEL은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돕는 교육이다. 교사가 판단하여 행동을 취하고 단순히 무엇이 옳거나 그른지 머리로 배우는 교과 수업을 넘어,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서적 대처 능력'을 체득하게 한다. 아픔을 속으로만 앓던 아이는, K-SEL을 통해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손 내밀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감정을 읽고 위로를 건네는 AI가 대중화되는 시대에서, K-SEL 교육의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진심 어린 관계를 맺는 과정은 AI가 발달하더라도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영역이다. AI가 지식 전달의 효율을 극대화할수록, 인간 고유의 영역인 깊은 공감과 복잡한 관계 속의 갈등 해결 능력은 더욱 독보적인 가치를 지



니게 된다. AI가 교실 풍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사회정서교육은 학습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다. 전자기기 화면이 익숙해진 환경 속에서 K-SEL은 학생들이 화면 너머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균형을 잡도록 돕는 '마음 나침반' 역할을 한다.

"네 곁엔 Wee, 함께학교가 있어"



교육부는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Wee 프로젝트'와 '함께학교'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Wee 프로젝트'는 단계별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다중 통합지원 플랫폼이다. '함께학교'는 교육부, 학생, 학부모 세 교육 주체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자유로운 상시 소통의 공간이다.

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Wee 프로젝트는 위클래스, 위센터, 가정형 혹은 병원형 위센터 등 관련 Wee 기관을 찾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음건강을 진단하는 검사지와 모바일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함께학교 홈페이지



함께학교는 크게 '스터디카페', '함께톡톡', '교원연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서 멘토링과 학업 설계, 질문을 나누는 '답!답해요', 교수학습 자료를 나누는 '수업의 숲'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Wee 프로젝트', '함께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에듀테크 플랫폼과 교육 체계가 도입되고 있다. 사회정서교육은 단순히 오프라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동진아, 네 마음은 어때?"

수학 문제보다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게 더 어려웠던 동진이에게, 이제 학교는 "공부해" 대신 "네 마음은 어때?"라는 말을 건넨다. K-SEL의 의무화는 단순히 새로운 과목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동진이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에게 학교가 내미는 공적 밴드이다.

교육 패러다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식의 양이 곧 경쟁력이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AI가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인 '사회·정서적 역량'이 교육의 핵심 지표가 되었다. 2025년 3월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정서 학습의 의무화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교육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언제나 내 곁에는 EBS

편집위원 손지후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
"이것도 저것도 궁금하니, 너와 나 언제나 보니하니" ♫

두 문장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되살아난다. 아무렇지 않게 흥얼거리던 그 노래처럼 우리 곁에는 늘 EBS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즐거움을 책임지던 그 채널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도 조용히 자리 잡았다.



우리의 시간을 함께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는 1974년 개국 이후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함께 우리 곁을 지켜왔다. EBS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부터 고품격 교양·다큐멘터리, 그리고 각종 학습 콘텐츠와 성인 대상 강의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배움을 담당해 오고 있다.

EBS와 함께한 우리는 …

처음 TV를 접하던 시절, 놀이처럼 배움을 만났고



뽀롱뽀롱 뽀로로
뽀로로와 친구들의 일상을 통해
우정과 사회성을 그린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딩동댕 유치원
노래와 놀이를 통해 기본 생활 습관과
공동체 가치를 기르는 유아 프로그램

학교에 다니던 시절, 재미 속에서 지식을 쌓았으며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다양한 코너와 뛰어난 진행으로
초등학생들의 저녁 시간을 책임진 예능 프로그램



모여라 딩동댕
번개맨과 함께 정의와 협동의 긍정적인 가치를
전하는 어린이 공개방송 프로그램

입시를 앞둔 시기, 그 속에서 길을 찾아



EBSi 강의
학교 공부와 수능 대비, 나아가 평생 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양질의 강의 콘텐츠



지식채널e
다양한 분야에서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짧은 영상으로 전달하는 교양 프로그램

성인이 된 지금,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가고 있다



EBS 다큐프라임
깊이 있는 주제 탐구로 사회와 인간을 조명하는
EBS 대표 다큐멘터리 시리즈



위대한 수업
세계 석학들의 강연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전하며 화제를 이끈 프로그램

위와 같이 EBS는 재미와 교훈을 모두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부터 대한민국 대표 다큐멘터리로 자리매김한 *<EBS 다큐프라임>*까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품격 프로그램들이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다. 특히 *<위대한 수업>*은 EBS의 교육적 영향력과 기획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매 회차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연을 펼치는 이 프로그램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현대 공리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 젠더 이론의 세계적 석학 주디스 버틀러를 비롯한 지성들이 연이어 출연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EBS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지식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과 깊이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EBS의 콘텐츠는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EBS 만점왕>*이나 *<EBS 방학생활>*과 같은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보완 학습 자료로 제시되며, *<지식채널e>*의 짧은 영상은 수업의 도입이나 정리에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또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역사가 술술>*, *<스쿨랜드>* 등의 프로그램은 이야기 속 상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부터 가치·태도까지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EBS는 단순한 시청을 넘어 **교실 안팎에서 학습과 성장을 연결하는 유용한 교육 자원으로 기능**한다.

지후 기자 PICK! 초등학교에서 활용하기 좋은 EBS 콘텐츠



역사가 술술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이야기처럼 풀어낸
스토리텔링 형식의 상황극 프로그램



스쿨랜드
문제 해결의 모험 구조를 통해 교과 내용을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융합형 학습 프로그램

※ *<역사가 술술>* 외에도 *<생물이 생생>*, *<창의가 반짝>*, *<신체가 튼튼>*, *<사회가 쑥쑥>*, *<과학이 톡톡>*, *<발명이 팡팡>* 등 다양한 과목·주제별 시리즈가 교과 내용을 흥미롭게 확장한다.

한편, EBS의 미디어 콘텐츠는 지상파 방송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EBS는 1TV와 2TV, 라디오 EBS FM을 넘어 위성 방송, 출판, 인터넷 플랫폼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왔다. 출판 브랜드 'EBS BOOKS'는 각종 학습 교재와 방송 기반 단행본을 선보이며 초·중·고교 학습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꾸준히 배출해 왔다. 또한 2004년 'EBSi 수능강의'를 시작으로 영어교육 플랫폼 'EBSe', 수학교육 사이트 'EBSMath',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솦(EBS Software Learning Platform)'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교육 지원을 넘어 학습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EBS는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며 오랜 시간 축적해 온 방대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해력과 사고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강의, 수학 애니메이션, 4차 산업 시대를 반영한 창의·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EBS의 가치는 2020년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교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당시 EBS는 사실상 전국 학생들을 위한 임시 학교 역할을 수행했다. 팬데믹 속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12개의 러닝 채널을 운영하고, 이솦을 통한 온라인 클래스로 비대면 학교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 공백을 메우는 데 이바지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했으며, 사회공동체 회복과 나눔 문화 확산에도 힘쓰며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EBS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1위로 평가받으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구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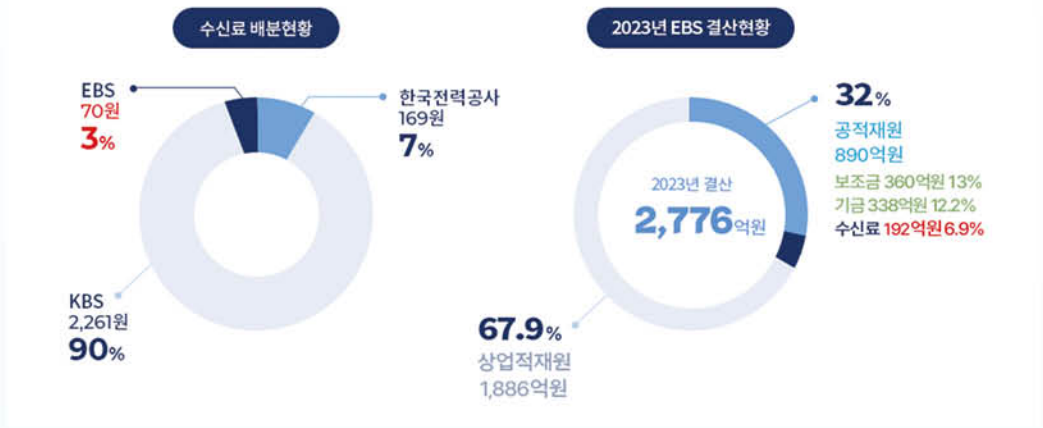
* 2020년 3월 23일 EBS 라이브특강 현장

70원의 방송, 그 이상의 가치

이러한 역할에 비해 EBS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적 재원이 보장되지 않아 전체 재원의 약 70%를 교재 출판, 온라인 강의와 교육 플랫폼 운영, 콘텐츠 판매 및 광고·협찬 등 자체 수입, 즉 상업적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상업적 재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공영방송 본연의 공익성과 독립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EBS는 다른 방송사와 다르게 수익성이 낮은 교육·교양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 왔다. 만약 공적 재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교육적 가치보다 수익성이 우선되는 콘텐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EBS가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EB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적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공적 재원 가운데 특히 **TV수신료는 정치적·상업적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재원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꼽힌다. 그러나 EBS가 배분받는 수신료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수신료 가운데 EBS에 들어가는 몫은 약 2.8%에 불과하며, 가구당 월 2,500원의 수신료 중 실제로 EBS에 돌아가는 금액은 월 70원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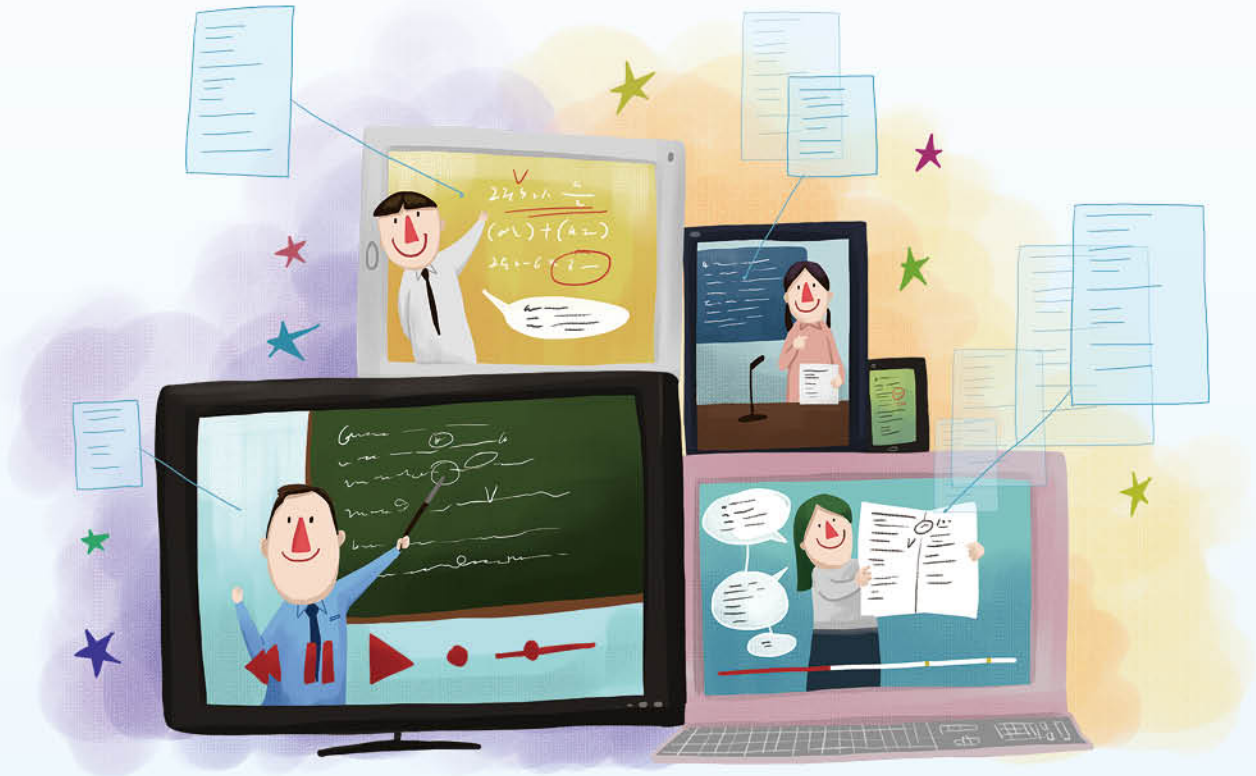


EBS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제한된 재원으로 공익성과 교육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따른다. 이런 흐름 속에서 EBS는 '구독이 후원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OTT 구독을 도입하고 기존에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던 다시보기 서비스의 일부를 유료화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재원 역시 상업적 재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적 재원의 확대에 있다. 이 맥락 속에서 현재 약 **70원 수준에 머무르는 수신료 배분을 700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EBS는 충분한 수신료 재원이 확보된다면 '국내 최고 지식 콘텐츠 허브'로서 더 큰 교육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수신료는 EBS가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 방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돕는다. 결국 수신료 배분 문제 해결은 EBS의 생존을 돕는 것을 넘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켜가는 일과 맞닿아 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EBS는 시대와 세대를 넘어 우리와 함께해 왔다. 이제는 이 익숙한 동행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차례이다. EBS의 가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이 그 역할을 이어가는 출발점이다.

언제나 내 곁에 있던 EBS,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곁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사진 출처 및 참고 문헌: EBS 홈페이지(www.ebs.co.kr), EBS 유튜브, EBS TV수신료 홈페이지(https://about.ebs.co.kr/kor/tv/fee), <교육방송 46년, EBS 공사창립 20년사>



2시부터 시작되는 작은 학교

편집위원 김지윤

딸랑, 하고 종소리가 울린다. 웃음 섞인 달음박질과 함께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OOO 아동, 등원하였습니다.'라는 출석 카드 알림음이 울리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이는 밝게 인사한다. 삼삼오오 모여 놀다가 기초학습이 싫다고 투정을 부린다. 오늘의 간식을 확인하며 재잘재잘 말을 건다.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소개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보호·교육·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그 중에서도 만 18세 미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취약계층을 우선해 무료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아동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와 차이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부터 법제화 되었으며, 현재 4000개가 넘는 센터가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방과후 보호 및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에는 보호, 교육, 문화, 복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센터의 성격과 운영에 따라 체험학습을 가는 주말·공휴일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귀가시간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야간 보호 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이나 진로 탐색 등의 특화 프로그램도 찾아볼 수 있다.

기본 프로그램	보호 프로그램	빈곤·방임 아동 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 제공, 위생지도 등
	교육 프로그램	학교생활준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 숙제지도, 안전교육, 예체능 교육 등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캠프, 놀이 활동 지원, 공동체활동 등
	복지 프로그램	상담, 정서적 지원, 부모교육 등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결연 후원, 지역복지활동 등
특화 프로그램	주말·공휴일 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야간 보호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난 봄과 여름, 지윤 기자는 영등포구에 위치한 '구립푸르름지역아동센터'에서 근로를 하였다. 한국장학재단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으로 매칭된 멘티가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다. 멘티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저학년의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이었지만, 센터에서는 멘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함께할 수 있었다.

#지윤 기자의 센터 일기

친해지기







푸르름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집중한 일은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이었다. 센터에는 이주배경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학습 수준도, 연령대도 모두 다양했다. 2025년 기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

저학년의 나이일수록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많았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아이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며 다가와 준 덕분에 개개인의 특성과 선호, 성격까지 깊이 파악하게 되었다.

방학에는 거의 평일마다 센터로 갔지만, 학기 중의 평일에는 주1회만 가서 근로를 하곤 했다. 아이들의 요청을 받아 좋아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그려주기도 하고, 보드게임이나 레고 블록을 하기도 했다. 아직 언어 유창성이 낮은 이주배경 저학년 아이와 함께 책을 읽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책으로만 보던 라포를 형성하였다.

학습하기

푸르름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요일별로 기초 수학과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수업의 담당 선생님께서 오셔서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공부를 도와주시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수학 기초학습의 경우,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복습과 방학 중 이루어지는 예습을 도왔다.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확인하고 질문을 던지며 그들만의 풀이과정을 이끌었다. 수학은 아이들이 가장 흥미가 없는 과목이었던 데다가 어렵기까지 하여 기초학습을 돕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나 중·고등학생들은 선수학습의 기초가 완벽하게 다져지지 않아 새로운 진도를 나갈 때마다 애를 먹기도 했다. 그때마다 차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별로 절차를 설명하는 연습을 하였다.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설명 방식을 고민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은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센터에서의 배움이 마냥 일방향적이지는 않았다. 아이들의 기초학습이 끝난 후에는 내가 놀이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아이들 덕분에 각종 보드게임을 섭렵하였고 여러 버전의 공기놀이도 배웠다. 특히 체스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말의 이동 경로를 상세히 강의해 주기도 했다. 내게 '교육'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서로 배움'에 있음을 구립푸르름지역아동센터에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예비교사로서의 소감

아이들과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푸르름지역아동센터에서의 시간은 근로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는 것들도 잘 알고, 학년별 아이들의 성향 또한 이해할 수 있었다. 점점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으며 친해졌고, 서로 정도 많이 들었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스스로의 언행을 더욱 주의하고 모범적인 태도를 갖추려 노력하게 되기도 하였다.

방학 중 센터에서 짧은 수업을 한 적이 있다. 안전교육 관련 영상을 보고 만들기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아주 간단한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서의 발표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다. 아이들로부터 책임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동시에 얻으며, 지역아동센터 또한 단순한 돌봄의 공간을 넘어 학교와 결을 같이 하는 교육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과 복지가 만나는 지점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히 간식과 놀거리를 제공하는 보육의 공간이 아니다. 학생의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호작용과 경험, 물질적 지원까지 제공하는 생활 전체의 복지를 위한 곳이다. 보호 시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경험까지 제공하는 역할을 지역아동센터는 수행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와 협력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함께 형성하며, 센터에서의 교사와 아동·아동과 아동 간 관계는 실제 학교생활에서도 유의마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가 공교육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면, 지역아동센터는 보다 개별적인 학습 보완과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를 메운다. 이러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긴밀한 협력은 아동의 성장을 더욱 개별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살피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와는 다른 형태로 아이들의 일상을 지탱하며 촘촘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한다. 2시부터 시작되는 이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은 또다른 세계를 배우고 보살핌을 받는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더욱 유기적인 연대를 기대하며,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서의 하루를 마친다.




TREND

3

2026 통권 61호

TREND



귀엽기만 하면 안될까요?

영어 공부도 일단 켜는 시대

요즘 다들 국중박 간다

'갓생' 강박에 빠진 20대, 조금은 네버마인드!

스마트폰 AI 파헤치기

2026년은 스포츠의 해!

사향지기

귀엽기만 하면 안될까요?

편집위원 박지민

우리는 오늘도 한 번쯤 '힘들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불안정한 경제 환경, 심화된 경쟁, 그리고 일상화된 비교와 평가는 개인에게 끊임없는 적응과 성과를 요구하며 정서적 소모를 유발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강한 자극보다 '무해한 것'에 끌리고 있으며, 이는 반복적인 소비와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 『트렌드코리아 2025』는 이를 '무해력'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지만,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현재의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해함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현대인이 선택한 하나의 대응 방식이 아닐까?



무해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기능을 가진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환경이 과도하게 자극적이거나 부담스러울수록, 자연스럽게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한다. 현대 사회는 쏟아지는 정보, 복잡한 인간관계,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 등 여러 측면에서 높은 자극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극은 개인의 집중과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오래 지속될 경우 피로를 축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개인은 일정 시점에서 자극을 줄이기 위한 선택을 한다. 무해한 대상은 이러한 조건에 적합하다. 그것은 부정적이지 않으며, 긴장을 유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극의 강도를 낮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무해함은 단순히 편안함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감정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특성은 형태가 달라져도 이어지는데, 형태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낮은 자극과 안정성은 공통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무해함은 특정 대상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는 **감정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무해함이 주는 안정감은 무엇보다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은 개인에게 반응과 책임을 요구하며, 이러한 구조는 일상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반면 무해한 대상은 이러한 요구에서 벗어나 있다. 무해함 앞에서는 잘해야 할 필요도, 숨은 의미를 해석해야 할 필요도 없다.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성과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 우리는 단순히 '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때 경험되는 비요구성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서, 지속적인 요구에 노출된 개인에게 일시적인 해방감을 제공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일상에서 쉽게 얻기 어렵다. 따라서 무해함은 단순히 '편한 것'이 아니라, 요구가 제거된 상태 자체가 만들어내는 안정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해함이 지속적으로 선택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측 가능성**에 있다. 현실은 불확실성과 변수로 가득 차 있으며, 개인이 모든 결과를 통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조건은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무해한 대상은 대체로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반복적인 영상이나 촉각적 물건들은 동일한 자극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제한적이지만 분명한 통제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출처: Wikimedia Commons)

고대 여러 문화권에서는 작은 돌을 손에 쥐고 엄지로 반복적으로 문지르며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워리 스톤(Worry stone)'이라 불리는 물건이 있었다. 이 단순한 행위는 일정한 촉각 자극을 통해 긴장을 낮추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특별한 의미 해석이나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감각은 개인에게 예측 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한다.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슬라임이나 말랑이와 같은 물건이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누르면 형태가 변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은 언제나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 단순한 반복은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리듬을 제공하며,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이 과정에는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다.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한 부담도 없다. 이러한 특성은 결과 중심의 일상과 대비되며, 개인이 잠시 다른 방식의 경험에 머무를 수 있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무해함은 예측 가능한 구조를 통해 안정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무해함을 추구하는 현상을 단순한 현실 회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무해함이 수행하는 역할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지속적으로 자극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감정적 소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무해함은 자극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현실에 계속 참여하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감정을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기 위해 자극을 줄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무해함은 수동적인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에 가깝다. 이러한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해함은 일시적으로 소비되는 유행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무해함'은 겉으로 보기에 가볍고 사소한 현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극을 조절하며 일상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선택이 담겨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해함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압박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낮은 자극과 높은 안정성을 지닌 대상을 찾게 된다. 이는 특정 시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 방식이다. 무해함의 힘은 크거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은 안정과 제한된 통제, 최소한의 감정 소모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이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무해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개인에게 필요한 하나의 실질적인 힘이 아닐까?



영어 공부도 일단 켜는 시대

편집위원 김인영

등굣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 잠깐,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이제 영어 공부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서 하는 일만이 아니다. 일상 속 자투리 시간에 짧게 켜고 이어 가는 공부가 더 익숙해졌다. 거창한 결심으로 시작하는 공부보다, 일단 앱을 켜는 가벼운 행동이 영어 공부의 새로운 방식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영어 공부는 언제부터 '오래, 많이' 하는 공부보다 '짧게, 자주' 이어 가는 공부로 바뀌었을까?



*표지 사진 생성형 ai 활용했습니다.(출처: 생성형 AI)

야나두에서 듀오링고까지: 온라인 영어 학습의 발전

야, 너두 할 수 있어!

2016년, 전 국민에게 영어 회화 자신감을 심어준 인터넷 사이트, **'야나두'**. 예전에는 학원이나 문제집, 인터넷 강의처럼 자리를 잡고 오래 하는 공부가 중심이었으며, 한번 시작하려면 큰 결심이 필요한 공부처럼 여겨졌다. 야나두의 '야, 너두 할 수 있어'라는 광고 문구는 **누구나 영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정이 제각각인 학습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짧고 집중된 학습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오래 공부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학습을 매일 이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실력 향상만큼이나 '끊기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감각이 강조되면서, 영어 공부가 배움의 내용뿐만 아니라 **루틴과 학습의 연속성**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연속 학습을 멈추면 초록 부엉이가 지하실로 데려간다.

대표적인 영어 학습 앱 **'듀오링고'**의 특징은 사용자의 연속 학습을 집요하게 유도한다는 점이다. 매일 한 레슨 이상을 완료해야 하고, 학습을 완료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알림이 오며, 특히 늦은 밤에는 배경 화면에 타이머까지 띄우며 재촉한다. 연속 학습이 끊길 경우, 듀오링고의 마스코트인 초록 부엉이 '듀오'가 직접 찾아와 지하실로 데려간다는 '지하실 밈'이 유행하기도 했다. 듀오링고의 홍보 방식은 B급 감성으로 유명한데, 특히 한국 듀오링고는 온갖 최신 밈을 변형해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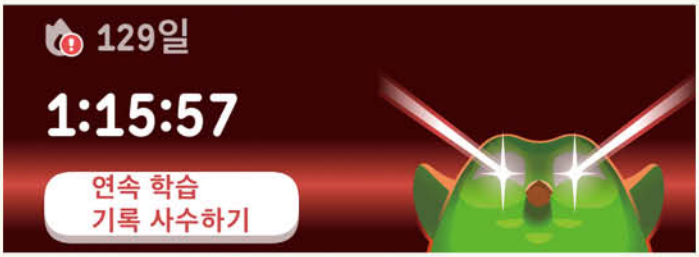
왜 듀오링고는 친숙하면서도 집요한 캐릭터를 쓸까? 단순히 눈에 띄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이런 전략은 결국 **학습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다. 연속 학습을 유지하게 하려면 사용자가 영어 공부를 부담스러운 과제로 느끼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듀오링고의 목표는 알림이 오면 학습자가 반사적으로 앱을 켜고 짧게라도 학습해 매일 앱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즉, 듀오링고의 독특한 마케팅과 구조는 모두 영어 학습을 끊기지 않게 이어 가도록 설계된 장치에 가깝다.



잠깐! 인영 기자의 '듀오링고' 사용 후기

2026년 6월 29일, 인영 기자는 129일째 연속 학습 중! 동기의 권유로 시작한 듀오링고는 어느새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이 되었다. 바쁜 날에는 레슨 하나씩, 여유로운 날에는 몇십 분 동안 학습을 한다.

친구와 함께 세우는 연속 학습 목표, 타 학습자와의 기록 경쟁 등 다양한 장치로 연속 학습에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다. 듀오링고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프랑스어 등의 8개국 언어 과정과 음악, 체스 등의 비언어 과정 학습도 지원하기 때문에 지인들의 다양한 학습 후기를 듣는 재미도 있다.



▶ 연속 학습 알림



▶ 친구와의 연속 학습 목표

학습을 게임처럼, 게이미피케이션

이처럼 듀오링고의 알림, 보상, 연속 학습 기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용자를 계속 돌아오게 만드는 설계다. 이러한 설계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다.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게임(Game)'과 '~화하기(-fication)'를 결합한 신조어인데, 사업가인 게이브 지커만(Gabe Zichermann)은 게이미피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했다.

> *'게임 요소와 메커니즘을 비게임 환경에 도입하여*
> *사용자의 참여도와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고,*
> *이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변화시키는 전략'*

교육 분야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은 학습 환경에 게임 요소를 통합해 **학습 경험을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하숙요, 2024). 영어 학습 앱은 이렇게 게임의 방식을 빌려 사용자가 매일 다시 접속하고 학습을 이어 가도록 한다. 핵심은 단순히 공부를 재미있게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계속 참여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채워 기록을 이어 가고 작은 보상을 받는 과정은 학습자에게 성취감을 준다. 이런 경험은 영어 공부를 멀고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니라, 짧게라도 해낼 수 있는 일로 바꾼다.

이런 흐름은 듀오링고 같은 앱에서 특히 두드러지지만, 오늘날 영어 학습 앱 전반에도 넓게 퍼져 있다. 단어 중심 영어 학습 앱인 '말해보카'는 짧은 퀴즈와 반복 복습으로 학습의 부담을 낮추고, 영어 회화 중심 앱인 '스픽'은 AI와의 회화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학습을 이어 가게 한다. 이렇게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용자가 '**계속 학습하게 만드는 구조**'를 중심에 두고 있다. 최근의 영어 공부가 내용만큼이나 시스템과 설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부를 넘어 자기관리의 도구로

오늘날 영어 학습 앱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학습 콘텐츠만이 아니다. 사용자는 단어를 외우고 회화를 연습하는 동시에, '오늘도 공부했다'라는 감각을 함께 얻는다. 매일 짧게라도 학습을 마치는 과정은 영어 실력 향상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만족을 준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스스로를 놓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작은 목표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취감은 영어 앱이 **공부를 눈에 보이는 기록으로 바꿔준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다. 연속 학습 일수, 포인트, 완료한 레슨 수는 사용자가 자신의 학습을 수치로 확인하게 만든다. 예전에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막연한 다짐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오늘 얼마나 했는지, 며칠째 이어 가고 있는지가 앱 안에 바로 남는다.

이 때문에 최근의 영어 공부는 얼마나 깊게 공부했는가보다 얼마나 끊기지 않고 이어 갔는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듀오링고의 연속 학습 구조, 말해보카의 짧은 퀴즈와 복습, 스픽의 짧은 회화 연습은 방식은 달라도 모두 **사용자가 학습을 오래 붙잡기보다 부담 없이 다시 시작하도록** 만든다. 완벽하게 많이 하는 공부보다, 짧더라도 계속하는 공부가 더 현실적인 방식이 되었다.

결국 영어 학습 앱은 단순한 공부 도구를 넘어 자기관리 도구처럼 작동한다. 사람들은 앱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동시에, 꾸준히 자기 계발을 이어 가는 감각도 함께 얻는다. 오늘날 영어 공부는 실력 향상만의 문제를 넘어, 일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었다.

영어 공부 앱의 인기를 단순한 유행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 안에는 영어를 배우는 방식뿐 아니라, 공부를 이어 가는 방식의 변화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다. AI 튜터 앱은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공부를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이어 가는 습관으로 바꾸고 있다. 영어 공부는 더 이상 특별한 결심의 영역만이 아니다. 학습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계속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출처 : 하숙요, 정의태, 번패림, 관지걸 and 이선미. (2024). 언어 학습 앱의 게이미피케이션 디자인이 학습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23(1), 97-114.)

요즘 다들 국중박 간다

수습위원 양재현

"너 국립중앙박물관 가봤어?"

"어릴 때 가봤지, 근데 기억은 안 나."

라는 대화도 이제 옛말! 요즘은 다들 국중박(국립중앙박물관) 간다던데? 우리의 역사와 미가 담긴 전시들과 감각 있는 굿즈들까지! 국중박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아직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데... 세대를 초월하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 그럼에도 더 나은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국중박에 대해 알아보자!



▲금동반가사유상



▲어미개와 강아지

국중박, 얼마나 인기길래?

국중박의 연간 관람객 수는 2024년 **380만 명**에서 2025년 **650만 명**으로 70% 이상 **급증**하였다. 이는 루브르 박물관(900만 명), 바티칸 박물관(693만 명)에 이어 전 세계 박물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국중박이 **2025년 박물관 연간 관람객 수 세계 3위**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이다.[1)]

사람들은 왜 국중박을 찾을까?

국중박의 인기 요인으로는 트렌디한 박물관 굿즈인 **'뮷즈(MU:DS)'**의 대흥행과 **'사유의 방'**, **'실감 영상관'**,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등 훌륭한 전시가 손꼽힌다. 게다가 누구나 가볍게 찾을 수 있는 **무료 관람**이라는 개방성도 장점이다. 최근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한류문화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국중박의 인기는 더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전시 공간과 개방성이라는 박물관으로서의 매력과 굿즈 등 젊은 층의 취향 공략, 한류의 인기까지, 여러 요인이 어우러져 국중박이 대세가 되었다.



▲청자기린장식향로



▲백자 투각 파초무늬 필통

엄청난 성과 뒤, 비판의 목소리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국중박, 그럼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바로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얻은 성과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중박은 상설전시관, 어린이 박물관, 상당수의 특별 전시를 **무료**로 개방 중이고 일부 특별 전시에만 **5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바티칸 박물관이 **20유로(34000원)**, 루브르 박물관이 **32유로(55000원)**의 입장료를 받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국중박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은 경제적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1) The Art Newspaper-The world's 100 most visited art museums in 2025: new venues a big hit with visitors,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25년 연간 관람객 세계 3위 [문화교류홍보과]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낮다는 점 또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국중박의 2024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3.7%로 **루브르 박물관(77%) 대만 국립고궁박물관(50%)**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이다. 이렇게 내국인 관람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국중박이 세계적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정말 꼭 '문제'이기만 할까?

이러한 비판들은 분명 일리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귀담아들어야 할 조언들이다. 하지만, 이 사항들이 반드시 문제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입장료가 무료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국중박의 장점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향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접근성은 단순히 관람객 증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기념품과 식음료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져 수익을 창출한다. 2025년 기념품 뮷즈의 연간 누적 매출액 **400억 원**을 돌파한 점이 그 증거이다.

국중박의 높은 접근성과 개방성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큼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도 일조한다. 바로 '우리 문화 예술에 대한 배움과 감상'이다. 아무리 찬란한 문명의 아름다운 유물이 있더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국중박이 모두에게 개방됨으로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국중박의 존재 의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처럼 높은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 있다.

외국인 관람객의 비율이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분명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이나, 이것이 국중박이 이룬 성과를 과도하게 폄하할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내국인 관람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연간 관람객 수 세계 3위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이는 한국인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중박의 인기는 유행을 등에 업은 반짝 인기가 아니다. 2023년에 연간 관람객 수 **4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25년에는 **650만 명**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국중박의 성과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긴 시간 쌓여 꽃을 피운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는 한국 역사 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중박은 나아간다

국중박은 고객 정보 통합 관리(CRM) 체계를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RM이 구축되면 예약과 함께 관람객 동선, 혼잡도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관 시간을 9시 30분으로 현행보다 30분 앞당겨 관람객 밀집도를 분산시킨다. 8월에는 거울 못 카페, 물멍 계단 등 옥외 편의시설을 확충해 박물관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재정립한다. 아울러 2029년까지 어린이박물관을 현 규모의 약 2배로 확장해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문화 학습

거점을 조성한다.

국중박의 발전은 내실을 다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해외 주요 박물관과 교류도 확대된다. 우선 해외 주요 박물관의 한국실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외 특별전과 국제 교류를 확대하여 국중박이 국내외 모두에서 문화 외교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 5/20 프랑스 국립 기메아시아 예술 박물관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전시 '신라, 황금과 신성함'
- 7/17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제14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 회의의 연계 특별전으로 '동아시아의 서(書)전'
- 10/11 미국 클리블랜드 박물관에서 '중세 한국의 지옥 시왕과 사후 세계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국중박

국중박에는 한국의 유산이 모여든다. 하지만 단순히 모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천 년의 보배와 정신이 우리에게 닿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역사가 된다. 어느덧 수많은 사람이 찾는 국중박은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는 요람으로 도약하고 있다. 국중박은 더 이상 추억 속 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삶 속 생생히 숨 쉬며 함께 발전하는 역사이다. 그 누구든 가득 채워주는 곳, 누구나 채울 수 있는 곳. 당신이 국중박을 찾을 때, 우리의 역사는 다시 피어날 것이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갓생' 강박에 빠진 20대, 조금은 네버마인드!

편집위원 박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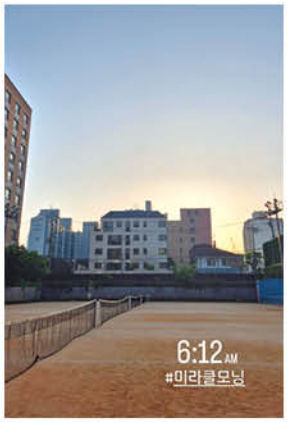
SNS에서 유행하는 '미라클 모닝', '오운완', '독서 인증' 등등……. 완벽한 하루, '갓생'이 좋은 인생의 지표가 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갓생'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른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속 현대인들에게 '갓생'이란 어떤 의미일까?

갓생이 무엇일까?

'갓생'이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生)'의 합성어로, 신처럼 완벽하고 이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인생을 갓생이라고 부를까?

갓생을 판단하는 공식적인 기준이나 지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자기관리와 꾸준함을 바탕으로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갓생이라고 부른다. 갓생을 사는 사람들인 '갓생러'들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SNS에 기록하며, 남들에게 모범이 되기도 한다.

SNS에 갓생을 게시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기록 문화는 '챌린지'라는 형태의 유행으로 이어졌다. 챌린지는 '도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이지만,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등에서 특정 행동이나 미션을 수행하고 이를 공유하는 문화'를 뜻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이는 스스로의 도전을 기록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함께 참여하고 서로의 동기를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미라클 모닝', 운동 후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는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독서 목표를 정해 책을 읽었음을 인증하는 '독서 인증' 등 여러 갓생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갓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다.



#미라클 모닝 챌린지



#오운완 챌린지


#독서 인증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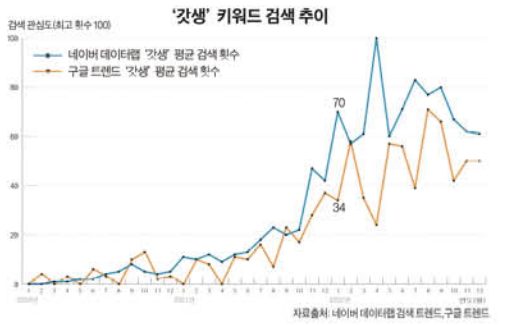
(출처: 박예은 기자)

내일부터 진짜 갓생 살아야지!

갓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시점은 바로 '코로나19 시기'이다.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에 따르면, 갓생의 검색량은 코로나가 등장한 2020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4월에 검색량이 최고치에 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생의 방학 기간에 갓생의 검색량이 유동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검색량이 증가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부 활동이나 대인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삶에 규칙을 부여하기 위해 갓생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규칙적인 일상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갓생은 삶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일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 루틴 속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꾸려나간다는 측면에서 갓생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대학생 7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갓생살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생 96.8%에게 그 이유를 묻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 "잘 지켰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등의 답변을 얻었다.



(출처: 고대신문)

하지만 이러한 갓생도 지나치면 독이 되기 마련이다. 갓생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지나치게 되면, 갓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갓생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나는 폭주기관차, 멈출 수 없어!



['폭주기관차'님의 캘린더 중 일부] (출처: 폭주기관차님)

'폭주기관차'님의 인터뷰

Q. 일상을 이렇게 빽빽한 일정으로 채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지 않나요? 하하. 워낙 할 일이 많기도 하고, 어차피 일정이 없어봤자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니까요. 그렇게 게으르게 살 바에는 일정을 잡아서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키고, 조금이라도 더 생산적으로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 제 삶이 더 가치 있어지고, 제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Q. 매일 바쁘게 사는 것이 힘들진 않으신가요?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은 금방일걸요? 요즘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어도 그냥 참고 사는 거죠.

Q. 그럼 휴식은 언제 취하시나요?

휴식이요? 흠... 글쎄요. 전 게을러서,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나태하게 늘어져 있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 한심하고 자괴감이 들어요. 잠깐이라도 휴식의 달콤함을 맛보면 스스로가 끝없이 게을러질 것 같은데, 그런 스스로를 절제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쉬지 않고 달리는 중입니다. 한 번 멈추면 영원히 다시 출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쉽사리 멈출 수가 없네요. 하하.

Q. 스스로 '갓생'을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저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해야 할 일도 많이 미루고, 마감 기한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이라서 더 분발해야 해요. 당장 제 주위만 둘러봐도 아주 열심히 사는 진정한 갓생러들로 가득한걸요. 전 그들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위 본문은 서울교대 학우 '폭주기관차'님의 인터뷰 중 일부이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갓생러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위의 갓생러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삶은 갓생과 거리가 멀다는 것. 하지만, '폭주기관차'님의 빽빽한 캘린더, 그리고 그 살인적인 일정을 모두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며 주위 사람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그를 갓생러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갓생일까? 그는 성취한 것보다 성취하지 못한 것에 더 초점을 두어, 성취감보단 죄책감을 더 느끼고 있다. 이러한 완벽주의에서 비롯된 자기불만족과 더불어, 갓생의 기준을 만족감·성취감 등 내부 요인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 등 외부 요인에 두고 있는 것 또한 갓생 강박의 형성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SNS 등을 통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것.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쉼마저 나태로 바라보는 끝없는 경쟁 사회의 분위기에 휩쓸려 '갓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갓생 강박'을 가지게 된 것 아닐까?

폭주기관차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

갓생 강박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넘어,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번아웃이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해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후군이다. 이는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울·불안에 빠질 수도 있다. 분명 갓생은 우리가 더 열심히 살게 해주는 원동력인 줄 알았는데, 왜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까?

서울교육대학교 인권·학생성장지원센터의 정지연 전임상담사는 '갓생 열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매일 계획을 세우고 운동하고 공부하며 삶을 관리하는 모습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다만 상담사로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왜 갓생을 사는가'를 함께 짚어보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샤(Marcia)는 인간의 정체성이 '탐색(exploration)'과 '전념(commitment)'이라는 두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 탐색이고, 그 끝에 의미 있는 선택에 몰입하는 것이 전념입니다. 그런데 탐색 없이 전념부터 하는 상태가 있는데, 마샤는 이를 '정체성 폐쇄(Foreclosure)'라고 불렀습니다.
갓생에 빠진 20대의 모습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실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에 대한 탐색이 빠진 채 진짜 원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좋다고 여겨지는 길을 열심히 쫓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탐색 없이 전념만 하는 갓생은 바쁘게 사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달콤한 유혹과도 같습니다. 갓생은 하루를 바쁘게 채운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탐색하는 과정 없이 그저 사회적 기준을 따라 전념만 하다 보니 보여지는 것, 형식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이것이 강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갓생 강박'에 대해 정지연 전임상담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갓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갓생이 '나의 목표를 향한 과정'인지, '불안을 피하기 위한 도구'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교대생 중에는 과외를 여러 개 하며 하루를 빼곡히 채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자기관리를 잘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경제적 이유나 교육 경험을 쌓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상담에서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불안하다', '쉬면 뒤처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외는 미래를 위한 준비라기보다 불안을 잠시 덮기 위한 활동에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불안을 덮기 위해 일단 무언가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라면, 그 노력은 성장의 힘이 아니라 불안을 잠시 가리는 방식이 됩니다. 휴식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들여다볼 때입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폭주기관차'님의 '멈추지 못하는 폭주'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일을 하지 않고 휴식하는 자신을 나태하고 게으른 존재로 보고,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여기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폭주기관차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갓생 강박은 왜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 정지연 전임상담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강박의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가'와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대학생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계획과 루틴으로 안정감을 얻으려 하기 쉽지만,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에 앞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길 권합니다. 첫째, 이 행동은 내가 원하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가? 둘째, 이것을 하는 이유는 성장하고 싶어서인가, 안 하면 불안해서인가? 셋째, 성과가 없는 날에도 나는 나를 가치 있게 볼 수 있는가?
좋은 삶은 매일 완벽하게 생산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게 선택하고 조정해 나가는 삶입니다. 갓생의 핵심은 '무언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폭주기관차'님은 인터뷰 중, 쉼 없이 바쁘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이 가치 있어지고, 본인이 가치있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했다. '폭주기관차'님이 갓생 강박을 가지게 된 원인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가'와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이런 것들에 쉬이 흔들리지 않는다. 일을 하든, 휴식을 취하든, 나는 '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건강한 갓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의미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탐색해야 한다. 폭주기관차처럼 방향 설정 없이 무조건 직진만 하다가는 연료가 바닥나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탐색과 전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갓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갓생을 살든, 갱생을 살든, 아무것도 하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불안함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사향인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유를 되찾길 바란다.



스마트폰 AI 파헤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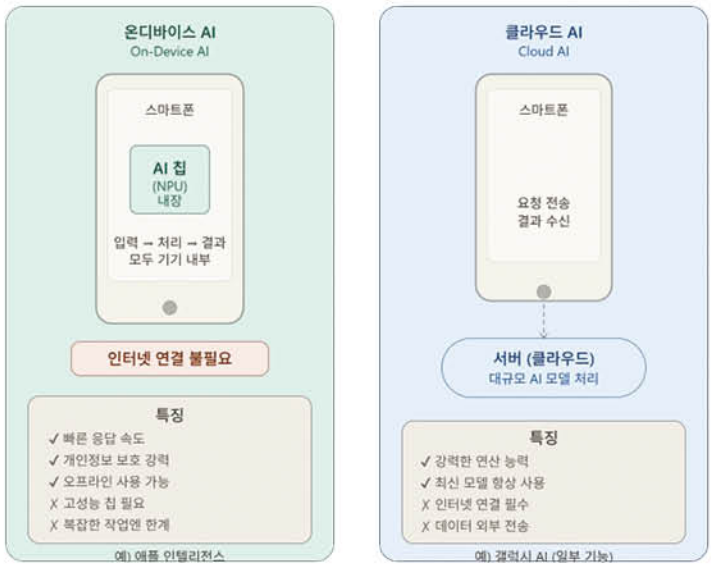
편집위원 양시형

시형 기자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바다로 여행을 갔다.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는 순간, 화면으로 낯선 사람이 보인다. 더운 여름,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다. 삭제 버튼을 누르자 AI는 망설임 없이 낯선 사람을 지웠고, 배경을 자연스럽게 복원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전문 편집 기술이 필요했던 일이 이제는 손끝에서 순식간에 일어난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스마트폰 속 AI 기술을 파헤쳐 보자!



*표지 사진 생성형 ai 활용했습니다.(출처: 생성형 AI)

기술 뒤편... 스마트폰 AI는 어떻게 작동하나?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 무엇이 다를까?

스마트폰으로 번역을 하거나 사진을 보정할 때, 우리는 이미 AI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AI가 작동되는 방식에 따라 나뉜다는 사실! AI가 스마트폰 기기 속에서 작동하면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멀리 있는 서버와 연결되어 작동된다면 클라우드 AI(Cloud-based AI)로 구분할 수 있다.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란?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는 말 그대로 기기 안에서 AI가 바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속 AI 칩이나 NPU[1](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 처리 장치)가 입력을 처리하고 결과를 바로 내놓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어도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온디바이스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반응 속도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온디바이스 음성인식을 실행하면, 음성을 외부의 클라우드로 전송할 필요 없이 즉시 디코딩하여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외부의 클라우드와 연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불안정한 환경(비행기 모드, 지하)에서도 안정적으로 AI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

1) NPU(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 처리 장치) : 인공지능(AI)의 핵심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람의 뇌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전용 프로세서

스마트폰 장치에서 AI를 실시간으로 구동하려면 모델을 경량화해하 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지능 구현은 어렵다. 또한 고성능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전용 프로세서(NPU)가 탑재되어야 하므로 기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클라우드 AI(Cloud-based AI)란?

클라우드 AI(Cloud-based AI)는 사용자의 기기가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AI다. 스마트폰은 요청과 결과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실제 AI 연산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수행된다.

이 방식은 복잡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 작업에 적합하다.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챗GPT와 같은 최신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고,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강하다. 클라우드의 AI가 각 서비스의 데이터를 연계 접근하기에 복잡한 작업도 순조롭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외부 클라우드와 송신, 수신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다는 점은 데이터 유출로 인한 보안의 우려점을 야기할 수 있다.

갤럭시 vs 아이폰

스마트폰의 발전은 한동안 카메라 화질과 화면 크기, 배터리 성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경쟁의 무게중심은 빠르게 AI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기기가 아니라, 사용자의 말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필요한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작은 비서'로 진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선두에는 삼성과 애플이 있다. 두 회사는 같은 AI를 다루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삼성은 눈에 띄는 기능을 빠르게 상용화하며 기술 발전의 속도를 보여주고, 애플은 시스템 전체에 AI를 녹여 넣으며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삼성이 앞세운 실용적 진화

삼성의 AI 전략은 사용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갤럭시 AI는 실시간 통화 번역, 글쓰기 보조, 생성형 편집, 서클 투 서치처럼 일상에서 바로 쓰이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기능들은 AI가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손안에 들어온 현실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만든다.

특히 삼성은 AI를 단순한 보조 기능이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바꾸는 핵심 요소로 키워 왔다. 사진 속 불필요한 대상을 지우거나 문장을 요약하고, 외국어를 즉시 번역하는 기능은 기술의 발전이 '더 빠른 처리'에서 '더 똑똑한 도움'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즉 삼성의 AI는 기능의 폭을 넓히며 실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애플이 택한 발전

애플의 AI는 삼성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 내부의 완성도를 중시한다. Apple Intelligence는 온디바이스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우며,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 애플 생태계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사용자는 AI를 따로 '쓰고 있다'고 느끼기보다, 기기가 더 똑똑해졌다고 체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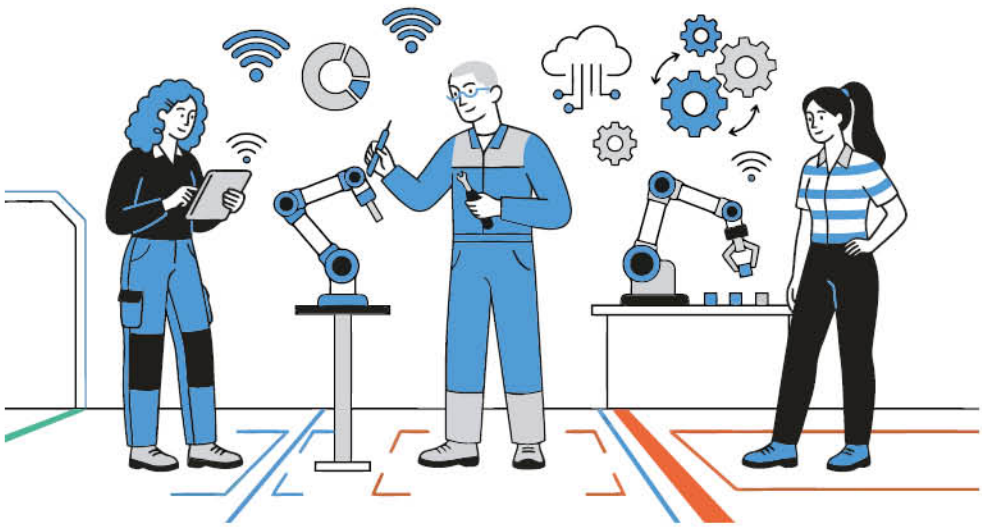
이런 방식은 애플다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을 빠르게 많이 넣기보다, 하나의 경험이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외부 AI 모델과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되며, 애플 역시 본격적인 AI 경쟁에서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차이는 기술의 우열이라기보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철학의 차이에 가깝다. 삼성은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함께 활용하며 빠르게 기능을 확장해 왔고, 애플은 보안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시스템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같은 AI라도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다가갈 것인지는 서로 다르다.

이 차이는 스마트폰 AI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앞으로의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기능을 넣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자연스럽게 기술을 생활 속에 녹여내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기술의 속도를, 애플은 기술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신 기기가 아니다.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하고, 일정을 관리하며, 때로는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는 AI의 집합체로 진화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이 서로 다른 전략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 스마트폰 AI 기술은 우리의 일상 속에 조용하지만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결국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내 손 안의 AI를 나답게 활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마트폰 AI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스마트함이 아닐까.



2026년은 스포츠의 해!

편집위원 김인영

2026년은 유난히 스포츠 팬들에게 바쁜 해이다. 올겨울을 뜨겁게 달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부터, 야구 국가대표팀이 17년 만에 8강 신화를 쓴 WBC, 여름의 가장 큰 축제인 FIFA 월드컵, 올해로 20회를 맞은 아시안 게임까지.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해, 2026년을 따라가 보자.



*표지 사진 생성형 ai 활용했습니다.(출처: 생성형 AI)

올해는 왜 '스포츠의 해'가 되었을까?

2026년이 '스포츠의 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가 큰 국제 스포츠 대회들**이 한 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부터 FIFA 월드컵까지,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대형 대회들이 같은 해에 열린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 대회들이 일정한 주기를 따라 반복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2026년에는 여기에 매년 열리는 배구의 VNL과,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에 재개된 야구의 WBC까지 더해지며 스포츠 일정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특히 FIFA 월드컵은 기존 32개국 체제에서 48개국 체제로 확대되고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라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된다. 이처럼 대회의 규모와 성격이 확장되면서, 2026년은 단순히 기존 대회가 반복되는 해를 넘어 새로운 변화를 함께 보여주는 해이다..

또한, 2026년은 **종목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두드러진다. 겨울 스포츠부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종합 스포츠 대회까지 다양한 종목의 국제 대회를 한 해의 계절 흐름에 따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스포츠를 이어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러한 점에서 2026년은 단순히 대회가 많은 해를 넘어, 한 해를 따라가며 스포츠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의 해'라 할 수 있다.

2026년, 다양한 국제 대회들을 알아보자!

① 새로운 스포츠 시즌의 시작

구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2026 WBC
명칭	Milano-Cortina Winter Olympic 2026	World Baseball Classic 2026
종목	동계 스포츠	야구
기간	2026.02.06.~02.22.	2026.03.05.~03.17.
개최지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일본, 푸에르토리코, 미국





먼저,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2026년 스포츠 열기의 출발점이 된 대회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이번 동계올림픽은 16개 종목, 15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겨울 스포츠 특유의 속도감과 메달 경쟁을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올려놨다. 우리에게는 쇼트트랙·피겨·스피드스케이팅처럼 익숙한 종목의 존재감이 여전히 큰 관전 포인트였다.

2026 WBC는 야구 팬들에게 올 상반기 가장 뜨거운 국제 대회 중 하나였다. 당시 조별리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8강에 진출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3%에서 5%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이때 한국은 호주전에서 7대 2로 쾌승을 거두며 극적으로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정규 시즌과는 다른 국가대항전 특유의 분위기가 WBC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때만큼은 국내 10개 구단 팬들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② 가장 뜨거운 계절의 승부

구분	2026 VNL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명칭	Volleyball Nations League 2026	FIFA World Cup 2026
종목	배구	축구
기간	2026.06.03.~08.02.(W:06.03.~07.26./M:06.10.~08.02.)	2026.06.11.~07.19.
개최지	중국, 마카오 외 7개국 도시	캐나다, 멕시코, 미국





배구는 2025년 하반기 MBC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이 큰 화제성을 얻으면서 대중적 관심이 한층 높아진 종목이다. 아쉽게도 대한민국 여자, 남자 배구 대표팀 모두 본선 무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2026 VNL은 배구를 가장 꾸준히, 그리고 밀도 있게 볼 수 있는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경기 템포가 빠르고, 한 포인트마다 분위기가 크게 바뀌는 종목 특성상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월드컵은 '축구'라는 대중성 있는 종목으로 늘 인기가 높으며, 말 그대로 전 세계가 함께 보는 최대 스포츠 이벤트다. 특히 이번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은 48개국 체제와 북중미 공동 개최라는 점까지 더해져 규모와 화제성이 더욱 크다. 대한민국은 체코를 2대1로 꺾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각각 0대1로 패배하며 본선 진출에 실패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③ 가을에도 멈추지 않는 열기

구분	2026 FIBA 여자농구 월드컵	2026 아시안 게임
명칭	FIBA Women's Basketball World Cup 2026	Asian Games Aichi-Nagoya 2026
종목	농구	42개 종목
기간	2026.09.04.~09.13.	2026.09.19.~10.04.
개최지	독일	일본

2026 FIBA 여자농구 월드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여자농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대다. 축구나 야구에 비해 국내 대중성은 낮을 수 있지만, 경기 전환이 빠르고 개인 기량과 팀 조직력이 동시에 드러난다는 점에서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매력에 빠지기 쉬운 종목이다.

아시안 게임은 특정 종목 하나가 아니라, 아시아 스포츠 전체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종합 대회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인기 종목은 물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승마·펜싱·양궁 등의 종목까지 함께 볼 수 있다.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리는 이번 2026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각국의 경쟁과 교류가 동시에 드러나는 무대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스포츠, 어렵지 않아요

스포츠를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모든 규칙을 완벽히 알 필요는 없다. 종목마다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만 알아도 훨씬 쉽게 몰입할 수 있다. 축구는 적은 득점으로 승부가 갈리는 만큼 한 골이 만들어 내는 큰 흐름의 변화가, 야구는 경기 흐름이 쌓이다가 한순간 뒤집히는 짜릿함이 매력이다. 배구에서는 한 포인트마다 분위기가 급변하는 속도감을, 농구에서는 빠른 전환과 역동성을 즐길 수 있다. 동계 스포츠 역시 시간과 거리, 기술 점수 등 종목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 색다른 재미를 만든다.

스포츠를 처음 볼 때는 응원할 대상을 먼저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응원할 나라나 선수, 관심 가는 종목 하나만 있어도 경기는 훨씬 흥미롭게 다가온다. 또한, 스포츠는 경기 결과만이 아니라 그 안의 서사를 함께 따라갈 때 더 흥미로워진다. 그 해 특유의 이변, 특정 팀과의 복수전, 세대교체, 베테랑 선수의 부상 복귀, 신인 선수의 첫 출전 등 점수를 넘어 사람과 이야기를 같이 볼 때 스포츠는 더 깊고 오래 남는 즐거움이 된다.

2026년은 스포츠 일정이 빼곡한 해이자, 한 해를 따라가며 세계의 열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해다. 이미 좋아하던 종목은 더 깊게 즐기고, 낯설었던 종목은 새롭게 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꼭 많은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다. 가벼운 관심이 경기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고, 선수와 팀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며, 올 한 해를 더 풍성하게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남은 대회 일정에 맞추어 여행을 계획하거나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 보는 것 역시 2026년만의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FO

4

2026 통권 61호

INFO



책책책 책을 들읍시다

일상 속 위기탈출 사향원

정해진 엔딩이지만 줄 서는 이유

교대생을 위한 진로 설계

숙취야 가라! 다음날을 지켜주는 교대생들의 해장 메이트를 소개합니다

가장 익숙한 목소리의 배신

사향지기

책! 책! 책!
책을 들읍시다!

편집위원 김민소

문자를 읽지 못하는 것이 '문맹'이라면,
책 읽지 않는 사회는 '책맹사회'!!
'책맹사회'는 '문맹사회'보다 위험합니다.

- MBC,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中

이제 '문맹'은 능력의 결핍이 아니라 접근의 문제,
눈으로 좇던 책 속 문자를 귀로 듣는 시대가 왔다.



00:00 40:00

눈으로만 읽는다는 편견

독서 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개념에서 출발한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본래 건축 분야에서 장애물을 뜻하는 '배리어(Barrier)'를 '프리(Free)', 즉 없애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물리적 문턱을 허무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 분야에서는 책 속 문턱을 없애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초기 배리어프리 도서는 주로 점자 도서, 오디오북, 큰글자 도서의 형태로 발전했다.



점자 도서는 여섯 개 점의 조합을 종이에 찍어 손끝으로 읽는 책으로, 선천적 시각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문자 매체다. 다만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경우 점자 습득이 어려워, 실제 사용 비율은 등록 시각 장애인의 9.6%에 불과하다(국립국어원, 2021).



오디오북은 성우의 낭독이나 'TTS(텍스트 음성 변환)'를 통해 귀로 읽는 책으로, 낮은 점자 사용률을 배경으로 시각 장애인의 약 80%가 이용한다. 텍스트를 음성으로 즉시 변환할 수 있어 신간 접근성 측면에서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대체 매체다.



큰글자 도서는 저시력자나 노안 독자를 위해 글자 크기를 대폭 키운 책으로, 별도의 기기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 문턱이 낮다.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일반 서점에서도 점차 자리를 넓혀 가고 있다.

이 세 가지 형태는 모두 이미 출판된 종이책을 사후에 변환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독서 소외 계층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 준 의미 있는 시도임과 동시에, 이 방식 자체가 훗날 극복해야 할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책과 독자 사이의 거리

배리어프리 도서들은 실제로 독자에게 얼마나 가닿고 있을까.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따르면 전체 발행 도서 중 변환된 것은 5%에 미치지 못한다. 신간이 점자나 음성 자료로 제작되기까지는 평균 4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비장애인 독자들이 베스트셀러를 두고 활발히 토론하는 동안 독서 소외 계층은 그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연구자들은 이를 '도서 기근(Book Famine)'이라 부른다.

도서 기근의 원인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출판사들의 저작권 우려로 텍스트 원본 파일 제공이 막히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인프라도 부족하다. 지난 2015년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장애인의 독서권을 국제법에 명문화한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였는데,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을 귀로 들을 수 있을까

완성된 책을 점자나 오디오로 가공하면 정보 손실은 피하기 어렵다. 그래프·도표·지도처럼 시각에 기대는 정보는 텍스트로 대체해도 구조적 직관이 흐려진다. 시의 행 배치나 그림책의 여백처럼 레이아웃 자체가 의미를 담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 한계를 직면한 출판계는 배리어프리 도서의 형태를 새로운 방향으로 넓혀 가기 시작했다.



묵점자 통합 도서는 일반 글자와 점자를 한 지면에 함께 인쇄한 책으로, 시각 장애인과 정안인이 같은 판본을 나란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촉각 도서는 원단·구슬·단추 등으로 그림을 입체화해 손끝으로 이야기를 느낄 수 있게 한 책으로, 시각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같은 페이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읽는 통합 교육의 도구로 주목받는다.



접근성 전자책은 디지털 영역에서 대체 텍스트(Alt-text)를 내장해 화면 낭독기와 연동하는 책으로, 시각 장애인도 그림의 내용과 분위기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도들도 여전히 '완성된 책에 접근성을 덧입히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가 바로 '본 어세서블(Born Accessible)'이다.

태어날 때부터 장벽 없이, 본 어세서블

본 어세서블(Born Accessible)을 직역하면 '태어날 때부터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미이다. 기획 단계부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접근성을 나중에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책의 기본값으로 내장하는 철학으로, 출판 공정의 어느 단계에 개입하는가에 따라 그 시도를 살펴볼 수 있다.

기획 단계에서의 접근성 내장이 가장 근본적인 시도다. 책을 구상하는 시점부터 다양한 독자를 전제로 콘텐츠를 설계하는 것으로, 출판사 무제(MUZE)의 '듣는 소설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기존의 오디오북은 시중에 출간된 도서에 2차 작업을 거쳐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무제의 프로젝트는 오디오북 출간을 목적으로 도서를 집필한 이후에 전자책과 종이책을 출간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각 장애인을 '수혜자'가 아닌 '첫 번째 독자'로 설정한 것이다. 출판의 출발점이 달라지면 책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낭독과 듣기를 전제로 배치된 문장과 문단은 독자에게 더 선명하게 들어온다.

제작 단계에서는 편집·디자인 과정에 접근성 요소를 처음부터 내장한다. 전자책에 대체 텍스트(Alt-text)를 의무 삽입하거나, 두 언어 체계를 한 지면에 함께 설계하거나, 촉각 이미지를 그림과 동시에 기획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 독자를 위한 별도 버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같은 판본 안에서 여러 독자를 수용하는 설계다. 이 단계에서 접근성을 내장하려면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다양한 독자를 상상해야 하며, 제작 환경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통 단계에서도 본 어세서블의 철학이 구현될 수 있다. 무제 출판사가 세계 책의 날 완성된 오디오북을 전국 40개 장애인 도서관에 먼저 기증한 것과 같이, 유통 경로를 처음부터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도 본 어세서블의 한 축이다. 신간이 서점 매대에 오르는 날, 같은 책이 장애인 도서관에도, 디지털 플랫폼에도 동시에 닿을 수 있다면 '도서 기근'의 구조적 원인 하나가 사라진다.

세 단계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기획부터 유통까지 일관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본 어세서블이 실현된다.

🎧 책에서 교실로

배리어프리에서 본 어세서블로 이어지는 흐름은 교육학의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와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 UDL은 1990년대 미국 응용특수공학센터 CAST에서 개발된 이론으로, 현재는 장애 학생뿐 아니라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설계 이론으로 확장되어 주목받고 있다.

UDL의 핵심은 세 가지 원리다. 동일한 내용을 글·그림·영상·소리 등 여러 방식으로 제공하는 **표상**, 배운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표현**, 각자의 흥미와 동기를 존중하는 **참여**다. 본 어세서블이 하나의 책을 처음부터 여러 감각 경로로 설계하는 것이라면, UDL은 하나의 수업을 처음부터 다양한 학습 경로로 설계하는 것이다. 경사로가 휠체어 사용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듯 접근성 높은 책과 수업 역시 결국 더 많은 학습자를 위한 것이다.

교실 안에서도 이러한 철학을 살펴볼 수 있다. 2025년부터 특수교육 국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었고, 개발 가이드라인에도 UDL과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었다. 낱말을 음성·그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에 제공하고, 학습 난이도 역시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 명 한 명의 학습 경로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가 교과서 설계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 교실 안의 장벽을 흔들며

독서 접근성의 역사는 결국 **누군가를 위한 배려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값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특정 학생을 위해 수업 뒤에 따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열린 수업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UDL이 가리키는 방향이며 교실에서의 본 어세서블이다.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책책책, 책을 들읍시다. 책책책, 책을 느낍시다!

일상 속 위기탈출 사향원!

편집위원 손지후
수습위원 김나원

"잠깐 나갔다 와야지."

향초에 불을 켜 둔 채 잠시 산책을 다녀온 사이, 집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 있었다. 작은 향초 하나에서 시작된 불씨가 커튼으로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습관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무심코 넘긴 작은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평범한 하루를 위협하는 생활 속 위험 요소들은 무엇인지,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위기탈출 사향원!

일상이 위기가 되는 순간

#1. 따뜻함을 켰는데, 화재도 함께 켜졌다

추운 겨울밤, A씨는 두 겹으로 접은 전기장판을 침대 위에 깔고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장판 한쪽에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접힌 부분에 열이 집중되면서 과열이 발생한 것! 따뜻한 잠자리를 원했던 A씨, 자칫 집 전체를 잃을 뻔했다!

전기장판은 접힌 상태로 사용하면 열이 과도하게 쌓여 화재 위험이 커진다. 특히 장시간 사용한다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전기장판은 반드시 펼친 상태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는 습관이 필요하다. 위기탈출 사항원!

#2. 깨끗함을 더하려다, 독성까지 더해졌다



큰마음 먹고 화장실 청소를 하던 B씨,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며 세제에 락스까지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때!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와 함께 기침이 시작되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 숨쉬기조차 힘들어진 B씨, 자칫 큰 호흡기 손상으로 이어질 뻔했다!

락스와 세제를 임의로 혼합하면 인체에 위험한 염소가스가 발생하여 매우 위험하다. 특히 밀폐된 화장실에서는 가스가 빠르게 퍼져 중독 위험이 더욱 커진다. 청소용 제품은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제품을 함부로 섞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기탈출 사항원!

#3. 물기는 남아 있고, 전기는 이미 연결됐다



샤워를 마친 C씨는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콘센트 주변에 튄 물방울이 전기와 만나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순간 손끝이 찌릿하며 놀란 C씨, 자칫 큰 감전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물기와 전기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다. 특히 욕실처럼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는 작은 물방울 하나만으로도 감전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전자기기는 반드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욕실 내부에서의 사용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기탈출 사항원!

#4. 따뜻한 이불 속, 위험도 함께 충전됐다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D씨, 보조배터리를 연결한 채 그대로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 하지만 잠시 후! 보조배터리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발열이 심해진 것! 무심코 사용한 보조배터리, 자칫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보조배터리는 충전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이불이나 베개처럼 열이 갇히는 환경에서는 과열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충전 중에는 기기를 덮어두지 않고, 이상 발열이 느껴진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위기탈출 사항원!

#5. 음악에 집중한 순간, 위험 신호는 들리지 않았다

이어폰을 낀 채 길을 걷던 E씨는 좋아하는 음악에 집중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빠르게 달려오던 자전거와 부딪힐 뻔했다. 주변 소리를 인지하지 못한 E씨는 자칫 큰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

이어폰을 착용하면 주변의 위험 신호를 듣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진다. 특히 길을 건널 때에는 주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보행 중에는 이어폰 사용을 줄이고, 음악 소리를 너무 크게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기탈출 사항원!

#6. 치아를 지키려던 양치, 오히려 치아를 상하게 했다



회식 후 집에 돌아온 F씨는 곧바로 양치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갑자기! 치아 표면에 자극이 가며 시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치아 건강을 지키려던 행동이 오히려 치아를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될 뻔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입안이 산성 상태가 되어 치아 표면이 약해져 있다. 이때 바로 양치하면 치아 마모가 심해질 수 있다. 음주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군 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 양치하는 것이 좋다. 위기탈출 사항원!

구조를 방해하는 지체의 순간

#1. 상태 진단 지체



갑자기 쓰러졌던 A씨, 지나가던 행인에게 바로 발견되어 119가 신고를 받고 도착했다. *그런데 이때...!* 망설이는 구급대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 범인은 바로 A씨의 두꺼운 화장과 컬러렌즈, 그리고 젤네일. 모두 급박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상태 진단에 방해가 된다. A씨의 휴대폰으로 건강 정보를 파악하려 했던 시도도 잠금 기능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그렇게 낭비되는 시간...

삐이익~ 골든 타임이 지연돼 결국 병원 이송 중 *사망...!!*

외형으로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두꺼운 화장은 피부색의 변화를 가리고 컬러렌즈는 동공 반사 확인을 지연시킨다. 또한 젤네일은 빛 투과를 이용해 측정하는 산소포화도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빛 투과가 젤네일에 막혀 낮은 수치가 나온다면 불필요한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봉숭아물을 들인 손톱도 같은 이유로 방해가 된다.

#2. CPR 지체



갑자기 숨이 멎은 B씨, 마침 지나가던 간호사 바로 그를 발견했다. 어서 CPR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때...!* 곤란해 하는 간호사.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범인은 바로 B씨 옷에 달린 수많은 끈과 단추, 지퍼. 그리고 B씨의 교정 유지 장치. 그렇게 낭비되는 시간...

삐이익- 골든 타임이 지연돼 결국 119가 도착하기 전 *사망...!!*

CPR과 AED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덮고 있는 옷을 치워야 하므로 복잡한 의류는 급박한 구조의 손길에 큰 걸림돌이 된다. 또한 교정 유지 장치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심정지 상태인 환자의 혀가 말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충격을 받아 교정 유지 장치가 변형되었다면 기도 확보를 방해할 수 있다. 심지어 만약 조각난 교정 유지 장치가 목구멍으로 빠지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기도가 폐쇄되어 질식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3. 정밀 검사 지체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며 병원에 도착한 C씨, 급히 CT를 찍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왜 당장 진행되어야 할 검사가 지연되고 있을까..? 그 범인은 바로 C씨의 귀걸이와 목걸이, 헤어핀.

삐이익- 골든 타임이 지연돼 결국 병원에서 *사망...!!*

금속으로 된 액세서리와 손톱 파츠, 교정 유지 장치는 모두 CT와 MRI 촬영 시 결과 왜곡 방지를 위해 미리 제거해야 한다. 금속이 포함된 속눈썹 연장 글루와 자석 속눈썹, 컬러렌즈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이들의 금속이 MRI 촬영 시 발열 반응을 일으킨다면 안구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

위기탈출 생활 TIP!

- 일상 안전 습관: 이어폰 착용 상태로 보행 자제하기! 기본 응급 처치 방법 숙지!
- 응급 상황 대비 습관: 스마트폰이 잠긴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정보 및 긴급 연락처를 설정! '112신고' 앱 사용 시 응급 상황에 화면 터치만으로 등록된 정보와 GPS 위치가 112 상황실로 전송!
- 격한 활동 대비: 복잡한 의류보다는 기능성 의류 착용! 컬러렌즈 및 두꺼운 화장 피하기!
- 액세서리 선택 습관: 네일 파츠 혹은 속눈썹 등 액세서리는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으로 선택하자!

작은 불씨가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것처럼 일상 속 작은 방심은 순식간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하지만 위험 요소들을 기억하고 대처법을 명심한다면 우리의 평온한 하루를 지킬 수 있다. 안전은 지금 내 주변을 둘러보고 나의 습관을 돌아보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위기탈출 사향원!



정해진 엔딩이지만 줄 서는 이유



편집위원 이서영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 왕과 사는 남자 中 -

2026년 상반기, '전하'를 가슴속 머금게 했던 열일곱의 어린 임금 '단종'의 이야기.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 '왕과 사는 남자'는 2026년 4월 기준 개봉 두 달 만에 1,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는 2014년 명량, 2019년 극한직업 이후 역대 세 번째 기록이다. 역대 영화 흥행 순위 중 사극 두 편이 자리 잡은 것이다. 결말을 아는, 이미 아는 이야기인 **사극**은 도대체 어떤 매력으로 많은 대중을 사로잡았을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역대 영화 흥행 1위와 3위를 차지한 '명량'과 '왕과 사는 남자'는 모두 사극이다. 사극이란, 역사적 인물과 사건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을 일컫는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영화나 연극 등 역시 '사극'의 일환이다.

'명량'과 '왕과 사는 남자'는 각각 '이순신'과 '단종'이라는 특성이 강한 두 인물의 서사를 다룬다. 영화 속 이순신 장군의 의지가 관객을 명량해전 속 한 장면으로 이끌었다면, 단종의 인간적인 감정은 관객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다. 우리는 이미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음을, 그리고 단종의 안타까운 비극적 운명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결말을 알면서도 손에 땀을 쥐고 스크린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사극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닌 '그는 그 순간 무엇을 느꼈는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사극은 역사적 인물을 통해 시대를 넘어 **감정**과 마주하게 한다.

"전하, 강가에 다 와 갑니다."

이미 결말을 아는 이야기임에도 사극이 대중을 끌어당기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사극만이 가지는 매력을 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자.

"사극 N회차 관람객 서영 기자가 알려주는 사극만의 매력"

아는 이야기의 힘

사극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역설적으로 '이미 알려진 결말'이다. 역사는 그 자체로 탄탄한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작가는 그 토대 위에 상상력이라는 살을 붙여 새로운 이야기로 빚어낸다. 《왕과 사는 남자》 역시 실록 속 몇 줄에 불과한 이홍위의 기록을 바탕으로, 권력과 인간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인물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 재탄생했다. 결말을 알고도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은, 사극이 단순히 역사 재현이 아닌 그 순간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관객은 아는 결말을 바탕으로 인물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그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는 이야기의 힘'이다.



정서적 몰입과 시대적 공감

사극은 옛이야기지만 감정을 매개체로 관객을 현재로 끌어당긴다. 수백 년 전의 인물이 느꼈을 외로움, 인간애, 부당함에 대한 분노 등은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왕과 사는 남자》에서 권력의 그늘 아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이홍위의 갈망과 그 과정에서 오는 인간적인 감정들 역시, 공감과 몰입으로 이끌었다.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의 감정과 맞닿는 순간, 사극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하나의 정서적 몰입이 된다.

이미 아는 결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인물의 삶은 언제나 새롭게 다가온다. 그것이 바로 사극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유다.

"측우기를 만든 자는 노비였다. 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배움에는 위아래가 없고 신분의 귀천이 없다는 말이다."

매년 사극 관련 콘텐츠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사극은 왜 시대를 거듭해도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무는 것일까? 사극은 단순히 옛이야기를 재현하는 장르가 아니다. 과거의 기록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역사를 느끼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다. 이번에는 예비 교사로서 사극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 학생들은 인물의 삶과 고뇌에 공감하며 당시의 시대상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단순 암기를 넘어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어느새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 역사를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닌 인물의 과거 삶의 한 장면으로 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극은 역사를 '기록'이 아닌 '기억'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외우는 역사'와 '느껴지는 역사'는 마음에 와닿는 깊이가 다르다. 글과 연표로는 결코 전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 예비 교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전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극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교실 안에서도 역사가 아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고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사향지기에게 들려주세요!

서울교대 학우 및 교직원 여러분!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나 사안을
사향지기에서 대신 취재해드립니다.
창의적인 기사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사소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작은 울림을 줄 소중한 이야기들을
사향지기가 기다립니다.

교내(캠퍼스), 교육,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그곳으로 사향지기가 취재하러 갑니다!

보내실 곳 dangmu041001@naver.com
문의 편집국장 홍혜정

교대생을 위한 진로 설계

편집위원 양시형

"탈출하는 교대생... 임용시험 응시자 4년 새 2만명 감소"

교육대학교에는 처음부터 교사를 꿈꾸는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임용고시를 앞두고 다른 길을 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교사 이외에 교육 콘텐츠 기획, 에듀테크, 아동 복지, 출판 편집 등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다. 교사가 되지 않겠다는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더 솔직해지는 용기다. 그런 학우들을 위해 임용고시 외에 어떤 진로가 있는지 알아보자!

최근 교대생들 사이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임용 경쟁률은 오르고,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사 채용 인원이 줄고 있는 지금, 다른 진로를 택하는 학우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그렇다면 교대에서 교사를 꿈꾸지 않는 학생들은 어떤 진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전반적인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

교육대학교의 수업은 단순히 '교사'를 위한 수업만은 아니다. 교육 행정직은 교대 출신에게 유리한 시험이 될 수 있다. 교육행정직 9급 시험 기준 필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교육학개론은 교대 커리큘럼에서 이미 다루는 영역이다.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 교대에서 배운 내용이 시험 범위와 직접 겹친다. 처음부터 백지에서 시작하는 타 전공자와 달리, 교대생은 핵심 과목 하나를 이미 손에 쥐고 출발하는 셈이다.

교육 행정직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교육 행정직이 되면 교육청, 지원청, 부속기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주로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학교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학교를 이동하며 학교 회계 업무를 수행하기에, 인사이동에 따른 부담감이 적다. 다른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다르게 대민업무와 비상근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지만, 교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만큼, 교육대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는 에듀테크 기업인

'에듀테크'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많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이스크림 홈런'의 아이스크림 에듀, '매쓰플랫'의 프리윌린 등 여러 에듀테크 기업이 있다.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며 에듀테크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교사가 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고려할 수 있는 직업군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클래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클래스팅은 교육용 소셜네트워크다. 클래스팅은 같은 반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수업 내용과 학습 자료, 알림장, 비밀 상담방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클래스팅의 조현구 대표는 4년간의 초등학교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클래스팅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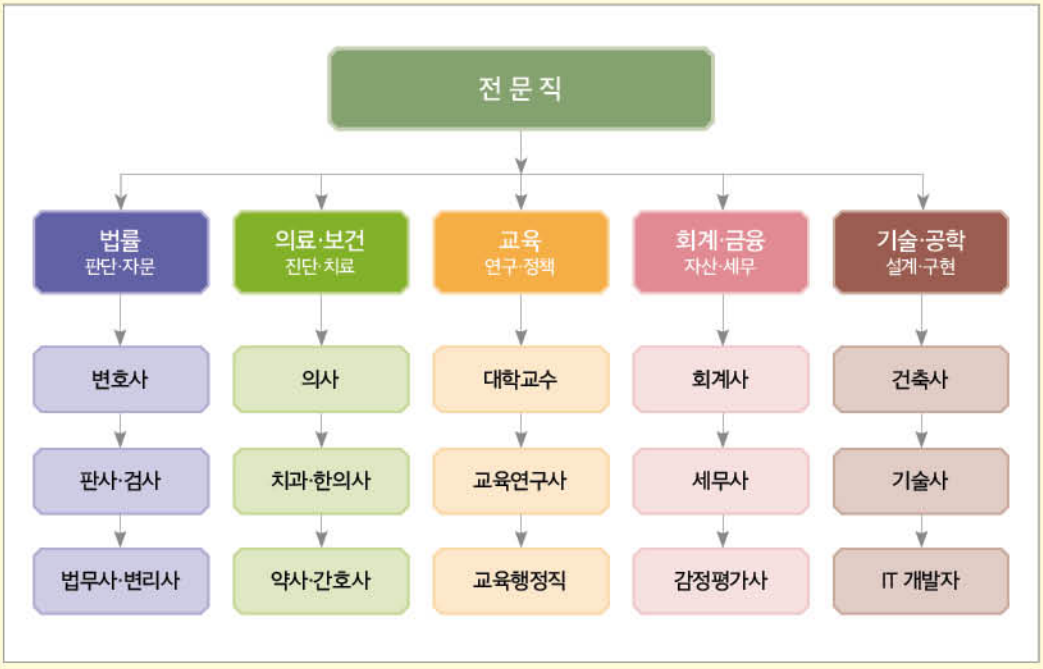
교육대학교 학생이라면 교사로서의 교육적 감각에 AI, 데이터, 온라인 학습 같은 기술 이해를 더해, 수업을 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방향으로 바꾸는 에듀테크 전문가를 진로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문 지식과 실무 기술을 갖춘 전문직

교육과 관련이 없는 직종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직 시험'을 통한 진로 전환 역시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로스쿨 진학을 통한 법조계 진출, 공인회계사(CPA), 노무사, 변리사 등 각종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로스쿨은 전공 제한이 없는 만큼, 교대생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진로다. 특히 교육대학교에서 배우는 논리적 사고력, 글쓰기 능력,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는 법학적 사고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은 교육법,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분야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순한 진로 변경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적 경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나 노무사와 같은 전문직 역시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진로다. 교대에서 쌓은 성실한 학습 습관과 장기적인 시험 준비 경험은 이러한 시험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 된다. 특히 노무사의 경우 교육 현장의 노동 환경, 교원 권리 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물론 전문직 시험은 긴 준비 기간과 높은 난이도를 요구한다. 따라서 단순한 '탈출구'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장기적인 목표를 충분히 고민한 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대생의 진로는 더 이상 교사라는 하나의 길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교대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이해하고 가르침을 설계하는 교대에서의 배움은 다른 직업의 언어로도 번역될 수 있다. 지금 다른 길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 자체가 이미 더 나은 방향을 향한 첫걸음이다.



숙취야 가라!

다음날을 지켜주는 교대생들의 해장 메이트를 소개합니다

편집국장 홍혜정
수습위원 양재현

전날 술자리 탓에 엄청난 숙취에 시달리는 재현 기자.
어질어질한 숙취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대생들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데...
재현 기자는 문득 궁금해졌다.
"숙취는 왜 생길까?"
"교대생들의 해장 메이트는 무엇일까?"
"올바른 숙취 해소 방법은 무엇일까?"
혜정 기자. 재현 기자와 함께 이 질문들의 답을 찾으러 가보자!



숙취는 왜 생기는 걸까?

숙취는 한 가지의 증상뿐 아니라 다양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그만큼 숙취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알코올이 우리 몸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화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숙취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세트알데히드'**의 독성이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강력한 독소이기 때문에 간에서 이를 다시 아세트산으로 분해하여 체외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과음을 하면 간의 분해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체내에 쌓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숙취를 유발하게 된다.

감기 몸살 같아요



알코올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매개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때문에 몸 전체에 가벼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이는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와 비슷한 근육통, 오한,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속이 좋지 않아요



음주 도중, 이후에 속이 안 좋아지는 것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알코올은 위와 장의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속 쓰림,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위장 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머리가 아파요



두통도 숙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증상이다. 알코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뇨호르몬(ADH)의 작용을 억제한다. 이로 인해 신장은 수분을 체내로 재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계속 배출하게 된다. 결국 마신 술의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뇌를 둘러싼 뇌척수액의 수분도 줄어들어 뇌가 미세하게 수축하며 뇌척수막을 자극해 극심한 두통이 일어난다.

왠지 모르게 힘이 들어요



알코올은 간이 알코올 해독에 모든 힘을 쏟게 만들어 혈당 조절 기능에 소홀하도록 한다. 결국 저혈당 상태를 만들어 피로감, 무기력증, 식은땀, 기분 저하 및 예민함을 유발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계가 억제되어 빨리 잠들 수는 있지만, 수면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알코올은 뇌가 쉬는 깊은 수면 단계와 렘(REM)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다가 자주 깨게 되며, 충분한 시간을 자더라도 뇌와 신체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 다음 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면 숙취 해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금주를 권해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사향인은 어떻게 숙취를 해소할까?

사향인의 숙취 해소 방법을 알아보고자, 2026년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사향인 22명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숙취 해소 방법'을 조사해 보았다.



▲ 선호하는 숙취 해소 방법

가장 많은 사향인이 선호하는 숙취 해소 방법은 '숙취 해소제 섭취(젤리, 음료, 환 모두 포함)', '해장국/라면 등 국물 음식 섭취', '물 많이 마시기', '이온 음료 마시기와 음료 마시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박 먹기', '아이스크림/빙수 등 디저트 섭취', '치즈버거/치킨 등 기름진 음식 섭취' 등이 사향인들 만의 숙취 해소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었다.

일부 사향인은, 자신만의 독특한 숙취 해소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에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사향인의 숙취 해소 루틴을 한 번 참고해 보도록 하자.

더 이상 숙취 해소제는 없다_사향인 1

1학년 때는 숙취 해소제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별 효과를 못 느꼈습니다. 게다가 숙취 해소제 가격도 부담되어서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술자리에서 물을 많이 마시고 자리를 옮길 때마다 달달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꼭 먹습니다. 마무리로 아침에 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으면 아침 수업도 문제없답니다.

숙취의 적은 물이다_사향인 2

저는 술자리에서 항상 술과 물을 1:2의 비율로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잘 지켰을 때는 숙취가 없었습니다. 혹여나 이걸 지키지 못해서 숙취가 있는 날에는 역시나 '물'을 마셔주면 숙취가 사라집니다.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이게 제게 가장 잘 맞는 방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숙취도 안 온다_사향인 3

저는 술자리가 있는 날이면 잠을 푹 자고 갑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숙취도 잘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남들과 비슷하게 숙취 해소제를 먹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토마토 주스나 초록 매실 등 과일 음료수를 마셔주면 숙취 없이 깔끔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향인의 숙취 해소, 이대로 괜찮을까?

사향인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숙취를 해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숙취 해소 방법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혹시 플라시보 효과인 것은 아닐까? 사향인들의 숙취 해소 방법, A to Z까지 분석해 보았다.

숙취 해소제	우리나라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으로 구분된다. 숙취 해소 제품은 일반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능 입증 없이도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던 중, 2020년에 식약처에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란 일반식품이라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근거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 식약처의 숙취 해소 표시 광고 제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89개의 제품 중 3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되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컨디션', '상쾌한', '레디큐', '깨수강', '헛개 음료' 등도 모두 기준을 통과했다. 통과하지 못한 3개의 제품은 2026년부터 '숙취 해소' 표시가 금지될 예정이다.
물	물은 숙취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통해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켜 숙취 증상을 더욱 심하게 만든다. 이때 물을 많이 마시면 탈수로 인해 진해진 혈액을 희석해 간의 해독을 돕는다. 또한 물은 체내에 남은 알코올과 안주로 인한 염분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배 음료	배는 술을 마신 후에 설사나 숙취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배에 든 '탄닌'이란 성분은 설사를 멎게 하고, 배변을 부드럽게 한다. 숙취 유발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는 간, 신장 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효소인 '알코올 디히드로겐(ADH)'과 '알데히드 디히드로겐(ALDH)'에 의해 제거되지만 그 속도가 느리다. 인도 뭄바이 화학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두 효소를 가장 활성화하는 식품을 찾으려 과일, 채소, 향신료, 유제품, 커피 등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배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이온 음료	이온 음료는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과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개발된 음료로 나트륨,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등 광물질과 약간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온 음료는 숙취해소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알코올의 이뇨 작용 탓에 술을 마시면 신체는 탈수 증상을 겪는데 전해질 음료가 수분을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온 음료는 맹물에 소금과 설탕을 미량(2%안팎) 섞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혹은 국물을 마시는 것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물	많은 사향인들이 술을 마신 다음 날 국물로 해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음주 다음 날 맵고 짠 음식은 오히려 더 오랫동안 속을 불편하게 하는 최악의 해장 음식이다. 알코올로 손상된 위 점막에 자극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라면, 짬뽕 등 대표적인 얼큰한 해장국에는 합성조미료, 식품첨가물 등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유해성분은 간에서 대사 돼 몸 밖으로 배설되므로,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과로한 간이 해야 하는 일을 늘릴 뿐이다. 또한 맵고 짠 국물은 기름지기 때문에 소화가 느려 위에 부담을 더할 뿐 아니라, 알코올 분해를 하는 간에 영양소를 빨리 공급하지 못하게 해 해장을 방해한다.

종합해보면, 술을 마시기 전·후에 숙취 해소제를 먹거나 마시는 것을 권장하며 해장이 필요한 날이라면 국물로 해장을 하는 것 보다는 이온음료, 배 음료를 마시는 것이 숙취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술은 기분을 좋게 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양의 술은 건강을 해치고, 심한 숙취로 다음날을 망칠 수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숙취 해소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숙취 해소 방법을 점검해 보고, 알맞은 숙취 해소 방법을 통해 술을 마신 다음 날을 구원해 보도록 하자.

가장 익숙한 목소리의 배신

편집위원 김민소
편집위원 김인영

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격언은 수많은 간접 정보보다 직접 보고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피싱 범죄가 가족·지인의 얼굴과 목소리로 위장해 우리의 가장 오래된 신뢰 본능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에 생성형 ai가 활용되었습니다.

AI가 만들어 낸 완벽한 가짜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존하는 인물의 얼굴, 음성, 행동을 합성하거나 조작한 미디어 콘텐츠를 가리킨다. 딥페이크의 핵심 원리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AI 구조에 기반한다. 'GAN'은 '생성자(Generator)'와 '판별자(Discriminator)' 두 신경망이 서로 경쟁하며 학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생성자는 최대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판별자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끊임없이 검증한다. 두 신경망이 반복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결국 인간의 눈과 귀로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완벽한 가짜'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단 3초

딥페이크 피싱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낮아진 진입 장벽이다. 과거에는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팅 환경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재는 약 3초에서 10초 분량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특정인의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AI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다. 영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진 몇 장 혹은 짧은 동영상 클립만으로도 실시간 얼굴 합성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샘플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SNS에 업로드한 짧은 영상, 친구에게 전송한 음성 메시지, 가족 단체 채팅방에 쌓인 일상적인 대화까지 공개된 공간이든 사적인 대화창이든 가리지 않고 샘플 조각이 된다. 범죄자들은 디지털 공간에 흩어진 이 조각들을 AI 모델에 학습시켜 얼굴과 목소리는 물론 나만의 말버릇까지 그대로 베낀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낸다.

음성 합성에서 실시간 영상 조작까지

딥페이크 피싱의 기술적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보이스 클로닝(Voice Cloning)' 기반의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이다. AI가 학습한 특정인의 음성 패턴, 억양, 말투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해당 인물의 목소리로 발화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오랫동안 들어 온 지인의 목소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의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는 '페이스스와프(Face Swap)'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비디오 피싱'**이다. 실시간으로 합성한 영상 혹은 미리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통해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이다. 특히 실시간 딥페이크 기술은 화상 회의 플랫폼과 결합되어 기업 임원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고도화된 금융 사기에 활용되며 국내외에서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딥페이크 피싱이 기존의 피싱 범죄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의 피싱 전화는 낯선 목소리로 불특정 다수를 노렸다. 하지만 딥페이크 피싱은 피해자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정밀하게 복제해 신뢰 자체를 무기로 삼는다. 더 이상 낯선 번호의 전화만 조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딥페이크 피싱의 사례와 심리적 덫

기존의 보이스피싱도 정교한 범죄였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하고,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는 일단 의심한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 했다.

딥페이크 피싱은 바로 그 '의심의 틈'을 파고든다. 발신자가 낯선 번호가 아니라 저장된 가족과 지인의 이름이며, 들려오는 목소리도 오랫동안 들어 온 바로 그 사람의 것이다. 기존 보이스피싱이 '모르는 사람'을 가장했다면, 딥페이크 피싱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을 가장한다. 의심의 출발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딥페이크 피싱은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린다.

> 2023년 홍콩의 한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본사 임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2500만 달러(약 345억 원)를 송금했다. 사기범이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해 A씨를 속여 돈을 갈취한 것이다. A씨는 실시간 화상 회의 중 본사 임원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AI를 구분할 수 없었다.
>
> 2025년 내방역 부역장 B씨는 고객안전실 앞에서 상가 종사자 C씨가 겁에 질린 채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상하다고 느낀 B씨는 C씨의 통화를 유심히 살폈는데, '우리 딸', '납치', '송금'과 같은 단어를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당시 C씨는 딸 목소리와 똑같은 음성의 AI에게 '누군가에게 납치됐다'라는 말을 들은 탓에 겁에 질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딥페이크 피싱은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다. 패닉 상태에 빠지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노려 가족을 위협하는 말을 하거나 지극히 일상적인 환경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유도하며 의심할 수조차 없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딥페이크 피싱은 **기술과 심리 공격이 결합한 복합 범죄**이다.

피해 규모나 수법의 정교함도 다르다. 기존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그중 속는 사람을 노리는 방식이었다. 반면, 딥페이크 피싱은 특정 피해자의 주변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맞춤형으로 복제해 공략한다. 범행의 준비 과정 자체가 훨씬 치밀하고 타깃 지향적이다.



AI 공격은 AI 방어로

"피해자들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실제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요. 또 정교한 범행 수법으로 철저하게 기망당하기 때문에 한 건당 피해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습니다.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인식 하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피싱 스캠 범죄 예방 차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계장>

AI 제작물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며 경찰도 딥페이크 피싱에 맞서 AI를 활용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통화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피싱 시도를 사전에 탐지하고, 범행에 이용된 번호와 통화 패턴을 학습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를 미리 차단하는 등의 방식이다.

우리가 딥페이크 피싱에 맞서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딥페이크 피싱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이제는 눈과 귀만으로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낯선 번호와 어색한 말투를 특징으로 하기에 보이스 피싱을 비교적 쉽게 경계할 수 있었다면, 딥페이크 피싱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밀하게 복제해 의심할 틈 자체를 줄여 버린다. 따라서 단순히 '수상하면 조심하자'라는 수준을 넘어, 익숙한 상대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대응법은 기본적인 데에서 출발한다. 갑작스럽게 돈을 요구하거나, 사고·병원·경찰서 등을 언급하며 긴급함을 강조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통화나 영상 통화를 종료하고, 원래 알고 있던 번호로 다시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끼리만 아는 질문이나 안전어를 미리 정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다급한 상황일수록 즉각 반응하지 않고, 다른 채널을 통해 교차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딥페이크 피싱은 **기술의 문제인 동시에 노출의 문제**이기도 하다.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재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에 남긴 일상적인 기록들이 모두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과 목소리를 온라인에 완전히 남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공개 범위를 점검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태도는 필요하다. 딥페이크 시대의 보안은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조차 다시 확인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도 진화한다. 이제는 신뢰가 공격받는 시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위험에 맞는 새로운 확인 습관을 갖추는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이 우리를 지켜 주는 방어선이 되어 줄 것이다.


PEOPLE

5

2026 통권 61호



PEOPLE

반.친.소 반려동물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요즘 대학생은 어디에 돈을 쓸까?

교대생의 이중생활 '부캐'로 사는 법

교실 너머에 반짝이는 교사의 무한한 가능성



사향지기

반.친.소.

반려동물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편집위원 박지민
수습위원 최연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

이제 이 말에서 '아이'는 더 이상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표현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비롯한 다양한 반려동물을 지칭하는 말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향인들은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과 어떤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 사향인들의 다양한 반려동물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자.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강아지



이름: 보보
생일: 3월 25일
나이: 8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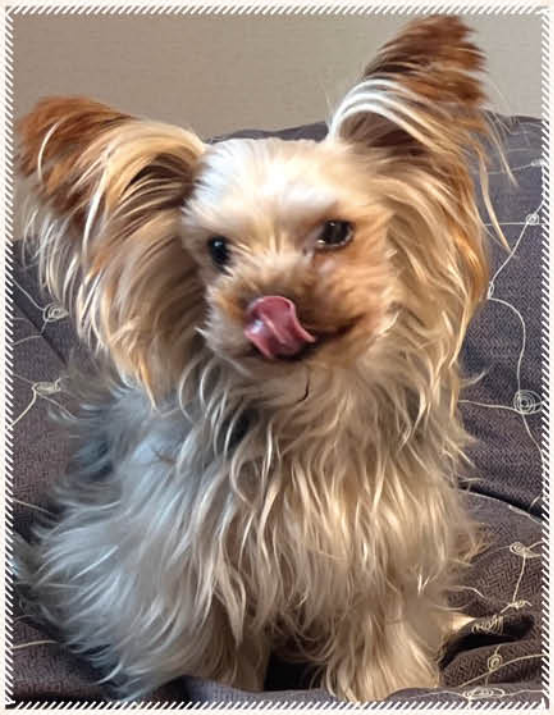
특징: 보보는 새하얀 털에 살짝 베이지색을 띠는 귀가 가장 큰 매력인 강아지입니다. 털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점박이 무늬도 있어 생각보다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잠자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사람 몸 위나 곁에 꼭 붙어 누워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애교 많은 강아지입니다.

특별한 추억: 보보는 희귀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지금도 햇볕이 잘 드는 곳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를 신기할 정도로 잘 찾아갑니다. 늘 가족 곁에 붙어 있으려 하고, 특히 사람에게 엉덩이를 딱 붙이고 쉬는 것을 좋아해요!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보보는 잠자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강아지인데도 산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타는 탓에 산책을 나가면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안아 달라며 다리에 매달리곤 해요. 한번은 눈이 많이 내린 날 산책을 나갔는데, 눈을 밟자마자 깜짝 놀라 그대로 드러누워 버린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보보와 함께하는 산책은 사실 보보의 산책이라기보다 제 산책에 더 가깝습니다!

나에게 보보의 의미: 보보는 저의 전부이자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과에서도 집순이로 유명한데,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보보 때문인 것 같아요. 보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행복을 주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가족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몸으로 삶 한가운데를 차지한 강아지



이름: 호프
나이: 12살

특징: 엄청난 동안 얼굴을 가진 성격 더러운 요크셔테리어입니다!

호프의 MBTI: 아마도 INFP같습니다.

특별한 추억/재미있는 에피소드: 호프는 강아지의 본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뱀이 지나가도 모르고, 쪼그만해서 짖을 때 왈왈!이 아닌 앙앙!하고 짖어요! 같이 살 때는 매일 아침 찾아와서 자고 있는 제 얼굴을 밟아 저를 깨웁니다.

나에게 호프의 의미: 저의 가족이자 제 삶 중 큰 한 부분이에요.

작은 몸에 애정이 가득한 햄스터



이름: 흑두
나이: 13살

특징: 드워프 햄스터 종 중 노란 털인 푸딩 사이에서 혼자 검은 털로 태어났습니다.

흑두의 MBTI: INFJ

특별한 추억/재미있는 에피소드: 항상 은신처로 제 손가락을 물고 갑니다. 안 아프게 살살 물어요!

나에게 흑두의 의미: 자그마한 내 전부!

곁에 있는 것만으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강아지들



이름: 보기·별
나이: 12살·7살



- **특징**: 겁이 많지만 가족을 엄청 챙기는 보기와 애교쟁이인 별입니다.
- **보기와 별의 MBTI**: 보기-INFP/별-ENFP
- **특별한 추억/재미있는 에피소드**: 수업 때 배운 뜨개질을 연습할 겸 강아지들의 목도리를 떠주고자 했던 적이 있어요. 원래 저녁 11시면 잠들던 강아지들이 새벽 넘어서까지 목도리를 뜨는 제 곁을 지켜주었는데, 꾸벅꾸벅 졸면서도 기다려준게 기억에 남습니다.
- **나에게 보기와 별의 의미**: 동생이자 형제이고 항상 나에게 행복을 주며 행복을 주고 싶은 존재입니다.

사향인들의 이야기는 각기 달랐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존재를 넘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고 감정을 나누는 대상이었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시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 역시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일이 아닐까?



요즘 대학생은 어디에 돈을 쓸까?

편집위원 박예은
수습위원 박천진

지갑을 열 때마다 잠깐 고민하게 된다. *이게 꼭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사고 싶은 걸까?* 어느 날 둘이 마주 앉아 한 달 지출 내역을 털어놓다 보니, 쓴 곳은 달라도 "이건 아깝지 않았어"라는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서 나왔다. 학기가 바뀌어도 통장 잔고는 늘 아슬아슬한 예은 기자와 천진 기자. 물가는 치솟고 주머니 사정은 팍팍해진 시대, 그럼에도 대학생들은 분명히 어딘가에 기꺼이 돈을 쓰고 있다. 선택적 소비의 폭이 한없이 넓어진 요즘, 우리의 지갑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예은 기자, 천진 기자가 직접 사향인들의 소비 속으로 뛰어들어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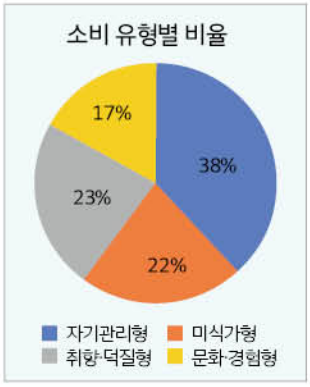
가심비란?

요즘 소비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심비'다. 가심비란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뜻하는 말로, 얼마나 실용적인가보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가를 따지는 소비 기준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산 것이 아니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낭비가 아니라는 것. 내 마음이 충분히 만족했다면, 그 소비는 가심비가 높은 것이다.

이는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세대별 소비성향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오락·문화 지출 비중은 최근 몇 년 사이 3.1%p나 증가했다. 기능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이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소비지출 정기조사」에서도 Z세대가 소비 시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로 '취향·취미·덕질(74.3%)'이 전체 평균보다 유독 높게 나타났다. 성능이나 실용성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 가장 아깝지 않다는 뜻이다.

요즘 대학생은 어디에 돈을 쓸까?

지난 6월, 한국의 대학생 53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 달간의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돈이 나가는 항목'은 식비(69.8%)였으나, '돈을 쓰고 나서 가장 오래 뿌듯했던 소비'로 맛있는 식사·카페를 꼽은 학우는 13.2%뿐이었다. 가장 많이 쓰는 곳과 가장 잘 썼다고 느끼는 곳이 따로 노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향인의 가심비 높은 소비는 어떤 소비일까? 소비 고민, 가장 만족하는 소비 기억, 주요 지출 항목을 교차해 본 결과, 우리는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자기관리형 _"나를 가꾸는 데에는 아끼지 않아" (37.7%, 20명)

가장 많은 사향인이 속한 유형이다. 마음에 드는 옷이나 화장품을 사기 직전이 소비 고민이 가장 길다는 응답이 43.4%로 1위였고, 실제로 사고 난 뒤 만족감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응답도 41.5%로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 지출 경험이 81.1%, 뷰티·피부·헤어가 64.2%로, 두 항목 모두 전체 지출 항목 중 2·3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가장 아깝다고 느끼는 소비'에서도 이 유형이 강세를 보였다. '사놓고 안 쓰는 옷이나 화장품'이 32.1%로, '충동적으로 시킨 배달비'(32.1%)와 나란히 공동 1위였다. 몇몇 학우들은 이러한 소비 습관에 대해 "기회비용을 줄이고자 비싼 옷 한 벌 대신 저렴하고 적당한 옷을 많이 사고 버린다.", "물건을 구매하고 뜯어보기까지의 그 소비 과정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다.

미식가형 _ "맛있으면 그걸로 됐어" (22.6%, 12명)

앞서 식비가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심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미식가형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 유형에게 음식은 단순히 '끼니'가 아니라, '소비의 목적' 그 자체이다.

"맛있는 음식에 돈 쓰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가을부터 용돈을 모아뒀다가 겨울에 굴을 사는 데 전부 씁니다. 5kg에 2만원짜리 한 박스를 이틀에 하나씩, 일주일에 6~8만 원어치 먹어요."

한 학우가 소개한 자신의 소비 경험을 들으니, 그들에게 음식을 위한 소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얼마나 가심비 높은 소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취향·덕질형 _ "일상 속의 낙, 취미생활" (22.6%, 12명)

이 유형의 학우들이 '돈을 잘 썼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좋아하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했을 때(20.8%)다. 다음은 한 학우분의 소비 경험이다.

"아이돌 콘서트를 위해 이틀에 총 90만 원을 썼는데요, 1열이었기 때문에 후회가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야 해요!"

이렇게 덕질을 위한 소비 외에도 게임 현질, 각종 쇼핑 등을 즐기는 취향·덕질형 학우들. 그들에게 소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금액, 액수가 아닌, 그 너머의 만족감일 것이다.



문화·경험형 _ "기억으로 남으면 됐어" (17.0%, 9명)

소비 유형 4가지 중 문화·경험형에 해당하는 인원이 가장 적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공연·전시· 팝업(45.3%, 복수 응답)과 여행(41.5%, 복수 응답)에 소비한 경험들은 결코 적지 않다. '티켓 값이 부담스러운 공연을 예매할 때나 여행 경비를 계획할 때 가장 오래 고민한다'는 응답이 15.1%였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결국 그 고민 끝에 소비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또한, "개강 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비의 즐거움을 경험했다"는 한 학우의 말처럼, 이 유형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느냐, 무엇을 봤느냐와 같은 추억과 경험으로 소비에 만족하는 편이다.

나는 어떤 소비 유형일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본인의 소비 유형을 알아보자!

Q. 돈을 쓰고 나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건?

1. 옷, 화장품 등의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2.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디저트를 먹을 때
3. 덕질, 게임 등 좋아하는 것에 쏟아부을 때
4. 공연, 여행 등 값진 경험을 할 때



자신이 선택한 문항 번호에 따라 소비 유형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간단히 알아본 것이니 가볍게 받아들이자.

- 1번을 골랐다면 → 자기관리형
- 2번을 골랐다면 → 미식가형
- 3번을 골랐다면 → 취향·덕질형
- 4번을 골랐다면 → 문화·경험형

내 소비 유형에 맞는 가심비 찾기

내 소비 유형을 알았으니, 이제 뭘 하면 좋을까. 딱히 소비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각자의 유형에서 가장 아깝다고 느끼는 소비 패턴이 뭔지 알면, 조금 덜 후회하는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관리형은 '일단 장바구니 담아두기'를 추천한다. 마음에 드는 걸 봤을 때 바로 결제하는 대신 하루 정도 두고 보는 것. 다음날 다시 봤을 때도 마음이 가면, 그건 가심비가 있는 소비다. 사고 나서 옷장에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미식가형은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두는 것을 권한다. 정말 먹고 싶었던 것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지만, 배고플 때 급하게 시킨 배달은 아까울 확률이 높다는 걸 이미 스스로도 안다.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가 있으면 충동 배달 대신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비로 바뀐다. 그렇다고 매일이 치팅데이라면 지갑이 힘들어 하긴 할 테지만.

취향·덕질형은 사실 조언이 필요 없는 유형이다. 후회가 없다는데 뭘 더 말하겠나.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과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돈은 구분해두는 게 좋다. 앨범 구매나 게임 현질이 즐거워서 하는 건지 습관이 된 건지, 가끔 점검해 볼 것.

문화·경험형은 '기록'을 챙기자. 사진 한 장, 메모 한 줄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꺼내 보는 즐거움이 생긴다. 사진 한 장이 나중에 그날을 통째로 불러오기도 하니까. 티켓 값이 아까웠던 공연도 추억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향인들의 소비를 들여다보며 알게 된 건, 소비 유형은 달라도 '이건 잘 썼다'는 감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은 다 똑같다는 것이다. 가심비라는 단어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그 뜻은 단순하다. 쓰고 나서 마음이 남느냐는 것. 다음번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나에게 남는 소비일까?

교대생의 이중생활 "부캐"로 사는 법

편집위원 김지윤
수습위원 김나원

과제에, 팀플에, 정신없는 교대생활 속 학업만큼이나 우리를 열중하게 하는 취미들이 있다. 삶을 살아가는 활력과 '또 다른 나'를 찾게 하는 다양한 취미들. 예비 교사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찾아가는 교대생들의 이중생활을 알아보자.

길 위에서 내딛는 나만의 최선: 달리기

국어23 김건우



Q.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의 특별한 취미는 달리기입니다. 제게 달리기는 소중한 일상의 루틴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안고 있더라도, 일단 신발 끈을 묶고 달리기 시작하면 복잡했던 마음이 이내 상쾌하게 비워집니다.

저는 마라톤 대회에 자주 참여합니다. 발전된 기록의 기쁨과 더불어 결승선에서 모든 에너지를 연소시킨 뒤 찾아오는 강렬한 희열에 저는 마라톤을 찾게 됩니다. 한계인 사점을 마주하고도 다시 페이스를 찾아가는 경험은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단단한 원동력이 됩니다. 길 위에서 저마다의 속도로 달리는 사람들을 보며, '최선'이란 단어는 반드시 객관적인 순위로의 증명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점에서 한계에 도전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Q. 취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취미에 대한 애정도는 어떠한가요?

대학 생활의 단조로움을 깨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입시 시절에는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나 수능이라는 명확한 목표 지향점이 있었지만, 대학교에 오니 4학년 임용고시 전까지는 이렇다 할 목표가 보이지 않아 생활의 활력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고, 스스로 세운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며 무너진 집중력을 회복하고 싶어 본격적으로 달리기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일 꾸준히 달리고, 컨디션이 좋은 날이나 대회를 앞둔 시점에는 하루 두 번씩 나가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한 달 평균 2~300km, 방학 기간에는 400km 정도를 달릴만큼 달리기에 진심입니다. 학업과의 병행을 위해서는 수업 전 이른 새벽이나 밤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저에게 달리기는 체력을 소진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Q. 자신의 특별한 취미를 홍보해주세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성취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달리기를 추천합니다. 달리기는 평가나 결정에 좌우되는 결과보다, 오로지 나의 정직한 노력으로만 증명되는 과정의 가치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동안만큼은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지친 뇌를 쉬게 하는 공백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만큼, 일상으로 가열된 신경을 식히기에 달리기만큼 좋은 활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러닝의 즐거움은 여행지에서 더욱 특별해져, 익숙한 풍경을 벗어나 낯선 도시의 공기를 마시며 달리는 것만으로도 여행은 더욱 선명하고 특별한 기억으로 각인됩니다. 특히 올해 초 도쿄에서 만난 외국인 러너와 국경과 언어를 넘어 '달리기'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했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Q. 교대생으로서의 자아와 취미생활을 할 때의 자아 간 차이는 어떠한가요?

예비 교사로서의 저는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르며, 아이들에게 보일 뒷모습을 고민해보는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동화 끈을 묶고 길 위로 나서는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자아를 만납니다. 주로 위에서는 학점이나 임용, 타인의 시선 같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되며,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학교 안에서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 정형화된 길을 걷는다면, 달리는 동안만큼은 오로지 나만의 페이스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독립적인 주체가 됩니다.

이러한 자아의 균형 덕분에,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교대 생활을 지나 더욱 단단한 에너지를 교실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도전에서 국가대표로: 코프볼

체육24 오혜빈

Q.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의 특별한 취미는 '코프볼'입니다. 코프볼의 '코프(Korf)'는 네덜란드어로 '바구니'를 의미하며, 바구니에 공을 넣어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덜란드의 한 초등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만든 스포츠이기 때문에 몸싸움이 없고, 동성 수비와 드리블 금지라는 규칙 덕분에 팀워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프볼로 활동하는 팀은 현재 서울교대 동아리와 졸업생 및 타대생으로 구성된 SKC(서울코프볼클럽)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자연스럽게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취미로 시작했지만, 세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특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Q. 취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취미에 대한 애정도는 어떠한가요?

다양한 동아리 홍보글 중 '코프볼'이라는 종목이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해외 대회에 나가며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있고, 새로운 스포츠라는 점에서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실력 향상 과정과 팀원들의 열정적인 분위기, 서로를 응원하는 문화에 코프볼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생활을 이어오던 입시 생활을 지나 다시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는 경험은 잊고 있던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프볼 훈련은 주 3회(수, 금, 일) 약 3시간씩 진행되며, 저는 거의 모든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동아리 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이 더해졌고, 훈련 외에도 각종 경기·훈련 영상을 보며 분석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기 때문에 일상의 상당 부분이 코프볼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또한 학업과의 병행을 위해 훈련 전후 시간을 활용해 공부를 이어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생실습 중이나 부상을 입어 목발을 짚고 다니던 시기에도 훈련에 나가 타이머를 도우며 팀과 함께하려고 했던 만큼, 주변에서는 저를 '코프볼에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만큼 코프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Q. 자신의 특별한 취미를 홍보해주세요!

코프볼의 가장 큰 매력은 '운동선수의 삶'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훈련과 선발 과정을 거쳐 유니폼과 등번호를 받는 설렘, 국가대표로서 애국가를 들으며 경기에 나서는 순간은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이 됩니다. 대학 동아리를 통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큰 행운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팀원들과 부딪히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관계는 가족만큼이나 끈끈해집니다. 특히 해외 대회와 같은 쉽지 않은 여정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Q. 교대생으로서의 자아와 취미생활을 할 때의 자아 간 차이는 어떠한가요?

교대생으로서의 저는 수업 준비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해내려 하는, 비교적 차분하고 계획적인 편입니다. 반면 코프볼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계속 뛰고, 순간순간 판단을 하면서 플레이하다 보니 감정에 훨씬 솔직해집니다. 처음에는 이 두 모습이 완전히 상반된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프볼을 통해 배운 몰입과 끈기, 팀워크는 수업 준비에 도움이 되고, 교대생으로서의 책임감은 코프볼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모습이 따로 존재한다기보다, 같은 저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 춤

영어24 한명현

Q.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만의 특별한 취미는 춤을 추고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Q. 취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취미에 대한 애정도는 어떠한가요?

고등학교 시절에 하이틴에이지, 웹드라마 촬영과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캐스팅을 받았고, 연습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부족했던 춤을 좀 더 보완하고 싶은 마음에 춤을 열심히 추다가 지금의 취미생활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가수의 춤을 연습하는 것은 4번의 수험 생활을 버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댄스리플레이에 가입을 한 이후로 매주 3회 2~3시간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따로 알바나 다른 취미가 없어서 수업이 끝나면 연습을 진행합니다. 외부 연습실을 대여해 새벽까지 연습할 정도로 춤을 출 때만큼은 행복하고, 제가 원하는 움직임을 저만의 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외부 촬영팀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업이 끝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행복감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Q. 자신의 특별한 취미를 홍보해주세요!

누구나 처음 춤을 추면 뚝딱거리고 어설프게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완성하는 과정 자체가 춤을 추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게 된다면 춤만큼 중독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멋'스러움에 대해 고민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스스로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하고, 어제보다 발전한 '나'를 칭찬하며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Q. 교대생으로서의 자아와 취미생활을 할 때의 자아 간 차이는 어떠한가요?

학과 모임 등의 생활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교대생으로서 학교를 다닐 때와 춤을 출 때의 제 모습은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느낍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하다가도 취미생활을 할 때만큼은 함께 추는 친구들과 많이 소통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며 발전하는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저의 자아이겠지만, 직접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취미생활 할 때의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흘러가는 나의 행복 기록하기: 유튜브

미술26 성시현

Q.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만의 특별한 취미는 유튜브 활동입니다. 제 일상과 제가 이야기한 영상들을 편집해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Q. 취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취미에 대한 애정도는 어떠한가요?

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 틈날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들을 찍곤 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의 저장공간이 부족해지며 영상을 보관할 방법을 찾은 것이 유튜브였습니다. 또 이왕 유튜브에 올리는 김에 간단한 편집까지 하다 보니 1년 내내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 것이 제 취미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고정된 컨텐츠로 자주 공부하는 타임랩스를 찍었지만 대학 입학 후에는 컨텐츠를 생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즐겁고 꾸준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때로는 컨텐츠 생산과 편집의 막막함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행복과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응에서 오는 보람이 힘듦을 잊게 합니다.

Q. 자신의 특별한 취미를 홍보해주세요!

제게 유튜브 활동은 제 모습을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많은 것을 얻게 하는 취미입니다. 저는 사진보다 영상이 더 기억에 남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영상을 보면 단지 추억에 잠기는 것을 넘어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소중한 추억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저장공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유튜브에 업로드 해보세요! 편집하는 건 생략해도 되고 공개/비공개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니 큰 부담 없이 유튜브를 활용하여 소중한 추억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Q. 교대생으로서의 자아와 취미생활을 할 때의 자아 간 차이는 어떠한가요?

교대생으로서와 취미생활 할 때의 제 자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취미생활을 하는 이유와 학교생활을 하며 가지는 목표가 같은 맥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우선하는 가치는 흘러가는 시간 속의 추억들을 기록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대학교 1학년 시기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노는 순간들은 특별히 소중하기에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에요. 이를 위해 전 오늘도 영상을 찍습니다. 가장 젊고 아름다운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는 마음가짐은 두 자아의 큰 축이 됩니다.

스포츠에서 인간관계, 삶의 활력까지: 야구/티볼

윤리24 김태인

Q.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는 무엇인가요?



제 특별한 취미는 야구와 티볼입니다. 티볼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을 만큼 야구를 쉽게 개량한 뉴스포츠입니다. 투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남녀 5대5 혼성으로 경기를 진행하기에 야구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티볼은 좋아하는 운동 이상으로 제 대학 생활과 인간관계, 삶의 활력을 책임집니다.

Q. 취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취미에 대한 애정도는 어떠한가요?

초등학교 3학년, 아버지와 집 앞 놀이터에서 캐치볼을 할 때부터 너무 즐거워서 야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넥센(현 키움) 팬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야자 시간에 나와 친구들이랑 야구를 했던 기억이 제 학창 시절 가장 행복한 추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즐겁게 야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학교에 와서도 야구 동아리를

찾다가 티볼부를 발견했습니다. 티볼은 야구의 재미와 함께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매력이 있었고, 티볼부에 윤리과 선배들이 많아 동아리에 애정도 빠르게 적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에 너무 진심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티볼부에서 주 4회의 정기 훈련 중 최소 3회 이상은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티볼을 통해 하루의 스트레스가 풀려 행복함을 느끼기에 힘들지 않아요. 또 전 성균관대학교 야구 동아리에서도 투수와 유격수를 맡아 한 달에 2~3회 정도 야구 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투수는 팀의 흐름을 책임지는 중요한 포지션이고 유격수는 수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기에 부담감도 있지만 그만큼 큰 재미와 성취감을 느낍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히려 취미생활 덕분에 더 활기차고 건강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자신의 특별한 취미를 홍보해주세요!

티볼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야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야구를 직접 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티볼은 규칙이 훨씬 쉬워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운동신경이 뛰어나지 않아도 즐길 수 있고 팀원들과 함께 웃고 뛰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팀 스포츠를 매개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티볼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대 티볼부에서 만난 정말 좋은 인연, 그들에게 받는 응원과 믿음을 져버리지 않고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점, 앞으로도 또 다른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저에게 큰 활력이 됩니다. 티볼은 그저 운동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웃고 협력하며 대학 생활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Q. 교대생으로서의 자아와 취미생활을 할 때의 자아 간 차이는 어떠한가요?

교대생으로서의 제 모습과 취미생활 할 때의 제 모습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의 교사로서는 학업과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면 취미생활을 할 때의 저는 조금 더 자유롭고 솔직한 모습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물론 지금은 티볼부 회장이라는 역할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취미생활 속에서도 책임감을 배우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이기에 우리 안의 세상은 너무나 다채롭다. 강의실 불이 꺼진 후 시작되는 교대생들의 이중생활은 스스로의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이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훗날 교실에서 만날 수만 가지 색깔의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거름이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 '부캐'의 삶을 찾아 교과서 밖에서 나만의 멋진 이야기를 써 내려가 보자.

교실 너머에 반짝이는 교사의 무한한 가능성

편집위원 박예은
수습위원 양재현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교사가 되면 수업만 해야 하는 거 아냐? 난 교실 안에 날 가두기 싫어!

'교사'라는 장래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은 기자와 재현 기자.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많은 재현 기자는 교사가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까 봐 교사의 길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그런데, 과연 교사는 교실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일까?

아니, 교사의 가능성은 교실 안팎에서 빛나고 있어! 교실 밖에서 반짝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이 들어볼래?

교사인데요, 작가입니다.

어린이문학 작가 **조시온** 선생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어린이책을 매개로 아이들과 삶의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창작이 더 나은 삶을 이끌어준다고 믿으며 흘러가는 순간을 붙잡아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한솔수북 선생님 동화 공모전에서 '기억영화관'으로 대상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쓴 책으로는 《맨발로 축구를 한 날》, 《내 마음에 파도가 칠 때》, 《오늘 마음 날씨는?》, 《덜덜이와 붕붕이》, 《부글부글 말 요리점》, 《새빨간 질투》, 《마음안경점》, 《앵거게임》이 있습니다.

Q. 작가 활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교사가 된 후 첫 5년은 진창 속에서 자주 헤맸어요. 여러 가지 업무에 허덕였고 수업을 하고 아이들의 다툼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교사 연수를 듣게 되었어요. 강사님이 그림책을 천천히 읽어주었는데, 그림책에는 따뜻하면서 단단한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돼 그 후로 틈만 나면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도서관에 있는 그림책을 샅샅이 훑으며 제 마음을 흔든 책을 교실로 들고와 아이들에게 읽어주었어요. 특별한 주의집중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오로지 이야기의 힘만으로 아이들은 쫑긋 귀를 기울였고 책이 부리는 마법에 홀렸는데요. 그렇게 그림책은 저와 아이들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고, 퍽퍽한 교실에서 저만의 별사탕이 되어주었습니다.

5년 넘게 그림책이 좋아 계속 읽고 수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그림책의 문법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읽기에서 쓰기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별도의 창작 훈련을 거친 적은 없었지만, 봉사활동으로 캄보디아의 봇뱅초등학교를 찾았다가 그림책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를 발견했는데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동정'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오랫동안 매만지며,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 끝에 길어낸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했는데요. 눈 밝은 편집자의 지도와 조언으로 첫 책 ≪맨발로 축구를 한 날≫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책을 내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마음속에 샘솟더라고요.

Q. 작가 활동이 교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글을 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교실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교실에서 갈등이 생기면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치밀어오르면서, 피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갈등을 온전히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이야기

속에는 늘 갈등이 등장하잖아요. 이 과정을 견디면 내 안에 한 편의 이야기가 자란다는 걸 아니까,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절 가장 힘들게 했던 아이가 어느덧 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있기도 하고요.

저희 반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껏 쓰는 사람으로 계속 살지 못했을 거예요. 금방 쓸거리가 바닥났을 테니까요. 이제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우두커니 관찰하게 됐고,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됐어요. 아이들의 고민을 수집하고, 그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턱을 괴고 궁리하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가 여러 편 쌓이더라고요.

더불어 첫 책이 출간된 2018년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창작 수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기 삶의 질문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창작하도록 격려하고, 학기 말에는 아이들의 창작물을 모아 학급문집 한 권으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창작이 몰고 온 성장의 기적을, 아이들도 직접 맛보길 바라면서요.

Q. 앞으로 구상 중인 작품 활동의 방향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는 그림책을 쓰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동화를 쓰는 데 조금 더 주력할 계획이에요. 올해부터 서울교대 대학원에서 아동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동문학과 더 깊이 만나며 제가 가진 이야기들을 한층 더 풍성하게 가꾸어 가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한솔수북 선생님 동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기억영화관'이라는 동화가 출간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Q. 교실 밖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예비 교사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우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먼저 찾아보세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책을 통해 교직 생활의 기쁨을 찾았거든요. 교실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들고 갈 때, 교실도 함께 살아나더라고요. 예비 교사 여러분이 먼저 좋아하는 것 앞에서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인데요, 유튜버입니다.

수학 유튜버 **장명석** 선생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성민여고에 근무 중인 수학교사 장명석이고, 교직 경력은 2026년 기준 11년차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로 인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주고 싶다는 교직관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Q.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처음 교직을 시작할 땐, 잘 가르치는 수학 교사가 되고 싶었고 이를 위해 교수법을 배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랜 기간 수업 방법과 개념 전달 능력을 기르기 위해 크게 노력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저의 수업 모습이 대부분 이뤄졌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 수학 모의고사와 학교 수업이 크게 연결되어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학교 수업을 해도 학생들은 모의고사 공부를 별도로 해야했고, 저 역시 개념만 잘 가르칠 뿐 모의고사를 잘 풀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때 잘 아는 선배 교사가 매 모의고사마다 문항을 풀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보았고 수학 교사로의 발전을 위해 저 역시 도전해보기로 한 게 첫 계기였습니다.

Q. 유튜브 활동이 교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 활동을 4년간 이어오다 보니, 당연히 모의고사 문항을 푸는 능력은 전보다 훨씬 탁월해졌습니다. 대부분 오해하는 사실이 있는데, 수학 선생님은 모의고사 30번을 쉽게 푼다는 오해입니다. 수학선생님도 엄청 어렵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넓고 깊게 배우는 것이지, 함정과 속임수가 많은 문항을 푸는 도사가 아닌거죠. 지금은 문항 난이도의 구분 없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푸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유형과 중요한 유형을 보는 눈이 생겨서 개념 지도할 때 학생들에게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현재 그동안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문제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영상과 연결되는 QR코드를 각 문항별 해설에 삽입하여 풀이를 제공하는 교재를 제작하여 현재 방과 후 수업에 쓰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유튜브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꾸준히 이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격언 중,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 시스템을 유지하라'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추월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실 밖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예비 교사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교사는 어떤 사람이든, 학생에게 배울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도, 비교적 못된 사람도, 교과적으로도, 인성적으로도, 아이들은 모든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에 교육 현장은 작은 사회이고 살아가는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죠. 그렇다면 자신을 갈고 닦을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비춰진다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노력할지 개개인 별로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교사인데요,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주하연** 선생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21학번 주하연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2년 차 교사이고, 올해는 영어 전담 교사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에 진학하면 꼭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며 수험생활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서울교육대학교에 최종 합격한 뒤에는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있는지, 그동안 어떤 곡들을 연주했는지 가장 먼저 찾아봤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시작에는 초등학생 시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배우던 중 흥미가 조금씩 줄어들던 시기에 어머니께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권해 주셨고, 지역 오케스트라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후 첫 연습에서 다양한 악기가 하나의 음악으로 어우러지는 하모니를 듣는 그 순간 오케스트라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이후 입시라는 현실에 부딪혀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웠지만, 그만큼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다시 합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품어 왔던 꿈을 다시 이어가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Q. 오케스트라 활동이 교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오케스트라 활동은 제 교직 생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대학 시절의 소중한 경험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에듀필에서 활동하며 총 3번의 정기연주회와 여러 차례의 앙상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연습하고, 진은준 교수님의 지휘 아래 합주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연습하며 조금씩 성장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으며, 현재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에는 악장, 2023년에는 회장을 맡아 몇십 명의 부원들과 함께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부원들을 이끌었던 경험은 교사가 된 지금 학생들과 소통하고 수업을 이끌어 가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득 에듀필에서 활동했던 시간이 떠오르곤 합니다. 졸업 후에도 동아리 부원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에듀필 이야기를 나눌 만큼,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Q. 앞으로의 오케스트라 활동 계획이 있다면?

작년에는 외부 오케스트라에서 제2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기공연 한 차례를 목표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였기 때문에 공연 이후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교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참여한 오케스트라였기에 더욱 뜻깊은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별도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바이올린 레슨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케스트라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특히 직장인 오케스트라처럼 교직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꾸준히 참여하며 음악을 계속 가까이하고 싶습니다.

Q. 교실 밖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예비 교사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시절의 소중한 경험이 교사가 되었을 때 생각보다 훨씬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옵니다.

언젠가 교직에서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직의 길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후배님들의 모든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위 인터뷰들을 통해 우리는 교사가 교실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각자의 능력들은 교직은 물론 세상의 갖가지 부분에서 빛날 수 있다. 교사의 가능성은 교실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우리의 반짝이는 다양한 진면모를 교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찬란하게 보여주자.




SPECIAL

6

2026 통권 61호



SPECIAL

기자's pick!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26학번 새내기를 소개합니다

사향지기

기자's pick!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편집국장 홍혜정

"오직 맛으로 승부하라."

2025년을 강타했던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의 슬로건이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열광하고, 맛집을 찾아가며,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이렇듯 음식은 더 이상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음식은 하나의 문화이자, 사람들에게 맛과 비주얼을 통해 행복을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밥 한 끼를 사주는 것에 서로 간의 마음이 전달되며 음식을 먹으며 느꼈던 좋은 기억은 오랜 시간 동안 추억으로 남아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는, 정말 이것만 먹고 살라 해도 먹을 수 있는 '소울 푸드'가 존재할 것이다. 사향지기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울 푸드'는 무엇일까? 사향지기 기자들이 애정을 담아 소개하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읽다 보면 어느새 입에 침이 고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김 밥

편집국장 홍혜정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입니다. 어릴 적, 소풍날 엄마가 싸주는 김밥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소풍이기를 바랐던 일이 생각납니다. 김밥은 다양한 맛이 나는 햄, 시금치, 단무지, 우엉, 계란 등의 재료를 밥이 엄마처럼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입니다. 각각의 재료는 자극적이지만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김밥의 맛은, 놀랍게도 재료 본연의 맛뿐만 아니라 함께해야만 느낄 수 있는 맛입니다. 그 조화가 마치,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비슷해 보여 더욱 애정이 가는 음식, 김밥입니다.

사 과

편집위원 김민소



시대를 불문하고 세계 곳곳에서 언급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창세기 속 아담의 울대뼈를 지칭하는 열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했다는 열매, 하루에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열매……. 바로 사과입니다. 19세기 동화 속 백설공주는 붉고 탐스러운 겉모습에 반해 사과를 베어 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1세기의 민소 기자도 매일 아침 사과를 씻어 듭니다. 눈을 뜨고 나면 사과 한 개를 베어 물어야 비로소 아침이 열리는 것만 같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문장을 인용하며 기자's pick을 마무리해 봅니다.

밀 면

편집위원 김인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밀면'입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제게 밀면은 라면이나 짜장면같이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서울에 올라왔을 때, 몇몇 동기들이 밀면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삼삼한 맛의 냉면과는 달리, 밀면은 물밀면에도 적당량의 양념이 들어가 시원하면서도 매콤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콤한 맛을 더한 비빔밀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밀면은 제가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꼭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밀면 맛집 알려드릴게요. 중동 '해운대 밀면'에 꼭 가보세요. 정석적이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맛이랍니다!



딸기라떼

편집위원 손지후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정~말 많지만!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딸기라떼'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 카페에 가면 늘 이것저것 다양한 음료를 마셔왔는데요! 그러다 2024년에 딸기라떼를 경험한 후 그 맛에 푹~ 빠지며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ㅎㅎ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후는 딸기라떼지~"라고 하며 친구들이 먼저 주문해 줄 정도에요 ^_^ 물론 건강을 생각해 요즘은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힘들 때 마시는 딸기라떼 한 잔이 저의 기분을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

초코스무디

편집위원 이서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초코 스무디'입니다. 근사한 식당의 값비싼 스테이크도, 화려한 랍스터도 아닌 어느 카페에나 있는 그런 평범한 메뉴입니다. 마시는 순간 입안 가득히 퍼지는 달콤한 초코맛은 지친 하루를 달래줍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초코 스무디 한 잔처럼 작은 행위에도 행복함을 느끼고 온전히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소소한 행복은 늘 우리 곁을 따라옵니다. 유난히 걸음걸이가 무거웠던 오늘, 나를 위한 초코 스무디 한 잔 어떠신가요?

녹차아이스크림

편집위원 김지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초록색을 유구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 제가 녹차·말차 디저트를 좋아하게 된 것은 어쩌면 조금 당연하지 않았나 합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게 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자연스레 달달한 초콜릿 맛을 고르려던 찰나, 어머니가 고르신 녹차 아이스크림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손에 든 초록색이 예뻤고, 어린이 입맛같은 초코맛보다 더 어른스럽게 보여 먹은 한 입이 지금 제 디저트 취향을 만든 것 같습니다. 조금 쌉쌀하면서도 묘하게 달콤한 맛이 마음에 들어 자꾸만 손이 가, 어느새 새로운 카페에 가면 녹차·말차 메뉴부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녹차 아이스크림의 매력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뼈닭발

편집위원 박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뼈 닭발입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도 재밌고, 무엇보다 맛있잖아요! 화끈한 닭발을 먹다 보면 매워서 입안이 화끈거려 오죠~ 그때, 음료수나 계란찜, 주먹밥 등으로 입안을 싸악 진정시키고, 천국을 맛보는 거죠! 불맛과 함께 즐기는 닭발, 오늘 저녁 메뉴로 어때요~?

주먹밥

편집위원 박지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주먹밥입니다. 이름부터 '주먹밥'이라니, 왠지 모르게 귀엽지 않나요? 주먹밥은 제가 원하는 재료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어, 같은 음식이라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먹밥이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요리라 더욱 애정이 갑니다. 주먹밥을 시작으로 김밥, 후토마키처럼 여러 재료를 활용하는 음식들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주먹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먹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가장 애정하는 음식입니다.

만두

편집위원 양시형



저는 만두가 좋습니다. 만두와 전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꿨던 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꿈도 만두와 관련이 있을 정도니까요. 엄마의 손을 잡고 장을 보던 5살의 양시형은 만두를 먹고 싶은 나머지 바닥에 누워 생떼를 부렸습니다. 5살의 양시형은 만두 중에서도 군만두를 좋아했습니다. 바삭바삭하고 풍미 깊은 육즙이 나오는 군만두는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기 마련이죠. 조금씩 성장한 양시형은 군만두보다 찐만두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돌봄교실에서 먹었던 맛있는 대왕 야채 호빵 때문이었죠. 전 그게 만두인 줄 알았습니다. 어쩌다보니 찐만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만두와 함께 나이가 들어 대학생이 되었네요. 만두 양시형, 양시형 만두, 나...

간장게장

수습위원 김나원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많지만 매번 제게 감동을 주는 음식은 단연 간장게장입니다. 간장이 알맞게 밴 부드러운 게살과 신선한 주황빛 알을 모락모락 김이 나는 흰쌀밥에 얹어 먹으면 어떤 산해진미도 부럽지 않습니다. 간장게장의 별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게딱지에 밥을 비비는 건데요, 녹진한 내장과 달콤 짭짤한 간장이 밥과 어우러졌을 때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간장게장은 김부각과 함께 먹거나 참기름, 계란 노른자를 추가해 먹는 방법도 유명하죠. 하지만 돌고 돌아 전 언제나 간장게장과 밥만의 조화, 순정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떡볶이

수습위원 박천진



어렸을 적부터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든 잘 먹어서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누구든 저를 보고 '애가 참 복스럽게 먹는다'라는 말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특히나 좋아했던 음식이 떡볶이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거의 매주 떡볶이를 해주셨고, 그때마다 배가 불러도 꾸역꾸역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주말에 또 떡볶이를 해주실 게 분명했지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학교가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있던 포장마차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제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떡볶이가 한 컵에 500원이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머니께 떡볶이를 부탁드려야겠습니다.

귤

수습위원 양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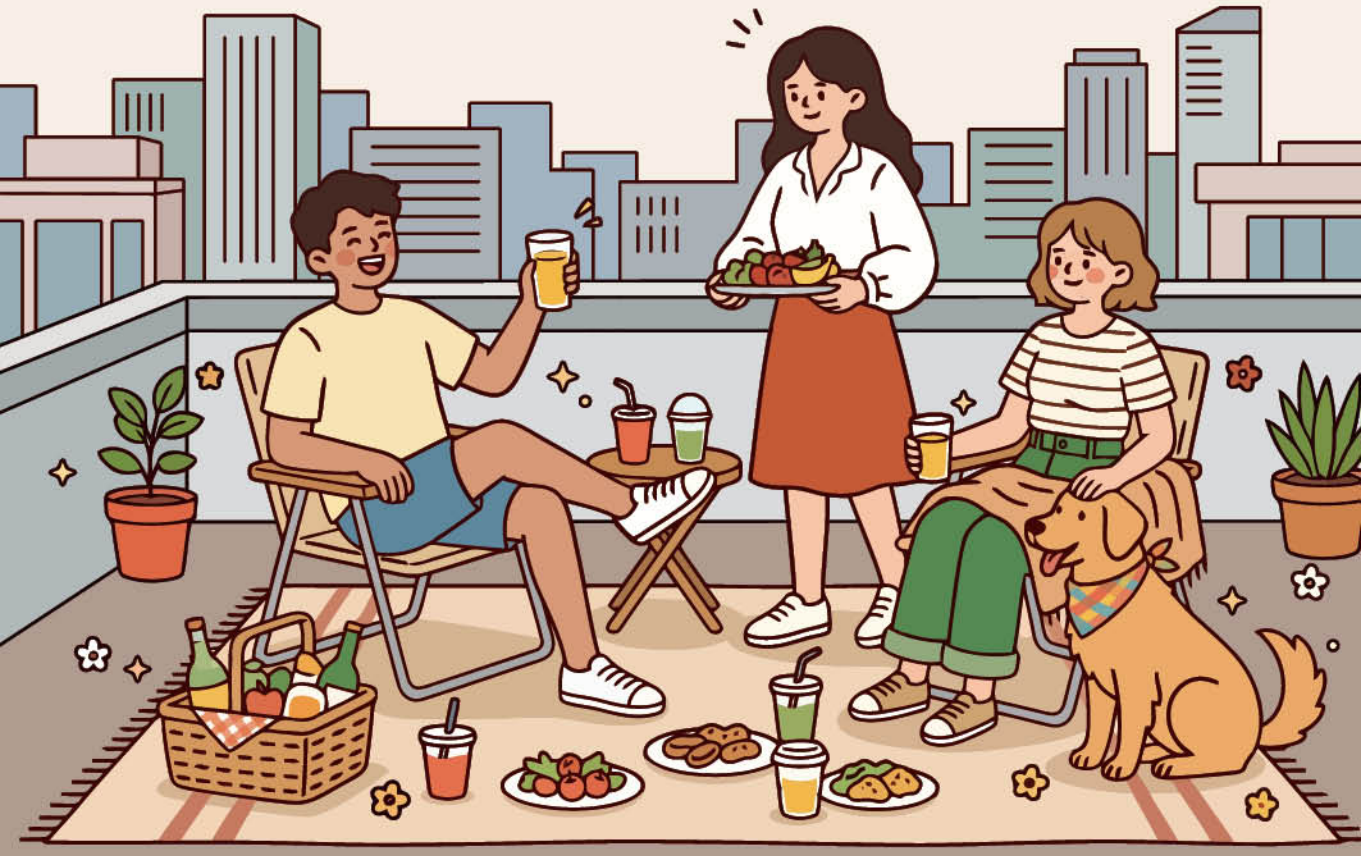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이면 시원한(?) 겨울날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겨울이 그리운 하나의 이유가 더 있으니... 바로 제 소울푸드 귤입니다. 어릴 적부터 겨울은 제게 귤의 계절로 각인되었습니다. 5kg 한 박스를 사도 이틀이면 다 먹어버릴 만큼 귤을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손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답니다. 물론 지금도 겨울철에는 손이 항상 물들어 있지요. 그렇게 귤을 많이 먹고 또 좋아한 저였기에 저는 스스로 귤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작은 귤보다 큰 귤이 맛있다"입니다. 저는 귤을 좋아하지만 역설적으로 신맛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맛이 강하지만 신맛도 강한 작은 귤보다는 덜 달지언정 신맛이 적은 큰 귤을 선호합니다. 게다가 큰 귤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얼른 겨울이 와서 그 밍밍함 속의 미세한 달콤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회

수습위원 최연우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 육회만의 매력입니다. 소의 우둔살, 치마살 등에 참기름, 깨, 배 등을 곁들여 먹는 육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육회에 고추장과 채소들을 넣어 비벼먹는 육회 비빔밥부터 육회 초밥, 육회 물회, 육회 비빔면 등 육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하니 꼭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6학번 새내기를 소개합니다

수습위원 최연우

차가운 겨울 바람이 잦아들고 봄의 싱그러움과 설렘이 찾아오던 날, 바로 **26학번 새내기**들이 입학한 날입니다.

낯선 공간과 새로운 이름들 속에서 시작된 어색한 하루는 어느새 봄의 활기와 함께 서로를 향한 웃음과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자신만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답니다.

앞으로 서울교대에서 4년을 보내고 예비 교사로 나아가게 될 새내기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A군

윤리교육과 [최강윤리]

철학도 락이고, 나락도 락이다.
근 본 윤 리 어이 어이 어이!!

26윤리 화이팅!!한 학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누구보다 끈끈하게 지내요!



국어교육과 [청춘국어]

우리말처럼 곱디 고운 우리!

추운 겨울에도 파릇한 소나무처럼, 오랜 역사동안 빛나는 국어처럼, 언제나 푸르를 우리의 국어과!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사회과교육과 [사랑과]

영크크
26학번 사회과교육과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수학교육과 [최강수학]

처음엔 서로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서히 달아오른 만큼 오랫동안 갈등 없이 지낼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며 최강수학의 이름으로 즐겁게 나아가겠습니다.><



과학교육과 [우주 최강 곽과]

꽉꽉

선배님들부터 동기들까지 너무 완벽하고 멋있는 과학과!!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줘서 고마워. 앞으로 다함께 최선을 다해서 멋진 교사가 되자!



체육교육과 [무적체육 ⚽]

아 힘! 아 힘! 아 힘세고 오래가는
무~적 체육과! 무적 체육과!
어야! 디야! 어야 디야 빠샤!!

체육과 화이팅!



B군

음악교육과 [낭만음교]

음악과 귀여워~

가장 재미있는 과는 음악과입니다~ㅎㅎ



미술교육과 [감각미교]

미술 Up

서로의 개성과 감각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서울교대 미술교육과가 되겠습니다! 예술을 통해 사람과 마음을 연결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미래의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생활과학교육과 [생과탱]

아생! 아생! 아생과탱~!

낭만도 텐션도 생과가 접수한다!

생활과학교육과는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적 역



량과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곳입니다! 대학생활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딘 우리 생과26,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즐겁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초등교육과 [근본초교]

초교과는 못말려

교육이 미래다. 초등교육과 화이팅!



영어교육과 [잉블리]

아잉블링~ 아잉블링~ 블링블링! 영어과에 끌린다! 하!

26개의 알파벳이 만나 무한한 문장을 만들 듯 다양한 매력의 우리 26학번 잉블리들이 다 함께 꿈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어과, 서로의 불꽃이 되어 온 세상을 밝히자!



정보교육과 [미래정보]

최강컴과 미래정보

잘 놀고 잘 먹고 잘 마시는 정보과 26! 앞으로도 더 재밌게 교대 생활 누리자!



유아특수교육과 [유잼유특]

유잼유특 참좋다

26 유특 화이팅!!



"위대한 일은 작은 일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빈센트 반 고흐-

처음은 서툴러도 좋고,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만의 길이 됩니다.

서울교대에서 내딛은 첫걸음이 써 나갈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응원합니다!

편집후기



편집국장 홍혜정

처음 국장을 맡을 때 '꼼꼼하지 않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밤을 지새웠던 생각이 납니다. 익숙하지 않은 탓에 실수도 많이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무사히 61호가 나오게 되어 개인적으로 많이 뿌듯했습니다.

사향지기 기자님들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지 못한 것이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국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따라와 준 우리 기자님들 정말 너무 고맙고, 기자님들이 있어서 이렇게 멋진 61호가 발간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61호는 독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학교의 소식부터 서울교대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까지 다채로운 내용을 담았습니다. 모든 글은 독자가 읽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들이 열심히 작성하신 멋진 기사들을, 독자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멋있는 62호로 돌아오겠습니다. 사향지기 사랑합니다!



편집위원 김민소

새 신발 같았던 이 년을 뒤로하고 꼭 맞아서 아껴 신는 구두 같은 삼 학년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선선하다가도 무더위에 증발될 것 같던 여름이 끝나 가네요. 퇴고일이 다가오니 언제 그랬냐는 듯 가을이 코앞입니다.

매사에 평정하고 호오가 크지 않은 제가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천고마비에 과일이 달아서, 등화가친이라고 손에 닿는 대로 읽기 좋아서, 가을 닮띠는 잘 산다는 말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가을 아침이 선선하고 가을볕이 뜨겁고 가을비 듣는 소리가 꼭 음악 같아 자꾸만 눈이 뜨입니다. 이렇게 좋은 때에 기자로서 독자님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봄에는 모교인 개봉초등학교로 실습을 다녀오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김없이 함께해 준 혜정 언니와 지후 그리고 실습 메이트 서영 언니에게, 공동 기사로 함께해 준 인영이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



편집위원 김인영

즐거운 시간은 왜 늘 금방 지나가는지요. '사망년'의 시작이었던 이번 학기도 정말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고, 사향지기로 교지를 만드는 일도 어느덧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고민과 수정을 거쳐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이 이제는 제 대학 생활의 익숙하고도 소중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생각과 관심을 담아 완성한 이번 호도 즐겁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온전히 맞는 첫 여름입니다. 햇빛은 유난히 뜨겁고 하루는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 사이사이 마주한 풍경과 사람들 덕분에 이 지치는 계절도 조금씩 특별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여름을 떠올렸을 때 지금의 마음까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애정하는 사향지기 기자님들께, 그리고 함께 고민하며 기사를 완성해 준 민소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편집위원 이서영

기사에 대한 애정 속에 어느덧 3학년이 되었고, 돌아보니 5번의 교지를 냈고 한 번의 교지만이 남았습니다. 교지를 마칠 때마다 그저 설렜던 기분이 이제는 조금씩 아쉬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교지는 도입과 카테고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가 서울교대를 더욱 담았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의 끝을 기다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2026년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편집위원 손지후

사향지기 61호와 함께 파란만장했던 한 학기를 떠나보내봅니다. 2026년이 되며 서울교대에서의 3학년을 맞이했고, 어느덧 사향지기에서도 최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사향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교지에 담아보자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트로 코너를 만들고 대면 피드백을 도입하는 등 30기 친구들과 다양한 변화를 함께했는데요. 그 덕인지 이번에는 더 예쁘고, 더 알찬 멋진 교지가 완성된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이번 학기에는 특히 사향지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유독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 회의하고, 회의가 끝난 뒤에도 늦게까지 남아 떠들던 시간부터 교대의 꽃이자 교대의 전부인 실습 기간까지 ♡ 사향지기와 함께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행복한 과정 속에서 즐겁게 만들어낸 61호라 그런지 더욱 애틋하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사향인 여러분도 이번 61호 사향지기를 읽는 시간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느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 김지윤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배워가던 새내기 시절을 지나, 어느새 편집 위원으로서 사향지기를 다시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제 목표는 '무리하기'입니다. 젊은 날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해내가며 성장하고 싶다는 뜻을 담아 하게 된 새해 다짐인데요. 기사를 쓰는 과정만큼은 제게 전혀 무리가 아닌 오히려 새로운 휴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이번에 인터뷰 기사를 많이 맡으며 다양한 인연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61호는 사향지기가 가진 '다채로움'이라는 매력이 함뿍 더 담긴 교지가 아닐까 합니다. 사향지기와 함께 저의 세상을 넓힐 수 있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 박예은

여전히 서투른 초보 기자인 제가 어느새 두 번째 편집 후기를 작성하고 있네요. 지난 번보다 더 잘 쓰고 싶은 마음에 기사도, 편집 후기도 손이 잘 안 떨어지지만, 말을 고르고 골라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교지를 읽을 독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쓰곤 하는데, 이번 호에서 정작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저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단독기사를 써내려가는 일이 유독 힘들었던 건, 아마 제 이야기와 닮아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제 진심을 담은 기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편집위원 박지민

한 학기 동안 써 내려간 기사가 교지에 담겨 나온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노력들이 떠올라 뿌듯함과 기쁨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을 넘어, 글로 마음을 전하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저에게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전할 수 있는 글을 꾸준히 써 나가고 싶습니다.



편집위원 양시형

사향지기로 활동을 하며 어느새 3번째 교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지를 적을 때는 그저 글을 쓰는 것이 즐거웠고, 관심있는 분야를 탐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교지를 내며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기사를 쓰고 싶은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사만 작성할 순 없지만, 한줄 한줄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적은 기사에 애정이 생기고, 주제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사를 다루며 세상을 보는 창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하루 성장해 나가는 기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사향지기 기사를 적었습니다. 독자분들도 사향지기를 통해 저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간 교지인 만큼 많은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습위원 김나원

고민도 많고 글을 쓰는 즐거움도 넘쳤던 사향지기에서의 한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교대에 입학하고 사향지기 홍보글에 매료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추억이 되었네요! 애정을 가득 담고 시작해서, 따스한 사향지기 기자님들과 함께 해서 저의 첫 학기는 걱정만큼 낯설지 않았고 기대보다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글이 세상에 나오길 바랐던 오랜 꿈을 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으니 어느 때보다 뜻깊은 여름입니다. 사향지기와 함께해주시는 여러분께 매일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며 겨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위원 박천진

사향지기에 처음 지원서를 쓰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제가 쓴 기사가 교지에 실려 나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멋진 사람들밖에 없는 사향지기에서 저도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했던 첫 회의부터 대면 피드백, 설문조사, 인터뷰 등 여러 경험을 하며 스스로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끝내 완성한 교지를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수습위원 양재현

사향지기와 함께한 대학 생활의 시작, 이제 61호 교지가 나오니 첫 학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구상하고 친구와 상의하고 부원들과 의견을 주고받던 시간들이 어느새 문장 한 줄에 글씨 하나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아 추억이 되었습니다. 교지를 만드는 과정은 제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여러 가지 궁금증과 사회현상에 대한 생각들이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 얇은 생각의 실오라기를 꼭 쥔 채 걸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하며 교지를 만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더 좋은 교지를 만들어가리라 다짐합니다. 함께 생각하며 교지를 만드는 사향지기와 교지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교지를 읽어주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습위원 최연우

서울교대에 입학하기 전부터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향지기의 교지를 제 손으로 직접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설레이는 일이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고, 기사 주제를 고르고 원고를 작성하며 '사향지기'란 교지가 무엇인지를 넘어 어떤 동아리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교지를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국장님, 지민 기자님, 그리고 다른 선배 기자님들과 동료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보고 계신 사향인 여러분. 사향지기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향지기
2026년 61호
발 행 인 장신호
편집주간 이지혜
편집국장 홍혜정
편집위원 김민소
김인영
손지후
이서영
김지윤
박예은
박지민
양시형
수습위원 김나원
박천진
양재현
최연우
발 행 처 서울교육대학교 미디어센터 교지편집위원회
발 행 일 2026년 8월 20일
디 자 인 (주)서울멀티넷

어두운 밤 한 줄기 빛처럼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교 지 편 집 위 원 회